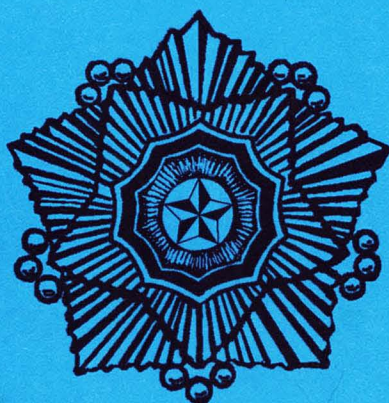




# 조선문학



11

주체95(2006)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5(2006)년 제11호

(루계 제709호)

## 차 례

사랑의 봄날이야기 .....	3
만경벌에 백학이 날아든다 .....	3
진 심 의 노 래 .....	4
덕수굴의 감자 .....	6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8
4 5 분 .....	8
명가사로 된 《못잇을 삼일포의 메아리》 .....	12
당의 순결성을 옹호고수하시여 .....	13
꿈나라 .....	13
《조사보고서》 .....	14
초도의 배길 (외1편) .....	23
위대한 혁명실록에 대한 불멸의 화폭 .....	24
선군령장의 명필체 .....	27
《병사들을 위한 날》이 좋아 (외 1편) .....	27
주체문학의 대강 .....	28
샘물을 드립니다 .....	28
아버지의 별 .....	29
나의 집 .....	29
용해장의 갈매기 .....	30
백두산은 내 조국의 기상 .....	31
병사의 봄 .....	31

맑은 하늘.....	31
고향사람들.....	32
한나절길(외1편).....	33
배고동소리.....	33
보통날저녁에.....	34
가을시초.....	38
따뜻한골짜기.....	40
내고향은행복의꽃동네.....	40
조국은나의사랑.....	40
푸른숲은무엇을속삭이는가.....	41
꽃은태양이피운다.....	43
바다가의해당화.....	45
민주선전실의뜨락(외1편).....	51
내삶의정거장.....	51
강대나무의넋.....	52
추억할권리.....	52
가락지.....	64
잘가시라.....	65
통일애국투사-비전향장기수들을형상한장편소설권의창조와소설문학의 새로운전진(1).....	66
조국이여그대와나.....	71
나의위치.....	72
고마운병사.....	72
시인과화가.....	73
쇠물도익었네사랑도익었네.....	74
50년대태어난나의벗들아.....	75
억천만번죽더라도.....	77
총각의허영심.....	77
되는대로일한후과.....	77
인풍루의유래.....	78

## 사랑의 봄날이야기

김진주

창밖엔 하얀 눈 찬바람 부는데  
봄빛이 넘치는 아늑한 방에선  
귀여운 꼬마들 그림을 그리고있네  
꽃잎같은 예쁜 손으로  
아름다운 꿈을 그리고있네

웃음을 함뱍 담은 고운 볼  
별빛을 가득 실은 눈동자  
한껏 재능을 펼치는 아이들의 행복한 그 모습  
우리 장군님 그리도 대견하시여  
오래도록 오래도록 눈길을 못 떼시네

귀여운 꼬마들의 머리우엔  
온갖 새 날아와 지저귀는듯  
푸르른 하늘엔 하이얀 꽃구름 송이송이 피고  
땅우엔 온갖 꽃 활짝 피어나는듯  
우리 장군님은  
재간둥이들의 그 모습에서  
봄을 그려보시네 아름다운 래일을 보시네

진정 이 아이들이  
자신의 봄이신듯  
이 봄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바쳐오신 헌신이 기쁨이신듯  
그리도 환하게 웃으시는 우리 장군님

뜨거워라  
창밖에선 눈바람 부는데  
아이들은 맑은 봄하늘아래서  
꽃들이 곱게 핀 봄들판에서  
행복의 밝은 노래 부르고  
우리 장군님은 우리 장군님은  
이 찬눈을 맞으시며 또다시 전선으로 떠나시리

어서 맘껏 웃으며 홀룡하게 자라라고  
아이들이 자라는 이 봄 이 사회주의를 지켜  
전선길을 가고가시는 우리 장군님은  
진정 봄의 태양  
아이들은 그 태양의 빛발속에  
곱게곱게 자라는 봄의 아기씩

창밖엔 눈내리고 찬바람 부는데  
봄빛이 넘치는 아늑한 방에서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고있네  
우리 장군님은 조국의 봄을 꽃피우시려  
전선으로 전선으로 떠나시네

## 만경벌에 백학이 날아든다

홍현양

아득한 저 멀리 하늘가에서  
백학이 떴지어 날아든다  
훨훨 날개를 저으며  
훨훨 그리움을 펼치며  
만경벌 푸른 벌을 감돈다

희디흰 송이구름이런듯  
희디흰 순결함을 창공에 얹으며  
푸른 이랑마다 추억을 실으며  
소리없이 내리는 그 퍼덕임

우리의 눈시울을 적신다

아 만경벌  
일만절경이 보고싶어 왔느냐  
수령님 바라보시던 풍치를  
수령님 그리는 인민의 마음으로 펼친  
백학의 날음이어

새롭게 정리된 가없는 벌을  
감돌며 끝없이 내려치는

백학들의 저 모습을  
우리 수령님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간절한 이 소원을  
간절한 그리움으로 더해주는

만경벌 백학의 풍치  
그리움의 눈물이 앞서는 이 땅에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여라

새벽이슬에 옷자락을 적시며

눈두령을 밝으시던  
인자하신 그 영상  
그 영상을 다시 뵙고싶은  
우리의 마음 담아  
백학은 저리도 눈부신가

아 하늘이여  
언제나 창창히 열려있으라  
우리 수령님  
영원히 함께 계시는  
끝없는 이 세월을 타고  
백학이여  
영원한 날음을 펼치라

## 가시묵음

# 진 심 의 노 래

류동호

## 그분이 우리 장군님

정이 들면 꿈결에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매혹되면 한순간도 못 잊는다 하였습니다  
그 언제나 그리운분 그 누구나 못 잊는분  
그분이 우리 장군님 이 세상엔 한분입니다

자신처럼 우릴 믿는 그 사랑이 고맙습니다  
선군혁명동지라는 그 부름이 고맙습니다

뜻과 정을 같이한분 생사운명 다 맡긴분  
그분이 우리 장군님 이 세상엔 한분입니다

아버이로 받들면서 인민들이 사랑합니다.  
결사옹위 성세되어 병사들이 사랑합니다.  
내 조국을 빛내신분 선군승리 펼치는분  
그분이 우리 장군님 이 세상엔 한분입니다

## 아들은 갈길을 묻지 않았네

해빛넘친 길도 따라 걸었네  
눈비세찬 길도 함께 헤쳤네  
어머니의 길은 천백번 돌아  
뜻과 녀을 맡긴 한길이였네  
아들은 갈길을 묻지 않았네  
어머니당 따라서 한길로 가네

그 손길을 잡고 따라 걸었네  
그 모습만 보면 힘이 생겼네  
어머니의 길은 멀고 험해도

행복으로 열린 한길이였네  
아들은 갈길을 묻지 않았네  
어머니당 따라서 한길로 가네

첫걸음마부터 따라나선 길  
내 한생을 바쳐 끝까지 가리  
어머니와 같이 가는 천만리  
승리로 뻗은 한길이라네  
아들은 갈길을 묻지 않았네  
어머니당 따라서 한길로 가네

## 삼지연은 강성대국 첫동네

땅에 비낀 저 하늘의 무지개런가  
꽃지붕들 아름다운 삼지연거리  
해빛밝은 선경마을 노래소리에  
베개봉의 웃음소리 화답을 하네  
아 해쫄는 내 고향 백두산마을  
삼지연은 강성대국 첫동네라네

백두관에 들어서면 추억 뜨겁고  
소년궁전 돌아보면 사랑에 젖네  
빨찌산의 총성높던 옛싸움터에

인민들의 웃음 꽃피 절경이라네  
아 해쫄는 내 고향 백두산마을  
삼지연은 강성대국 첫동네라네

사연많고 추억깊은 삼지연기슭  
백두산의 3대장군 념원 꽃렸네  
강성대국 붉은 러명 비낀 땅에서  
사회주의 내 나라의 앞날을 보네  
아 해쫄는 내 고향 백두산마을  
삼지연은 강성대국 첫동네라네

## 진 심

진심은 순결하고 참다운 마음  
가슴속 깊은 곳의 샘물과 같네  
어머니는 아들딸의 꽃다발보다  
마음속의 그 진심을 더 사랑하네  
아 진심을 바치자 어머니당에  
진심을 다 바쳐 기쁨을 드리자

진심은 매혹되어 바치는 순정  
보이지 않을 때도 향기 풍기네  
말보다도 땀흘리며 기울인 진심

어머니의 기쁨인줄 자식들 아네  
아 진심을 바치자 어머니당에  
진심을 다 바쳐 기쁨을 드리자

진심은 불길에도 타지 않는 념  
진심은 폭풍에도 변함이 없네  
어머니가 사랑하는 미더운 자식  
조국위해 장한 일 한 애국자라네  
아 진심을 바치자 어머니당에  
진심을 다 바쳐 기쁨을 드리자

## 인생길을 곧바로 가자

인생길엔 험한 령도 진펄도 있네  
갈 길 골라 에돈 길은 멀어만지네  
한생길이 몇만린지 알수 없어도  
신념안고 가는 사람 그 끝을 아네  
동무여 인생길을 곧바로 가자  
당을 따라 오직 한길 곧바로 가자

높은 령길 올라서면 앞이 보이고  
눈보라길 헤쳐가면 봄날 열리네  
인생길을 질러가는 그 멋 없다면  
먼 후날에 개척자의 추억 있으라

동무여 인생길을 곧바로 가자  
당을 따라 오직 한길 곧바로 가자

시련앞에 에돈 길엔 락엽 덮여도  
고난헤쳐 달린 길은 조국에 남네  
우리 대에 행복의 길 곧추 열어야  
후대들은 락원의 길 걸을수 있네  
동무여 인생길을 곧바로 가자  
당을 따라 오직 한길 곧바로 가자

## 덕수골의 감자

백두산을 시원으로 하여 거세차게 흘러내리는 압록강줄기를 따라가느라면 장백현 16도구라는 마을이 있다. 일명 덕수골이라고도 부르는 이 마을은 대개 서간도의 화전민마을들이 그러하듯이 왜놈들에게 제 나라, 제땅을 빼앗기고 살길이 막히어 이곳으로 류랑온 조선사람들이었다.

경상도에서 살다가 이 마을에 새로 온 장로인도 하루아침에 왜놈들에게 땅마지기를 떼우고 살길 찾아 들어온 농꾼이었다.

만주가 살기 좋다는 뜬소문을 듣고 남부녀대하여 압록강을 건넜지만 그래도 고국땅을 멀리 떠나고 싶지 않아 여기에 보마리를 끌고말았다.

척박한 등관과 계곡들에 화전뽕기를 일구고 감자농사를 하느라니 고향생각이 났고 흰쌀을 내던논이 그리웠다. 그러나 왜놈과 지주놈에게 빼앗긴 그것이 어찌 제땅이라.

여기서는 아직 왜놈이 보이지 않으니 감자만 먹고 살아도 살로 가는것 같았다.

덕수골은 백두산과 가까운 마을이었다.

백두산에 우리 겨레를 구원할 장수별이 솟았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온지라 아침저녁 백두산을 바라보고 백두산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은것이 그가 이곳에 정착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였다.

세월이 갈수록 장로인은 이곳에 자리를 잡은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도 그럴것이 백두산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속에서 장수별이 칼가는 소리를 들었다고도 하고 왜놈들을 삼대베듯 쓸어눕히는것을 보았다고도 하더니 얼마전에는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수만군사를 거느리시고 조국으로 진군할 준비를 하고계신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아, 고향으로 돌아갈 날도 멀지 않았는가보다.

어느날 장로인은 화전이나 일굴가 하여 이른아침에 도끼를 차고 집을 나섰다.

여기저기를 헤맸으나 맞춤형 곳은 찾기 어려웠다. 웬간한 땅은 다 뚜쳐먹었고 어떤 땅은 습지여서 발이 푹푹 빠졌다.

장로인은 할수없이 골짜기를 따라 계속 들어가다가 어느 잠풍한 곳에서 꽤 널찍한 땅뽕기를 보게 되었다.

이게 웬 떡이나싶어 뽕이질을 몇번 하고보니 아쉽게도 전부 돌천지였다.

아뽕싸... 이러니 사람들이 버리고 갔군...

장로인은 손뭉이 풀려 그냥 돌아서려다 그래도 이랑을 지어놓으면 얼마간의 감자는 거둘수 있을것 같아 뽕이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가까이에서 말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어디

서 나타났는지 세사람이 말고뽕을 손에 쥐고 서 있었다.

《로인님을 놀라게 해서 안됐습니다.》

수수한 농민복차림을 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영채가 도는 눈빛들이며 쭈고 썩썩한 기상이 범상한 사람들 같지 않았다.

그들중의 한사람이 장로인에게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로인님의 일손을 도와드리라고 하시여 왔습니다.》

《...》

장로인은 너무도 놀라와 아무 말도 못했다.

그가 말하기를 자기들은 백두산대장수이신 김일성장군님의 부하들로 여기 아주 가까운 곳에서 조국해방을 앞당기기 위한 군사훈련을 하고있다는것, 그런데 장군님께서 로인님이 이곳에서 힘겹게 돌밭을 뿌지고있다는것을 아시고 자기들을 불러 실참에 도와주고 오라 하시여 이렇게 왔다는것이였다.

(대장수님께서 이 늙은이가 여기 있는것을 어떻게 아셨단 말인가?!...)

세사람은 장로인이 어쩔새없이 팔을 썩썩 걷어붙이고 일손을 잡았다.

《오래간만에 호미를 잡으니 고향생각이 절로나는군...》

《우리 고향에서도 감자를 심었지... 크고 달고 참 맛있는 감자였지.》

그들 세사람은 일하는 품도 달랐다. 한사람이 먼저 뽕이로 네모난 금을 그으면 다른 사람은 무슨 작대기같은것으로 짹짹 금을 그어갔다. 마지막 사람은 호미로 그 줄을 따라 별로 힘들이지 않고 도 척척 이랑을 짓는것이였다.

그들이 일하는 방법이 이상하고 신기해서 로인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장로인더러 담배나 한대 태우며 구경을 하라고 했다. 그런데 담배 한대를 피우는 사이에 벌써 일을 끝내고 그들 세사람은 나타날 때와 같이 바람처럼 사라졌다.

《아뽕싸! 고맙다는 인사도 못 드렸는데...》

발이랑이며 고랑들이 얼마나 알뜰하게 정리되고 돌까지 말끔히 없어졌는지 이게 분명 자기의 화전뽕기가 옳은가 하고 의심할 정도였다.

《참말로 귀인들이로다!》

장로인은 너무도 희한한 일이어서 산을 내리는 길로 마을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로인의 이야기를 그리 신기하게 여기는것이 아니였다.

알고본즉 그들도 그런 일을 겪었으며 백두산대



장수님께서 자주 군사들을 보내시어 자기들의 일손을 도와주도록 하신다는 것이었다.

그해 장로인의 화전에서는 배개통만 한 감자들이 주렁주렁 달렸다.

장로인은 이 밭이야 백두산대장수님의 부하들이 일궈준 밭인데 어떻게 저 혼자만 먹으랴 싶어 두어 줄만 캐고는 그들이 다시 올 때까지 캐지 않기로 했다.

그랬으나 가을이 다 가고 겨울이 지나도 밭을 일구어준 그 고마운분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장로인은 이듬해에도 그 화전땀기를 더 크게 일구고 많은 감자를 심었다. 그리고는 고마운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왜놈 《토벌》대가 마을에 달려들었다. 이 마을에서 유격대에 원호물자들을 보내준다는 것을 눈치챈 왜놈들은 마을어구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사람들을 전부 총구앞으로 끌어냈다.

《우리는 너희들이 유격대에 식량과 금품을 보냈다는 통보를 받고 왔다. 누가 유격대와 내통하고 있는가? 순순히 나서지 않으면 너희들을 모두 총살하겠다. 자, 나서라! 10분간 여유를 준다.》

《토벌》대장놈은 권총을 빼들고 시간을 보았다. 한초한초...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그놈의 털부숭이상통이 이그러지고 총구에서 불이 쏟아져나오려는 그 순간 휘파람소리를 내며 돌개바람이 일었다.

잠시후 《토벌》대장놈앞에 웬 농군차림의 젊은이가 땅우에서 솟아난듯 서있었다.

《토벌》대장놈은 뜻밖의 일에 눈만 데룩데룩거리다가 겁질린 소리로 가까스로 호통을 쳤다.

《당... 당신... 은... 누구요?》

농군차림의 젊은이는 한발자국 더 가까이 그놈에게로 다가서며 말했다.

《당신이 찾는다기에 이렇게 왔소!》

《그... 그럼 당신은?》

《그렇소, 유격대요!》

《유-격대?!》

《토벌》대장놈은 이 한마디 비명을 지르고는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다른 놈들도 어찌할바를 모르고 와들거렸다.

금시 량쪽에서 신출귀몰한다는 유격대의 총알이 제놈들의 골통을 꿰칠것만 같은 공포에 질려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놈들도 있었다.

유격대라는 그 젊은이는 놈들을 향해 추상같이 꾸짖었다.

《내 이자 이곳을 지나다 네놈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냥 지나갈수 없어 이렇게 왔다. 네놈들이 저 선량한 백성들이 우리에게 감자를 보낸다고 못살게 구는데 참으로 네놈들은 눈깔이 멀었도다. 이놈들, 내 다시 한번 똑똑히 말해준다. 우린 아무때나 마음만 먹으면 저 밭들에서 감자를 켈수 있다.》

《감자를요?!》

《토벌》대장놈이 믿어지질 않아 놀란 소리를 했다.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지...》

유격대원은 잠시 가까운 감자밭을 보고나서 한놈을 불러 감자 몇알을 캐오라고 했다.

그 밭은 놈들의 눈으로 보기에 이미 감자를 캐먹은 밭이었다.

《어서!》

한놈이 마지못해 감자밭으로 가서 총창으로 밭을 뜯었다.

그런데 정말로 감자알들이 나타났다. 왜놈들은 이 신비한 광경에 데룩데룩 눈만 마주쳤다.

어떻게 가을한 감자밭에서 감자알들이 생겨날 수 있는가? 저 유격대가 도술을 부리는것이 아닐까?

《토벌》대장놈은 체면도 잊고 감자를 쥐고 깨물어보기까지 했다. 진짜 감자임이 틀림없었다.

장로인도 영문을 알수 없었다. 그러니 저 밭들에서 저렇게 감자가 나온단 말인가?!

유격대원은 왜놈들에게 《오늘은 네놈들을 그냥 살려보내지만 다시 무고한 백성들에게 행패질을 한다면 그때에는 용서치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왜놈들은 허리가 꺾어지라 굽신거리며 제발 이번만은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유격대원은 나타날 때처럼 획 하는 돌개바람을 타고 시야에서 사라졌다.

덕수골에 유격대가 나타나 가을을 한 감자밭에서 감자알들을 캐다는 소문은 빨리도 퍼져나갔다.

누구나 처음 그 소식을 들을 때면 기이해하였고 장로인처럼 어리둥절해지기도 했다.

세상에 이미 가을한 밭에서 어떻게 감자알이 생기는가?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믿기 어려워들 했다.

그러나 세상에 불가사의한 일이란 없는것이다.

덕수골의 장로인은 왜놈들이 기절초풍해 달아난 그날 저녁 마을사람들에게서 그 사연을 전해 듣고 철썩 무릎을 치며 감동을 표시했다고 한다.

《그러니 이 아근의 밭들은 모두 유격대원호를 위해 우정 가을을 하지 않은 밭들이구려. 글썽 그런줄 이때까지 내 모르고 살았으니... 아무렴, 아니 뎌 굴뚝에서 연기 날리 없다는 속담이 참으로 명답일세. 허허...》

그때로부터 장로인은 깊은 골안에 더 많은 화전을 일구어 감자를 심었다. 그리고는 가을이 오면 우정 두어줄의 고풍만 캐고는 유격대원호량식으로 그대로 남겨두었다고 한다.

이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장백지구에서 류행되였던 독특한 유격대원호방법의 한 일종이었다고도 한다.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인민의 지지를 떠난 군대가 결코 강군으로 될수 없으며 싸움에서 승자로 될수 없다는것은 항일혁명의 전기간 우리가 뼈에 사무치게 체험한 진리이다.》

《우리는 유격전쟁을 개시한 첫날부터 인민의 품을 우리 삶의 보금자리로 여겨왔고 인민의 지지성원을 우리 삶의 젖줄기로 여겨왔다.》

《군대가 인민을 사랑하며 또 인민의 지지를 받는것은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승패문제가기전에 살아남느냐 아니면 없어지느냐 하는 존망문제였다. 우리가 만일 이 점을 중시하지 않았더라면 적들이 곧잘 묘사하던 <창해일숙> 과 같이 미미한 존재가 되어 이리저리 밀리다가 지리멸렬되었을것이다.》

《인민혁명군은 주민부락에 잠깐 들렀다 가는 경우에도 인민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군대라는것을 등대고 절대로 재세를 하지 않았다. 배낭을 벗어놓기 바쁘게 물도 길고 불도 때고 마당도 쓸고 장작도 패주었다. 그런 일에서는 사령관도 레외로 되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나 지휘관들자신이 대원들의 거울이 되어 실천적모범으로 그들을 가르치도록 교양하였다.》

《우리는 모든 지휘성원들이 직위고하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 어떤 정황에 처하여있건 평대원들과 똑같이 한가마밥을 먹는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전체가 한가마밥을 먹는것은 절대로 어길수 없는 인민혁명군의 군률로, 식사률리로 되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95돐  
전국문학축전작품

장시

## 4 5 분

윤정길

흰구름 감도는 무봉기슭에  
내 섰노라  
이 땅의 한끝  
하늘아래 첫동네  
무봉마을의 작은 교정이어

랑랑히 울리는 종소리  
아이들 글 읽는 소리...  
철령을 넘어 오성산을 지나  
장군님의 전선길 거룩한 자욱은  
이 교문에도 이어졌나니

내 그 자욱 따라서  
높은 산밭 험한 령도 넘어왔건만  
교정의 이 작은 층계는  
교실의 이 낮은 문턱은  
쉽게 올라설수 없구나  
선뜻 넘어설수 없구나

어려와라, 장군님 오셨던 그날이어  
무봉의 그날은 해가 지지 않은 날  
뜨거워라 교정에 새기신 그날의 시간이어  
그 시간속에 솟아있는 무봉은  
태양에 제일 가까이 솟은 봉우리

빛발치는 해살을 안고 교문에 들어서니  
전선길에 쌓인 피로 푸실새없이  
서둘러 교정에 들어서시던 모습

이 아침에도 뵈울듯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 정겹게 보시며  
이런 멋에 혁명을 하는거라고  
환히 웃으시던 미소  
저 밝은 창문마다 비끼인듯

그날의 그 시간속에 내 심장 뛰여라  
못잊을 교수참관시간이어  
그날의 그 걱정내 가슴 뚫어라

아이들의 책상우에 허리 굽히시고  
한장한장 학습장을 번져보실 때  
책상가에 스치던 장군님 옷자락  
이슬젖어 축축하던 야전복자락이여

가서야 할 전선길은 분초를 다투건만  
정깊어 너무도 정깊어  
차마 걸음 못메시던 장군님

1분이라도 더  
아이들과 함께 있고싶으셨으리  
한초라도 더  
아이들의 교실에 계시고싶으셨으리

그 어떤 재부를 두곤 옷지 못해도  
아이들을 보곤 시름잊고 웃는  
아버이심정이시여서  
초침소리 세시며 오래도록 계신  
교정의 시간 장군님의 시간

그 시간속에 다 들으셨으리라  
전선길에서 야전차 차창을 여시고  
야영가는 아이들을 바래워주실적에  
오래도록 듣고만 싶으시던 아이들의 노래소리  
그 시간속에 다 들으셨으리라  
철령너머 최전선으로 가실제도  
양지바른 산기슭의 창밖은 학교  
멀어져가는 그 모습 돌아보고 보시며  
마음속에 안고가신 아이들의 글소리...

총대가 약하면  
노예!  
배움의 시간표도 빼앗기기에  
원췌의 핵탄두가  
교실의 창문으로 날아들기에  
설명절날에도 최전연에 계시었으니

아침이면 등교길에 높이 올리던 전선보도는  
행복의 수업시간도 변함없이 지켜지리라  
선군령장의 선언이던가  
아버지가 전선에 있으니 마음놓고  
공부 잘하라는 당부는 아니던가

배움의 지붕우에 불비 내리지 못하게  
아이들의 웃음소리 폭음이 삼키지 못하게  
선군의 공격전을 펼치시는 전선길에  
할일이 하 많아  
해야 할 일 하 많아

늘 시간이 모자라신 장군님

우리 알지 않던가  
전선길의 간소한 야전식사이야기  
너럭바위우에 장군님을 모시고  
수행원들은 몇술 뺏을가말가  
그 짧은 시간에 벌써  
장군님께선 식사를 마치셨더라

-허, 나를 따라 안가는곳 없이  
수고를 많이하는 동무들에게  
식사시간도 푼푼이 못주는구만  
천천히들 들고 따라서오!

시간이 얼마나 귀하셨으면  
식사하시는 습관도 야전식  
리발까지도 야전리발...  
설날에 떠나시여 설달그믐날까지  
그렇게 이어오신 전선길에서  
아낌없이 털어내신 그 시간

사람들이여, 그 시간을  
우리 어이 분과 초로만 세일것이라  
그날은, 아 그날은  
위대한 장군님  
우리 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다섯돌  
뜻깊은 날

만민의 축하를 받으시라고  
수도는 꽃물결 펼치고  
온 나라가 그리움의 바다되어 설레이며  
조국이 삼가 드린 영광의 시간  
인민이 삼가 올린 축원의 시간  
10월 8일 그날의 그 시간을 바쳐  
장군님께선 아이들의 교실에 계시었거늘

1분 또 1분!  
한초 또 한초!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에서  
이 땅에 오늘의 승리도 귀중하지만  
래일의 승리가 더없이 귀중해

전선길과 교정길을 하나로 잇고  
마음의 한끝을 교정에 두신 장군님의 시간이여  
달리던 야전차를 멈추시고  
아이들의 책가방을 열어보신 시간도 있어라  
산골학교 녀교원의 경험도 들어주시며  
토끼박사라 치하하신 시간도 있어라

사람들이여 아시는가  
력사의 언덕 다박솔초소에  
령장의 자욱이 새겨지던 그 1월에  
미래를 위한 사랑의 새 력사가  
이 하늘아래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그 1월에 위대한 장군님  
온 나라 교육자들을 다 불러  
교육일군열성자회의를 열자고  
뜨거웁게 말씀하시였거니

선군혁명의 새시대에  
주체교육의 대전환을 안아오실  
그 크나큰 뜻  
선군으로 격랑쳐온 우리 세월은  
그 뜻을 펼쳐오신 사랑의 날과 달

장자강기슭  
영웅학교 교정에도 서보라  
그러면 누구든 알수 있으리  
이 나라의 크고작은 그 모든 교정들에  
그 사랑의 시간이 박동치고있는것을

45분수업을 참관하시고  
교실을 나서시였건만  
교정의 시간은 그냥  
장군님마음속에 흐르고있었더라

아이들의 수업을 위해  
최신교육설비를 다 보장해주자고  
보장해주어도 이왕이면  
매일 수업시작전에 보장해주자고  
이 일은 군대가 맡아해결해주라고  
그래야 마을이 놓일것 같다고...

학생들도 교원들도 학부형들도  
모두 단잠에 든 그 깊은 밤  
《전투명령》은 내리여-  
총포탄을 날라야 할 군용차들이  
교육설비를 싣고 달렸다

긴긴밤을 새우시며  
우리 장군님 기다리신것은  
신형무기가 아닌 컴퓨터며 피아노...  
수업전에 선물설비를 안겨주었다는  
장령의 보고!

수업시간에 늦을가봐  
머나먼 밤길을 질풍쳐온 군용차 군용차  
오, 45분이여 너는 무엇이기에  
쪽잠드실 시간마저 아끼시는 장군님  
너를 위해 전선길의 한밤을 바치셨던가  
자신의 전선시간우에  
교정의 그 시간을 엮어주셨던가

최고사령부 작전대우에  
붉은 화살표를 그어가실 때에도  
장군님심중엔 그 45분이 안겨있어라  
미츠러운 령길 야전차 밀며 오르실 때에도  
장군님의 야전차엔 그 45분이 실려있었더라

45분! 그시간에  
조국의 만년미래가 담겨있어  
후대들을 위해 아낌없이 바치시는  
장군님의 전선시간이여  
적의 총구가 육안에도 보이는  
최전방 야전지휘소에만  
최고사령관의 작전시간이 흐르지 않아라  
강위력한 군력을 펼쳐가는  
멸적의 총포신우에만  
위대한 선군시간이 흐르지 않아라

이 땅에 이어지고 이어지는  
행복넘친 배움의 세월이 그대로  
미래를 위해 베푸신  
장군님의 전선시간인것을!  
최고사령만의 작전시간인것을!

그 시간 그 세월속에  
붉은기의 한자락을 목에 두르고  
지덕체의 나래를 한껏 펼치며  
아이들이 자란다  
아이들의 배부른 책가방을 두고  
온 나라가 신심에 넘쳐 웃어라  
배움의 꿈 푸른 저 하늘을 떠받들어  
추켜든 총대엔 번개가 뻗어라

항일전의 날 아동단학교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전화의 날 불타는 도화장에서  
교과서 실은 차를 땅크보다 먼저 건네주신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계셔  
세상에 단 하나 - 래일이 밝은 나라 조선!

무봉이여 말하라  
 너의 기슭에 새겨진 령장의 시간  
 배움의 시간과 시간들은  
 총검이 서리뿔는 최전선에서  
 야전복자락에 싸안으시여  
 장군님 가져다주신것 아니더냐

무봉이여 말하라  
 너의 기슭 이 교정에 우리 장군님  
 선군장정의 한구간을 새기시며  
 승리한 조국의 미래를 사열하지 않으셨더냐  
 찬란한 래일의 아침해를  
 45분 그 시간에 들어올리지 않으셨더냐

선군령장 **김정일** 장군님을 모신 날부터  
 온 세상이 다 아는 봉우리  
 장군님의 전선길우에 솟은 봉우리  
 무봉은 말한다

오늘이 없는 래일이 없고  
 래일이 없는 오늘은 있대도 헛되기에  
 조국의 오늘과 래일을 선군기폭에 휩싸안고  
 혁명실록의 위대한 자욱을 교정에 남기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시간 45분

그 시간에 키낮은 책상우에 허리 굽히시고  
 아이들의 학습장을 손수 번져보실 때  
 침략에 달뜬 적들의 《전쟁작전도》가  
 천출명장 장군님의 손끝에서  
 산산 부서져나가는 소리였다.  
 책장 번지시는 그 소리는!

침략의 시간표를 짜들고  
 적들이 미친듯 덤벼들 때  
 전선에서 천리 무봉의 이 교정에서  
 그 45분에  
 장군님께선 휴지장으로 흘날려 버리셨다  
 원썬들의 《전쟁시간표》를!

이렇게 조선은  
 원썬를 이겼다!  
 이렇게 조선은  
 오늘만이 아닌 래일에도 영원히  
 원썬를 벌써 이겨놓았어라!

원썬들은 무서움에 치떨라  
 우리의 핵억제력도 위력하지만  
 45분 이 시간속에

래일의 주인들이 역세계 자라는것이  
 더더욱 무서운 조선의 위력인것을!

백승 떨치는 우리 시대는  
 후대교육의 자랑찬 세월속에  
 오늘만이 아닌 래일을 훌륭히 가꾼  
 그때문에 더더욱 위대한 시대

선군총대로 세기를 떨치는 내 조국은  
 가을 밋어 봄씨앗 뿌리듯이  
 승리할 래일을 믿어  
 후대들을 알차게 키우는  
 그때문에 더더욱 위대한 조국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사는  
 위대한 스승 위대한 학부형이 되시여  
 사회주의 내 조국의 천만년 미래를 열어주신  
 그때문에 그때문에 더더욱 위대하여라

영원히 빛나라  
 흘러 덧없는것 시간이라지만  
 흘러도 가지 않는 장군님의 시간이며  
 장군님의 전선길에서 시작되고  
 후손만대 조국의 래일과 이어져  
 시작은 있어도 그 끝은 없는  
 배움의 45분 선군시간 45분이며

장군님 총대로 지켜주신  
 배움의 시간표 승리의 시간표대로  
 선군의 영웅들이 무수히 자라나리  
 통일의 대문이 열릴 순간도  
 최후승리의 축포가 오를 그날도  
 어김없이 오고야 말리

아, 철령과 나란히 오성산과 나란히  
 빛나는 무봉  
 작아도 크나큰 이 교정에서  
 한껏 가슴펴고 세기를 호홉하며  
 확신에 넘쳐 긍지에 넘쳐 나는 웨치노라

세계여! 인류여! 보라!  
 승리하는 조국의 래일이 맥박치고  
 빛나는 사회주의미래가 숨쉬는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시간 45분  
 후대위한 사랑의 이 시간이 증명한다  
 조선은 오늘도 필승하리라!  
 조선은 래일에도 필승하리라!

## 명가사로 된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사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를 지도하시여 명가사로 만들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사의 표현은 누구나 다 쉽게 알수 있고 또 별치 않은 말 같지만 다 읽고나서는 무엇인가 충격을 받고 오래동안 생각할수 있게 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가요의 가사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의 1절에 《해방된 삼일포에 단풍이 타는데 장군님 모시고 어머니 오셨네》라고 되어있는데 표현이 너무 직선적인감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표현을 《항일의 녀전사 여기에 오셨네》라고 하든지 《항일의 명사수 여기에 오셨네》라고 고치는것이 좋겠다고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항일의 명사수 여기에 오셨네》라고 하면 2절에 《항일의 명사수로 빛나던 그 모습》이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반복되는감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표현을 고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얼마후 시인은 2절 첫단 《항일의 명사수로 빛나던 그 모습》을 《혈전의 언덕우에 빛나던 그 모습》으로 고쳐 다음과 같은 가사로 보고 드리였다.

해방된 삼일포에 단풍이 타는데  
항일의 명사수 여기에 오셨네  
못잊을 그날에 울리신 총소리  
오늘도 울려가네 하늘가 저 멀리

혈전의 언덕우에 빛나던 그 모습  
푸르른 물결우에 정답게 비겼네  
못잊을 그날에 울리신 총소리  
충성의 메아리로 우리를 부르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가사를 수정하시여 다음과 같은 명가사로 완성해주시였다.

해방된 삼일포에 단풍이 타는데  
항일의 녀전사 여기에 오셨네  
못잊을 그날에 울리신 총소리  
오늘도 울려가네 하늘가 저 멀리

항일의 명사수로 빛나던 그 모습  
푸르른 물결우에 정답게 비겼네  
못잊을 그날의 삼일포 총소리  
충성의 메아리로 우리를 부르네

동백꽃 피어나는 남해의 기슭에  
장군님 모시고 갈 그 념원 불타네  
못잊을 그날의 삼일포 총소리  
통일의 념원담아 끝없이 울리네

비범한 예술적천품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예지와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가사는 이처럼 명가사로 창작완성될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작가는 자기의 회상실기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있다.

...천만년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영원히 잊을수 없는 항일의 녀성영웅에 대한 그리움을 한가슴에 차넘치게 하며 김정숙동지를 따라배우도록 이끌어주는 명가사.

위대한 장군님께서 완성해주신 가사는 말그대로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하나의 서정시였다. 그러시고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 모든 성과를 우리들에게 돌려주시였다.

다시 편곡하여 형상한 노래를 들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못내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가사가 시적으로 잘되었다고 하시며 가사는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처럼 써야 한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한편의 명곡이 사람들에게 주는 큰 힘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사람들은 가요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의 사색적이고 심오한 선율을 들으면서 자기 수령과 조국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항일선렬들의 고귀한 생애에 대하여 뜨거운 마음을 안고 회상하게 되며 오늘의 생활이 행복할수록 혁명선렬들의 업적을 잊지 말고 그들의 높은 뜻을 계승완성하여야 하겠다는 깊은 생각을 하게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한편의 작은 노래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심혈에는 진정 끝이 없었다.

주체72(1983)년 1월 2일, 뜻깊은 새해 벽두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다시 이 노래를 들으시고 잘만들었다고 치하해주시면서 노래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는 평범한 가사를 가지고 지은 노래이지만 내용이 깊기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작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예술작품에서는 내용이 좋아야 대작으로 되지 규모가 크다고 하여 대작으로 되는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시였다.

사람들은 이미 많은 부피 큰 작품들에서 이 이름을 들어왔다. 그러나 한편의 작은 가요에서 대작이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과연 그 언제 들어보았던가.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랑하는 통속적이며 혁명적인 가사문학의 지위를 인류문예사에서 일찌기 볼수 없었던 높이에 올려세우시였으며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일대 양양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참으로 그 보람찬 날에 우리 나라 가사문학의 개화발전을 위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바치신 심혈에 대하여 정녕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 당의 순결성을 옹호고수하시어

그 어떤 광풍에도 변색과 주저를 모르고 세 차례 펄럭이는 우리 당의 성스러운 붉은 기발과 더불어 창건 첫 시기 혁명의 참모부로서 당의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도록 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빛나고있다.

일찌기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주체34(1945)년 12월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 청진시당위원회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그곳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먼저 아버지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당의 조직로선관철정형을 알아보시였다.

그 과정에 당원력량이 부족하고 당에 받아들일만한 준비된 사람들이 적다고 하면서 당장성사업을 시원히 내밀지 못하고있는 사실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핵심력량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핵심력량이 많이 생길 때까지 앉아 기다리겠는가, 동무들이 알고있는것처럼 우리나라 로동계급은 청소하다, 게다가 일제식민지통치의 후파로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이 많이 남아있다, 이들을 우리가 쟁취하지 않으면 적들이 끌어당길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각이한 《주의》, 《주장》을 내들고 사람들을 저들의 주위에 끌려고 꾀하는자들이 있는것만큼 우리는 이 자들에게 우리 혁명의 기본력량인 로동자, 농민을 넘겨주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시면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속에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하여 몸바쳐 싸울수 있는 우수한 사람들을 당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라야 우리 당을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정당으로, 혁명의 참모부로 만들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직접 나가보신 서부지구의 형편을 알려주시면서 제철소와 제강

소, 방직공장과 같은 큰 공장에 당단체가 없어서야 되겠는가, 준비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로동계급속에 들어가 선진분자들을 찾아내고 준비시켜 당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일군들은 자책감을 금치 못하였다.

당장성사업에서 지난날의 투쟁경력이나 지식정도가 중요한것이 아니였다. 계급적각성이 얼마나 높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로선을 받들어 어떻게 투쟁하고있는가 하는것이 중요한것이였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자기들이 범한 오류를 심중히 뉘우치는 일군들을 돌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은 자기 대오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사상의 지적통일을 강화하여야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조성된 정세는 사람들을 엄격히 선별하여 당에 받아들일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계속하시어 청진시는 로동자들이 많이 집중되어있는 반면에 지난날 도청을 비롯한 적기관이 많이 들어앉아있던 곳인것만큼 주민구성이 복잡하다고, 이러한 조건에서 입당대상자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당 대렬안에 불순이색분자들이 끼여들수 있다고 하시면서 대오안에 들어온 적대분자들에 의하여 당하게 되는 손실보다 더 큰 손실은 없다, 극좌적인 언행과 걸치레를 하기 좋아하는자,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하고 아첨하기를 좋아하는자들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그날의 말쑥은 아버지수령님의 의도대로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대렬을 확대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사업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오게 한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 가사

## 꿈나라

### 리명옥

꿈속에서 방긋 웃는 어여쁜 아가야  
네가 가는 꿈나라 별나라가 달나라가  
고운꿈이 나래펴고 찾아가는 꿈나라  
드넓은 이 세상에 그 나란 어딜가

은하수 별나라엔 요람이 없단다  
계수나무 나라엔 엄마가 없단다  
푸른 하늘 맑은 시내 아름다운 은금보화  
이 땅엔 너를 위해 무엇이냐 다 있지

가도가도 끝이 없는 행복의 꿈나라는  
따사로운 해님의 축복받은 땅이란다  
네 희망이 꽃피여날 아름다운 꿈나라는  
사회주의 보금자리 태양의 품이란다

기쁨안고 훨훨 복을 안고 훨훨  
꿈나라로 가거라 내 사랑 아가야



## 《조사보고서》

윤경찬

### 1

우리 중앙광물조사단에서는 석영산지구에 ㄷ광물조사를 위한 조사조를 파견하기로 하였다. 일행은 모두 셋이었다. 나는 조사조의 조장으로 임명되었다. 나이로 보나 오랜 조사원경력으로 보나 내가 좌상격이었던것이다.

《인원을 좀 더 주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없어야단이구만. 동무네끼리 꽤 해낼수 있을가?》

실장은 우리를 떠나보내면서도 걱정스런 표정을 지우지 못했다.

《마음 놓으십시오. 꼭 해내겠습니다.》

대답은 자신있게 하면서도 사실 내 마음은 가볍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한 후 지금까지 조사원 생활을 해오면서 나는 별로 책임져본 일이 없었다. 어릴적부터 나는 놀음판보다는 집안에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기를 더 좋아했는데 그럴때면 부모들은 나를 칭찬할대신 사내녀석이 계집애처럼 얹전해서야 무슨 큰 일을 치겠는가고 허를 차군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느라하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가지 책임을 지게 된다.

한생을 살기가 험치 않다는것은 아마도 어쩔수 없이 말아안게 되는 그 모든 책임을 다하기가 쉽지 않기때문일것이다. 그러니 석영산지구의 지하자원을 찾아내는 사업을 책임졌는데 내 마음이 어찌 가벼울수 있으랴. 내가 실장앞에서 자신있게 대답할수 있었던것은 그 지구에 대한 파악이 있었기때문이었다. 이미전부터 석영산지구의 기초문헌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한데다 그 지대의 지질학적특성으로 보아 ㄷ광물이 매장되어있을것이라는것은 거의 확정적이었던것이다.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원료로 되는 ㄷ광물을 하루빨리 찾아내는것은 조사단앞에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더구나 오래전부터 ㄷ광물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나에게 있어서 이번 현장조사의 성공여부는 나의 앞날에도 밝은 빛을 뿌려주게 될것이었다.

함께 가는 조사원 박광호는 나보다 두살 아래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한테 배치되어온지 얼마 안되는 서른세살 로총각이었다. 크지 않은 키,

단단한 체격에 머리까지 바투 올려 깎아서 더 날파람있어보이는 광호는 우리 부서의 배구주장이었다. 제대군인출신인데다 탐구적이면서도 활달한 성격은 마음에 들었지만 현장경험이 없는 《꽃내기》여서 제구실을 해내겠는지는 알수 없었다.

우리 셋중에서 행장이 제일 요란한것은 시료채취공 정남이다. 올해 스물다섯살인 그는 이번에 취사원의 임무도 맡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인지 그가 둘러멘 가방식 배낭은 우리것보다 곱절이나 컸다. 정남이 어머니는 역에까지 아들을 따라나왔었다. 산불을 조심해라, 물을 끓여 마셔라, 옷나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주의사항은 천가지도 넘을것 같았다.

《야, 어머니! 뻘다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놓이는지 정남이 어머니는 내 팔소매를 붙잡고 간곡히 당부했다.

《책임자동지! 우리 애를 부탁합니다.》

나는 《책임자동지》라는 습관되지 않은 존칭이 어색스러워 어정쩡하게 대답했다.

《예...》

내가 듣기에도 어색한 외마디소리였다.

정남이 어머니는 광호한테도 한마디 했다.

《동문 부책임자겠지? 우리 애를 잘 돌봐달라구. 저게 키만 컸지 아직 철이 없어.》

《어머니! 안심하십시오. 제가 정남동무를 솜털한오리 상하지 않게 돌봐주겠습니다.》

나는 광호가 책임진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것 같았다. 그게 어디 쉽게 할수 있는 소린가. 하긴 그도 정작 어떤 책임이든 말아안게 되면 나처럼 심중해지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우리는 밤새 렬차를 타고 다음날 아침에야 서북방의 자그마한 산간역에 내렸다. 석영산지구로 가자면 여기서부터 자동차로 또 삼백리길을 가야 했다. 한여름의 폭양에 땀을 뻘뻘 흘리며 행장을 잔뜩 짊어지고 걸던 우리 일행은 다행히도 그쪽으로 가는 자동차를 얻어 탈수 있었다.

탐사대원이라는 말한마디가 효력을 났던것이다. 흔들거리는 적재함우에 천막통구리를 깔고 척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마치 구름을 타고 가는 기분이었다.



자동차는 오불교불한 평길을 치달아오르기도 하고 굽이굽이 돌아내리기도 하면서 기분 좋게 달렸다. 정남이는 렬차에서 밤을 새운지라 배낭을 베고 잠들었고 광호는 적재함에 기대앉아 흘러가는 산밭을 바라보며 제 생각에 잠겨있었다. 단순히 산촌의 경치를 즐기는것만 같지 않았다.

《무슨 생각을 하오?》

그는 시선을 돌리며 어줍게 웃었다.

《뭐 그저...》

잠시 동안을 두었던 그는 내쪽으로 돌아앉으며 소탈하게 말했다.

《사실은 처녀생각을 하댜소.》

《처녀?... 애인말이요?》

《그렇소. 그런데 내가 그를 노엽혀서 그만...》

《헤어졌다는거요? 도대체 어떤 처녀요?》

나는 궁금증을 참을수 없었다. 사실 나는 여태 광호에 대해 별로 아는게 없었다. 지금까지는 남의 일에 그리 신경쓰지 않고 살아왔던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데리고 일하게 될 사람들에게 대해 알고싶어지고 예전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던 사소한 문제들도 그냥 스치게 되지 않았다.

《멋있는 처녀요. 아름답고 지성적이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품위가 높고 매장량이 풍부한 팡택이라고 할가...》

처녀에 대해 말할 때 그의 얼굴에는 어떤 휘황한 광채가 비끼는듯 싶었다. 그는 나에게 자기가 사랑한 처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

광호는 식물학연구소의 원예학자처녀를 사랑했다. 올해 스물여섯살인 명순은 얼굴도 마음씨도 직업도 그리고 희망까지도 아름다움과만 인연이 있는 처녀였다.

《전 꽃을 위해 일생을 바치렵니다. 향기로운 꽃으로 이 땅을 뒤덮는다면 우리 조국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겠나요.》

이런 선녀같은 처녀가 돌밖에 모르는 꽃내기지 질기사를 사랑한다는게 광호로서는 꿈만 같은 일이었다. 암만해도 자기쪽이 훨씬 기우는것만 같았다. 그도 그럴것이 명순은 얼마전에 실험실적방법으로 나팔꽃종의 야생초에 주먹만한 꽃을 피워내어 원예학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학위론문을 준비하고있었던것이다.

어느날 명순은 자기가 육종해낸 새 품종의 꽃모를 광호에게 주었다.

《원예사들이 자기가 육종한 꽃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아시겠지요? 그러니 이 화분을 잘 키워주세요.》

명순은 꽃을 키우는데서 알아야 할 점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었다. 갑작변이를 일으킨 식물은 유전자세포가 대체로 불안정하기때문에 꽃모를 과학적으로 키우지 못하면 본래의 야생초로 되돌아갈수 있다.

그러니 늘쌍 해빛을 받아야 하고 잡내가 없어야 하며 매일 물을 주어야 한다. 온도는 몇도에서

리상적이고 꽃이 필 무렵에는 밤에도 백열등을 켜야 하고...

《허참, 화분 하나 키우는게 팡물탐사보다 더 힘들겠구만.》

《키워보세요. 파아란 새잎들이 조금씩 커지고 꽃망울이 부풀어오르는걸 매일 바라보는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세요? 설사 품이 좀 든다해도 이 화분만은 잘 키워야 해요. 제 마음을 아시겠지요?》

처녀는 그 화분에 자기의 순정이 담겨있다고, 그러니 그것은 자기들의 사랑의 징표와도 같은것이라고 말하고싶었다. 처녀가 싹 틔운 꽃모를 총각이 정성다해 가꾸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면 얼마나 리상적인가. 자기들의 사랑이 동화의 주인공 공들처럼 아름다운 전설로 오래오래 전해지도록 처녀는 살고싶었다.

화분은 광호의 집 창가에서 푸르싱싱 자라났다. 그는 명순의 당부대로 매일 물을 주었고 공기갈이도 자주 해주곤 하였다. 그러다가 광호는 며칠 동안 집을 떠나게 되었다. 조사단에서 갑자기 제기된 급한 출장길이어서 그는 명순에게 연락도 못하고 떠났었다. 그러다보니 처녀가 그토록 당부했던 화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었다. 열흘만에 출장지에서 돌아온 그는 자기방 창턱에서 시들어 버린 화분을 보고서야 정신이 팔쩍 들었다. 그 즉시 물을 주긴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는지 화분은 다음날도 생기를 띠지 못했다.

광호는 초들초들 말라버린 화분을 안고 처녀를 찾아갔다. 명순의 고운 얼굴은 대번에 컴컴해졌다. 마치 생명이 꺼져가는 자식을 안아든 어머니처럼.

《이게...왜 이렇게 됐어요?》

《젠장, 무슨 꽃이 그렇게 약하오? 며칠 물을 못 먹었다고 죽다니...》

사실은 처녀를 위로하느라 한마디 한다는게 오히려 그의 아픈 마음을 더 헤집어놓을줄이야... 처녀는 울었다. 그 꽃을 육종해낸 원예학자로서의 실망감과 자기의 첫 창조물이 다른 사람도 아닌 애인의 손에서 시들어버렸다는 기막힌 사실앞에서 글썽했던것이다. 어쩐지 자기의 순정이 무시당한것만 같았다. 결국 자기들의 마음을 합쳐 첫 사랑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보려던 처녀의 무지개같은 꿈이 줄지에 사라져버린것이다.

처녀의 눈가에 가장가랑 고였던 맑은 눈물이 한방울 두방울 말라버린 잎새우에 떨어졌다.

《어쩌면... 어쩌면...》

처녀는 같은 말만 곱씹다가 제먼저 돌아섰다. 때각때각...

시들어버린 화분을 두손에 꼭 싸안고 멀어져가는 처녀의 규칙적인 구두소리가 광호의 귀전을 때렸다. 광호가 소리쳐 불렀으나 처녀는 돌아서지 않았다. 그 다음날도 처녀를 찾아갔으나 얼굴조차 볼수 없었다. 아마도 속이 쉽게 풀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즈음 광호는 석영산지구로 떠나기 위한 준비 때문에 몹시 바쁘게 지냈다. 그 지구에 대한 기초 자료들을 빠짐없이 연구해야 했던것이다. 그날도 광호는 컴퓨터에 마주 앉아 석영산지구에서 발견된 ㄷ광물징후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있었다. 전화종이 울렸다. 수화기를 드니 접수에 손님이 찾아왔다고 알려주는것이였다.

《식물학연구소에서 왔대요.》

《그래요?!》

광호의 얼굴은 대번에 환해졌다.

《제 인차 나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광호는 무춤 굳어졌다.

컴퓨터화면에 흥미있는 자료들이 현시되어 그의 눈길을 짝 붙들었던것이다.

(75호지점에서 ㅅ광물전석(조사점주변에 있는 돌)발견? 가만있자. ㅅ광물은 ㄷ광물의 안내자가 아닌가.)

광호는 그 주변의 골짜기와 산봉우리들을 지질도에서 훑어보느라 처녀의 존재를 깜박 잊고말았다. 한참만에야 그는 정신이 펴들었다.

정문으로 황황히 달려나갔으나 처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디 갔습니까? 그 동무가...》

《갔어요. 렬차를 타야 한다면서 역에...》

《야 참. 아주머니두...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지 않구...》

접수원녀인은 애매한 자기에게 화풀이하는 광호를 어이없이 바라보았다. 마침 분석실 기사가 자전거를 끌고 정문에 들어서고있었다. 광호는 무작정 자전거를 나꿔채가지고 썩- 하니 올라탔다. 자전거주인은 멀어져가는 광호를 어안이 병병해서 바라보았다.

《저 친구 왜 저래?》

《로총각이 헤덤빌 때에야 뻥하지 않나요?》

따스한 미소를 짓고 접수원녀인이 설명을 해주었다.

그제야 사연을 알게 된 자전거주인은 제깍에 신바람이 나서 무릎을 치며 광호의 뒤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광호, 밟으라! 더 빨리! 초음속으로 달리라구, 하하...》

광호는 귀뿌리에서 바람이 일도록 《초음속》으로 달렸다. 하지만 그가 역에 도착했을 때 렬차는 저기 산굽이를 돌아가고있었다.

...

나는 광호의 이야기를 듣고나서 혼시조로 말했다.

《동무두 참. 그렇게 덜통해가지구야 어느 처녀가 좋다구 하겠소?》

《그래두 난 그 동무를 믿소!》

광호는 확신에 차서 웨치다싶이 말했다. 나는 광호에게 사랑은 생활에서 제일 품을 많이 들여야하는 그런것이라고 설명해주고싶었다. 어쨌든 나야 경험자가 아닌가. 확실히 광호는 모든것을

쉽게만 생각하는것 같았다. 사실 사랑을 대하는 태도는 그 인간의 됴됨을 평가하는 자막대기와 같은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있었다. 사랑에 성실한 사람은 사업에서나 생활에서나 한본새로 성실한것이다. 사랑에 무책임한 사람이 맡은 일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는가. 석영산지구로 들어가는 내 마음은 이래저래 가볍지 않았다.

## 2

우리는 현지에 도착하여 골짜기막바지에 천막을 세우고 이튿날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이른 아침, 해가 퍼지기도전에 숲속을 헤치며 얼마쯤 걷느라면 옷이며 신발이 아침이슬에 화락하니 젖어버린다. 그렇다고 불을 피워 그걸 말리우며 해빛에 이슬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다간 아까운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만다. 그러니 젖은 옷을 입은채로 일하는수밖에 없다. 축적 1대 1만지형도에서 조사망을 확정하고 지복침으로 방위를 관정하여 정확한 조사점을 찾아 골짜기와 봉우리를 오르내린다. 조사점에서 시료를 따내고는 또 다른 조사점을 찾아 산발을 탄다. 이렇게 보통 70-80리씩 산속을 헤메다가 천막으로 돌아오면 젖은 신발을 신고다닌탓에 발바닥이 허영게 부풀어오르곤 했다. 산속에서 길을 잃거나 비라도 만나면 탐사대원이 된것을 후회할때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우리만이 맞볼수 있는 랑만과 회열이 있었다. 요술방망이같은 탐사마치 하나로 땅속 수백미터까지 들여다보는 마술사같은 일을 하는데 왜 그렇지 않겠는가. 대장장이 품부한 품위 높은 광맥을 발견했을 때의 환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 한순간을 위해 우리는 아늑한 가정과 문명한 도시생활을 떠나 한생 산발을 주름잡으며 사는것이다.

탐사대원에게 제일 친근한것은 돌 다음에 식물이다.

우리는 늘 자연속에서 살기때문에 숲에서 자라는 갖가지 산나물과 약초들을 잘 알고 숲의 혜택을 누구보다 더 많이 입는다고 할수 있다. 정남이는 무거운 시료주머니를 메고다니면서도 취사원의 직분을 잊지 않고 눈에 뜨이는 족족 산나물들을 뜯곤 했다. 그는 잠시도 편안히 앉아 다리쉬하는 법을 몰랐다. 여기에 와서 함께 지내보니 참 팬찮은 청년이였다. 부지런한 그의 덕분으로 밥상에 오르는 산나물들을 대충 꼽아봐도 참나물, 취, 도라지, 고사리... 어떤 때는 웅노를 놓아 산토끼를 잡을 때도 있었다.

산짐승말이 나왔으니말이지 참 우스운 일이 있었다.

어느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천막옆에 꾸려놓은 취사장에 밤새 매돼지란 놈이 달려들어 온통 랑장판을 만들어놓았었다. 그놈은 가마안의걸 말끔히 훑아먹고도 뒤통 불만스러웠던지 가마를 통채로 엮어놓고 달아나버렸다.

《이런 패썽한 놈 봤나. 고맙다는 인사는 못할망정 이게 뭐야?》

《아마 성이 차지 않았던 모양이요. 다음번엔 좀 더 많이 남겨놓으라고 우리한테 경종을 울린거겠지.》

나와 광호가 한마디씩 하는데 정남이는 씩씩거리기만 할뿐 입을 다물고있었다. 하긴 그가 취사원일을 맡았으니 제일 화가 날만도 했다. 그는 한동안 말뚝처럼 서있다가 광호에게 불쑥 물었다.

《그놈이 정말 또 올가요?》

《틀림없다니까. 오늘 저녁엔 좀 많이 남겨주라구.》

《이놈의 메돼지! 내 버릇을 가르쳐줄테다! 도덕도 모르는 놈!》

그날 밤 나는 꿀안이 떠나갈듯 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요? 분명 메돼지같은데...》

한밤중 숲속의 고요를 깨뜨리며 터져나오는 무서운 피성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그때까지 충전등을 켜놓고 책을 보고있던 광호도 머리를 기웃거렸다. 혹시 메돼지가 누군가의 밧에 걸렸는가? 정남이는 아예 낮색이 새파랗게 질려있었다. 그는 겁먹은 눈으로 천막입구를 훑훑훑 살피보며 광호곁에 바짝 다가붙었다.

《네가 취사장에 무슨 장난질을 해놓았지?》

《예, 국가마에 고추가루를 몽땅...》

《뭐? 한사발이나 넘는걸...》

광호가 먼저 키득거리며 돌아앉았다. 정남이는 아직 겁에 질려 떠는데 광호는 더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다. 나도 웃음집이 흔들거려 참을수 없었다. 그놈의 메돼지가 입으로, 코구멍으로 고추가루물을 들이켰으니 아무리 미웍하고 감각이 둔한 놈이라도 내장이 편할수 없을것이다. 한참만에 광호는 웃음을 채 거두지 못하고 정남에게 말했다.

《그놈을 아예 잡아엎애야지 가만 두면 복수하자고 또 접어들거야.》

《정말이에요?》

정남이 눈은 대번에 화등잔만해졌다.

《걱정말구 나에게 말기라구. 날이 밝으면 그놈을 찾아 떠나겠어. 무슨 일이나 손을 댔으면 끝장을 봐야 하는거야.》

메돼지의 울부짖는 소리는 밤새 그칠줄 몰랐다. 이른새벽에 광호는 삽자루감으로 해두었던 물푸레나무끝에다 식칼을 비끄러웠다.

《정말 떠나겠소? 그런 원시적인 사냥도구로 메돼지를 잡을것 같소?》

나는 믿어지지 않는 표정으로 참견했다.

《군대때 총창으로 메돼지를 잡아본적이 있소.

그놈이 밤새 소리지르느라 기운이 빠진데다가 내장이 편안치 않아서 용을 못쓸거요. 그리구 발자국을 보니 별로 크지도 않은 놈이요.》

그래도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놈이 고추가루덕분에 용을 못쓸거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메돼지가 아닌가. 사냥개도 한마리 없이 식칼 하나로 그 미웍한 놈과 맞선다는게 모험이 아닐가. ㄷ광물을 찾지도 못한 형편에 사고라도 생기면 야단이다. 이전같으면 나도 덩달아 맞장구를 치며 나섰을테지만 지금이야 책임자가 아닌가.

나는 머리를 가로 저으며 광호를 만류했다.

《아무래도 미타해. 그만두라구.》

광호의 얼굴에는 일순 아쉬운 표정이 어렸다.

그래도 그는 얼른 흔연히 대답했다.

《알겠소.》

광호를 따라나서려던 정남이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나에게 졸라댔다.

《조장동지! 걱정마십시오. 다 잡은걸 놓아주나지요?》

《정남이! 조장동지 말대로 하자구.》

광호는 정남이가 두말 못하게 했다. 나는 그러는 광호가 고맙았다.

한달, 두달... 여전히 우리는 ㄷ광물을 찾아 헤매었다. 힘들면서도 단조로운 나날이 하루하루 흘러갔다.

저녁이면 우리는 천막앞에 피워놓은 모닥불곁에 둘러앉곤 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정된 하루 일과와 같았다.

그 모닥불곁에서 우리는 하루일을 총화도 하고 천막안의 휴대용컴퓨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감상하며 심산의 밤정서를 즐기기도 했다. 컴퓨터에서는 관현악곡인 《애국가》의 선율이 자주 반복되어나오곤 했는데 그 노래는 조사단을 떠날 때 광호가 입력해놓은것이였다. 나는 음악을 들어도 섬세하고 부드러운 가야금이나 바이올린독주 같은 서정적인 노래를 좋아하는데 광호는 장중하고 우렁찬 관현악이나 합창곡을 더 즐겨하는것 같았다.

말없이 가만 앉아있느라면 저도 모르게 노래의 선율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속으로 가사를 따라부르게 되였다.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모닥불, 탐사대원들, 심산의 고요, 밤하늘을 가로지른 거대한 은하수... 그 노래는 주위세계와 이상하게 조화를 이루며 들으면 들을수록 깊은 뜻을 호소하는것 같았다. 나는 산발을 탈 때에도 어느 사이엔가 그 노래곡조를 흥얼거리곤 했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는게 쉽지만 그 노래처럼 살기는 험치 않은 법이다. 더구나 《애국가》임에랴. ...

그날은 폭우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이였다. 어제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한대중으로 무섭게 퍼부어대며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숲은 온통 뽕뽕 비발속에 잠겼다. 끝까지마다 비물이 광광 사품치며 바위돌들을 굴러내렸다. 눈앞에서 번개

가 하늘을 가르며 번쩍 하더니 뒤이어 벼락치는 소리가 끝안을 들었다놓았다. 멀지 않은 곳에서 벼락을 맞은 거목이 우지곤 하고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스산한 날씨에는 조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도중에 비를 만나는건 어쩔수 없지만 아침부터 곳은 날씨에 웬만한 각오가 없이는 천막을 나서기 어려웠던것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날씨타발을 하면서 허리띠를 늦추고 허송세월 하면 ㄷ광물은 언제 찾겠는가, 그렇다고 오늘같은 날에 일나가자고 하기도 힘들고, 아침식사가 끝날 때까지 내 입에서는 휴식하자는 말이 뱅글뱅글 돌기만 했다. 책임자라는 의식이 나를 지배하고있었던것이다. 어떻게 할가?

《오늘은 점심밥을 싸지 않아도 되겠지요?》

정남이가 나에게 묻는 말이였다. 하마트면 나는 그만두라고 말할번 했다. 그 순간에 나는 광호가 비웃을 꺼내드는것을 보았다. 그는 어느때처럼 조사를 떠나려고 준비하고있는것이였다. 폭우가 쏟아지고 벼락이 쳐도 그의 하루일과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래, 오늘은 휴식일이 아니다. 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조장이라는데...

나는 정남이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점심을 싸라구.》

나는 광호와 함께 조사구역으로 떠났다. 10리가 넘는 험한 산길이였다. 가파로운 비탈을 오르다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무섭게 쏟아져내리는 개울물에 빠지기도 하면서 목적지를 향해갔다.

나는 자신이 어떤 영웅서사시의 주인공이 된것만 같았다. 지형도에 표시된대로 조사점을 찾고보니 아름답리나무들이 뻗뻗이 들어서있는 곳이였다. 로출된 바위도 없고 전석초차 눈에 띄이지 않았다. 이런 때는 별수없이 지질도량을 봐야 했다.

우리는 아예 비웃을 벗어버리고 일을 시작했다. 삽이 하나밖에 없어서 교대로 일했지만 광호가 나보다 훨씬 더 삽질을 했다. 그가 룰동적인 자세로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할 때마다 어깨와 팔뚝에 선 근육이 불끈거리고 일자리가 폭폭 나는것이였다. 나는 녀자들처럼 살결도 하얗고 팔뚝도 광호만큼 굵지 못했다. 그는 마치 교대의 신화적인 조각상을 방불케 했다. 같은 사내로서 일종의 질투를 느낄 정도였다.

우리가 작업을 끝내고 천막으로 돌아올 때는 골짜기에 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날 나는 어쩐지 광호 보기가 미안스러웠다. 그를 너무 혹사시킨것 같아서인지 아니면 조장으로서 그보다 앞장서지 못했다는 죄의식때문인지...

천막에 돌아올 때까지도 나는 광호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어떻게 오늘같은 험한 날씨에도 아무런 주저없이 레사롭게 하루일과를 시작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락천적인 표정과 억척같은 힘을 내게 했을까? 제대군인이기때문? 청춘이기때문? 그때부터 나는 광호를 예전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나는 여기서 철수하기로 결심했다. 지금까지 진

행한 조사결과는 여기에 ㄷ광물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그러니 더이상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었던것이다. 이제는 조사보고서를 쓰는 일만 남았다. 지질조사보고서에는 이 지구에 ㄷ광물이 없다는것을 리론적으로 증명하고 우리가 소비한 로력과 시간, 자금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제 이 보고서가 해당 심의를 거쳐 조사단에 제출되면 우리 나라 광물분포도에는 석영산지구에 ㄷ광물이 없다고 표시될것이다. 그러면 먼 후날에도 이 지구에는 조사단을 파견하지 않는다. 만약 어느때든 이곳에서 ㄷ광물이 발견된다면 나는 법앞에 광물탐사를 잘못된 책임을 져야 한다. 때문에 우리들의 경우에는 지질조사보고서를 쓴다는게 정말이지 운명적인 일이 아닐수 없었다. 조사단을 떠날 때는 한두달내로 승전고를 울리며 돌아오리라 자신만만 했었는데 마가을 찬바람이 불어치는 오늘에는 《항복서》나 같은 보고서를 내 손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지만 별수 없었다.

없어서 못찾은거야 어찌겠는가. 물론 ㄷ광물을 찾았으면 말할나위없이 좋은것이지만 이곳엔 그것이 없다는걸 밝혀낸것만도 공적으로 봐야 할것이다. 이건 결코 구차한 변명이나 자체위안이 아니였다. 그러니 조사보고서를 과학적으로 타당성 있게 잘 쓰기만 해도 우리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셈이였다. 더구나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천막생활이 조련치 않았다. 그러니 철수날자를 더 미룰수 없었다. 원래부터 땅에 눈이 덮이면 조사를 제대로 할수 없기때문에 겨울에는 조사를 중지하는것이 기존공식처럼 되어있었다.

나는 조사보고서를 쓰려고 천막안에 대충 만들어놓은 앉은뱅이책상에 마주앉았다.

《석영산지구에서의 ㄷ광물탐사에 대한 지질조사보고서》

손에 너무 힘을 주며 긴장해서 쓰다보니 글자들이 뺨뺨뺨뺨해졌다. 겨우 제목만 써놓은 나는 종시 만년필을 집어던지고말았다. 아무리 조사보고서를 미문장으로 쓴다 해도 어쨌든 단 한마디 ㄷ광물을 찾았다고 쓰기보다는 마음이 가볍지 못한것이다.

(이거야 손이 떨려서... 광호동무랑 토론을 해 봐야겠어.)

속이 답답해서 장작이라도 패려고 천막에서 나오는데 마침 광호와 정남이가 산을 내려오고있었다. 오늘은 그 두사람이 북쪽방향으로 조사를 갔었는데 벌써 일을 끝낸 모양이였다. 무슨 반가운 일이라도 생겼는지 그들의 얼굴엔 웃음이 넘실거렸다.

《조장동무! 저기 병풍골어구에서 텃있는 자연동굴을 발견했소. 우리 셋이서 살기엔 딱 알맞춤하오.》

나는 허거프게 웃으며 돌아서버렸다. 내가 어리석었지. 겨울을 여기서 보내려고 잡도리하는 사람과 무슨 철수문제를 토론한단 말인가. 하지만 아

무래도 할 말은 해야겠기에 나는 광호에게 자신 없는 어조로 물었다.

《이젠 철수해야 하지 않겠소?》

광호는 영문을 알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한참이나 말없이 낯선 사람 쳐다보듯 나를 주시하던 그는 천막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건사하려는 모양이었다. 혼자서 멍하니 서있는데 잠시후 천막안의 휴대용컴퓨터에서는 《애국가》의 선율이 흘러나왔다. 광호는 어느때없이 음량을 최대로 틀어놓았다. 무게있는 노래의 선율은 더더욱 장중하게, 힘차게 울려 퍼지며 심산의 골짜기를 들었다놓았다.

특히 노래의 마지막구절은 그날따라 나의 가슴속에 칼날처럼 아프게 들이박히는것 같았다.

...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

그러니 광호는 그 노래로 자기의 대답을 대신하려는가.

저녁식사후에도 나는 마음이 번거로와 개울가에 홀로 앉아있었다. 광호가 자갈을 밟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우리 두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었다. 무거운 침묵의 몇순간이 흐른 뒤 광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 대화때 있었던 일을 하나 말하랴오?》

《하오.》

나는 침묵이 두려워 얼른 대답했다.

《대학시절에 우린 어느 한 지방에 전공과목실습을 나갔던적이 있었소. 다른 지구에 나간 동무들한테서는 저마끔 좋은 소식들이 날아오는데 우리 조는 실습기일이 다 지나도록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소. 그래서 난 실습교원에게 이 지구는 탐사할만 한 가치가 없다고 말했지. 그 말이 백발의 선생님을 노엽힐줄이야.

...그때 선생님은 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소.

〈물론 여기에 아무런 유용광물도 없을수 있소. 난 결코 동무들이 조사를 잘못했다고는 생각지 않소. 그러나 동무들은 자기가 말은 땅속에 무엇이 없다는걸 결론할 때는 천만번 심중해야 하오. 왜냐면 동무들은 조국땅 수천메터의 땅속깊이에 까지 깨끗한 사랑과 랑심을 바쳐야 할 사람들이기때문이요. 동무처럼 그렇게 실무적인 생각만 가지고서는 참된 지질학자가 될수 없소. ... 노래에도 있듯이 우리 나라는 은금보화 가득한 아름다운 강산이요. 그 노래를 믿으시오!〉

그날 난 선생님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했소.》

나는 광호의 말을 더 들을수 없었다. 그가 어쩌서 불쑥 그런 말을 꺼냈는지 나는 안다.

혹시 그 말이 나를 정면에서 비판할수 없어 방금 지어낸 이야기라 해도 나는 그를 탓하고싶지 않았다. 그가 옳았기때문이었다.

나는 분명 이 땅의 보화를 몽땅 찾아낼 꿈을 안고 지질학을 배웠었다. 공상을 즐기던 그 시절에 나는 우리 집 마당가에서, 마을앞 시내가에서 또는 학교뒤산의 바위밑에서 번쩍거리는 보물을 좇곤 했었다. 보물은 내가 짐작했던 곳에서 틀림없이 나타나곤 했다. 공상은 어느사이엔가 미래의 희망으로 내 가슴속에 자리잡혔었다.

땅속을 들여다보는 재간을 배우기만 하면 공상속의 보물을 현실로 꼭 찾을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오늘 이 땅에 그런 보물이 없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조사보고서를 제출으로 쓰려고 했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모순인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모순에 빠졌을가.

나는 머리를 싸쥐었다. 애초에 조사단을 떠날때 조장으로 임명되지 말았을걸 하는 후회가 밀물처럼 차올랐다. 그저 평범한 조사원으로 왔다면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았을것이다. 무엇을 책임진다는게 이렇게 힘든것인가.

《그러니 광호동문 조사를 계속하자는거요?》

나는 광호에게 물었다. 처음 여기로 올 때에는 탐사경험이 부족한 그에 대해 마음을 못놓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에게 의지하고싶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것은 조장이나 선배로서의 체면이나 자존심과는 인연이 없는 감정이였다. 어쩐지 요즘은 내가 별로 작아보이고 무슨 일에서나 자신이 없어졌던것이다.

《그거야 조장동무가 결심해야지요.》

광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어떻게 결심하리라 하는걸 다 안다는 어조였다.

나는 밀도끝도없이 불쑥 말했다.

《래일부터 조사구역을 석영산뒤로 옮기시다.》

이건 결국 조사기일이 연기된다는것을 말한다. 골짜기에 눈이 쌓이려면 아직 멀었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조사를 계속할 생각이였다.

### 3

다음날부터 우리는 석영산지구의 마지막조사구역인 병풍골로 들어가 원시종족처럼 동굴생활을 시작했다. 여기는 원래 광물징후가 제일 약한 곳이여서 기본조사구역에 넣지 않았던 곳이였다. 병풍골에는 울창한 밀림을 배경으로 높이가 40~50메터나 되는 절벽이 거대한 병풍처럼 솟아있었다. 그 절벽은 마치 큰산의 한가운데를 단칼에 잘라버린것처럼 가파로운데다 옷부분은 되쪽 이마처럼 앞으로 쭉 나와있어 도저히 발붙이기 어려운 곳이였다. 게다가 벼락을 자주 맞아서인지 절벽은 온통 균열이 가서 무시로 락석이 지곤 했다. 그 락석때문에 절벽밑에서 전석을 찾기도 어려웠다.

그런데 그 절벽가까이로 조사점이 접근해올수록 광호는 처녀에게 반한 총각처럼 거기에 더 자주 눈독을 들이곤 했다. 사실 지질학자라면 누구나 탐낼만 한 대상이지만 난 아예 외면해버렸다.

내 보기엔 그림의 떡이었던것이다. 나까지 맞장구를 치다가 공연히...

《조장동문 저게 탐나지 않소?》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랬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어차피 한번은 이 문제때문에 광호와 마주서게 되리라는 불안감으로 가슴이 조여들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단호하게 도리질을 했다.

(안돼! 절대 안돼!)

그날 저녁도 우리는 동굴입구에 모닥불을 피워 놓고 앉아있었다. 마가울바람이 터져나오면서 나무가지에 매달려던 마지막 잎사귀들을 털어내느라 부산을 피웠다.

광호는 탁탁 소리를 내며 춤추듯 날아오르는 불씨들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긴 어조로 말했다.

《내 보기엔 저 불씨들이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고싶어서 밤하늘로 날아오르는것 같소.》

아무리 날아올라야 별이 못되는줄 알면서도, 모닥불에서 떨어져나오면 한점의 재로 사라질줄 알면서도 엄청난 희망을 품고 불무지에서 뛰쳐나와 용약 하늘로 날아오르는 저 모양이 무모하면서도 어딘가 장해보이거든.》

나는 어이없이 웃었다.

《그건 무슨 아리송한 소리요?》

광호는 갑자기 내 손목을 덥석 움켜쥐었다.

《조장동무! 자꾸 주저하지 말구 어서 결심해 주오.》

《뭘 말이요?》

《절벽조사를 하잔 말이요. 뭘 모르는척 하오?》

우려하던 그 순간이 종시 다가온것이다. 나는 잡혔던 손을 얼른 뺏으며 한걸음 물러나앉았다.

《안돼! 죽지 못해 몸살이라더니...》

《위험한걸 피해서야 우리가 무슨 조사원이겠소? 절벽이 위험해서 주저했다는게 말이 되오?》

《ㄷ광물이 암만 중해도 목숨과 바꿀수는 없단 말이요. 그 절벽으로 ㄷ광맥이 뻗어갔다면 몰라도...》

《없다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올라가 봐야 할게 아니요? 내 실수없이 하겠소. 자신있단 말이요.》

옆에 앉아있던 정남이가 한마디 끼여들었다.

《조장동지! 해봅시다. 안전대책만 잘 세우면 일 있어요.》

그러나 이번만은 나도 수그러들수 없었다.

《거긴 놀이터가 아니야. 만약 사고라도 생기면 그걸 누가 책임지겠소? 그러니 아예 생각도 마오. 난 자신이 없소.》

말해놓고보니 스스로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내 입에서 자신없다는 말이 튀어나올줄이야.

광호는 오히려 자신있다고 했다. 여기로 떠나올 때는 내가 더 자신심에 넘쳐있었는데...

하지만 객관적조건이 어려운데 별수 있는가.

제발 전번 메돼지사건때처럼 다들 내 말대로

해주었으면...

갑자기 정남이가 발딱 일어서며 총알처럼 내쏘았다.

《조장동진 보신주의자예요!》

《뭘라구? 네가 뭘 안다구 그래?》

그래도 정남이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조장동진 지금 어떤 책임을 두려워하고있어요? 사고에 대한 책임? 그래 ㄷ광물을 못찾은 책임은 두렵지 않아요? 그따위 조사보고서나 잘 쓰면 된다는거예요? 몸과 맘 다 바쳐 나라를 받들겠다구 맨날 노래는 부르면서두...》

그리고는 히- 하니 바람을 일쿠며 동굴안으로 들어갔다. 모닥불결에는 광호와 나만 남았다.

나의 귀전에는 정남이가 쏘아박은 보신이란 말이 사라질줄 몰랐다.

(내가 정말 보신주의자란 말인가? 아니야!)

조사조의 막내이인 정남이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니 분한 생각이 치밀어올랐다. 어디 내 립장에 서봐라. 뭉니뭉니해도 ㄷ광물때문에 제일 가슴을 조이며 속을 썩이는건 나다. 조사단에 제출한 계획서에 밝혀져있는 대로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곳에서 철수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내가 아직 여기를 떠나지 못하는것은 혹시나 하는 한가닥의 미련과 중요하게는 ㄷ광물을 기어이 찾아내려는 광호의 의지에 내자신이 어쩔수없이 끌리고있기때문이었다. 만약 이곳에서 부득불 빈손으로 철수하게 된다면 나는 조사기일을 제 마음대로 연장하고 로력과 시간, 자금을 낭비한데 대해 조사단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판에 만일의 경우 사고까지 낸다면 나는... 그런데도 내가 보신주의자라구?

정남이가 틀어놓았는지 동굴안의 휴대용컴퓨터에서는 언제나처럼 《애국가》의 선율이 굴안에서 공명되어 흘러나오고있었다. 말없이 노래를 감상하고있던 광호가 생각깊은 어조로 말했다.

《참 좋은 노래요. 힘이 생기거든. 저 노래가 이 땅에서 울리기 시작한지도 반세기가 넘었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세대들은 저 노래를 부르면서 조국땅우에 찬란한 문화를 수놓았고 슬기로운 인민의 영광을 펼치며 사회주의를 건설했소. 지금은 우리 세대가 저 노래를 부르면서 선군의 진리로 뭉쳐진 억센 힘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해야 하오. 정말이지 난 저 노래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조국앞에 지닌 책임감에 대해 생각해보곤 하오.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한 선수를 위해 그 나라 국기가 오르고 국가가 주악되는건 조국이 그에게 주는 최대의 표창이고 사랑이며 믿음이 아니겠소. 사실 우린 지금 저 노래를 너무 쉽게 부르고있구나 또 무심히 듣고있소.》

광호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불씨를 바라보며 노래를 듣고있었다.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

이밤따라 노래는 나를 준절하게 꾸짖는것 같기도 하고 그 무엇을 절절히 호소하는것 같기도 했다. 나는 광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서도 불길이 활활 타고르고있었다.

불씨들은 여전히 허공으로 날아오르고 밤하늘에 다달은 불씨들이 찬란한 별로 빛나는듯싶었다.

다음날 우리는 절벽을 향해 떠났다. 나로서는 더이상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던것이다.

절벽우에 올라서서 내려다보니 밑에서 올라다 볼 때보다 더 아찔해보였다. 땅우의 아름다움거목도 애송나무처럼 작아보였다. 바람은 세차게 불어치면서 부디 모험하지 말라고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내가 무작정 바줄을 허리에 두르자 광호가 웃으며 만류했다.

《조장동무, 벼랑극복훈련을 해봤소? 이런데서야 그래두 내가 낫겠지.》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자신이 없었다. 그러니 광호한테 또 질수밖에. 눈이 나빠 군대에 못나갔던것을 이때처럼 후회하여본적은 없었다.

허리에 바줄을 두른 광호는 나를 향해 밝게 웃어보이고 절벽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가장 아름답고 영웅적인 한쪽의 그림이었다.

절벽을 이루는 지층들이 수평상태로 놓여있기 때문에 지층별로 조사를 하자면 바줄을 조절해주어야 했다. 나는 정남이와 함께 바줄을 조금씩 놓아주며 제발 그가 무사하기만 빌었다.

광호는 한곳에서 시료를 따내고는 《어허-》하고 웨친다. 다음지층으로 내려갈수 있게 바줄을 놓아달라는 소리이다. 한참후이면 또 《어허-》하는 호방한 소리가 산울림을 일으킨다. 그 소리는 종일토록 끝안에 울려퍼졌다. 언어를 모르던 인류의 조상때부터 가장 환희로운 순간에 본능적으로 웨치군 하던 《어허-》, 《어허》...

그 소리가 오늘은 성실한 인간의 생의 환희를 노래하려는듯 인적없는 깊은 산속에서 절벽에 부딪쳐 메아리를 일으키고 거대한 산발들이 되받아 넘기며 오래오래 사라질줄 모르는것이다.

바줄을 틀어쥐고있는 나에게는 언젠가 폭우가 쏟아지던 날 광호와 함께 지질도량을 파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 나는 폭우속을 헤치며 자신을 영웅서사시의 주인공으로 그려보았었다. 그러나 그때는 날씨가 험하고 일도 힘들었지만 지금처럼 위험하지는 않았었다. 위험하지 않았어도 자신의 책임감을 시위할수 있었고 조사원의 량심을 만족시킬수는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해가 석영산너머로 기울어서야 광호는 일을 끝냈다.

절벽우에 올라선 그의 모습은 가슴이 저려들어 차마 마주보기 어려웠다. 두손은 날카로운 바위돌

에 찢겨 온통 피가 엉켜붙었고 땀에 젖은 옷에서는 쌀쌀한 날씨에도 김을 문문 피워올리고있었다. 그래도 그는 돌가루와 땀으로 매닥질한 얼굴에 웃음을 담고있었다. 그는 가파스로 오금을 꺾고 주저앉더니 다시 네 활개를 펴고 드러누웠다. 하루종일 허공에 매달려 일했으니 오죽이나 힘들랴.

하지만 그가 따온 큼직한 시료주머니에는 ㄷ광물시료가 없었다. 그래도 헛고생을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이게 왜 헛고생이겠는가. 조국땅 한치한치에 량심의 자취를 새겨가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헛수고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조장동지!》

정남이가 바줄을 거두다가 울먹울먹해서 소리쳤다.

그가 내미는 바줄을 보니 눈앞이 아찔해지는데 같았다. 바줄의 한부분이 거의 끊어져있었던것이다. 넓은 벼랑의 여기저기로 이동하는 과정에 날카로운 바위모서리에 닳아진것이었다.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그런데 광호가 이걸 보지 못했을가? 아니 못보았을수 없다!

《광호!》

나는 격해서 그를 불렀다. 해빛이 시그러워 눈을 쏘프리고있는 그에게 나는 바줄을 보여주었다.

《이걸 못봤소? 어쩌서 이렇게 될 때까지 신호하지않았는가 말이요?》

그는 오히려 제편에서 눈이 둥그래졌다.

《난 정말 못봤댔소.》

그러니 무슨 말을 더 하랴. 대체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변안전에 많은 신경을 쓰는 법이다. 그런데 얼마나 일에 몰두하면... 불같은 사람... 나는 절로 머리가 숙어졌다.

어느덧 숲속에 밤이 깃들었다. 석영산마루에 보름달이 솟아올라 골짜기를 부드럽게 비추주고있었다. 바람도 없는 잔잔한 밤이었다. 어디선가 소쩍새가 울며 숲속의 고요를 더해주고있었다.

정남이는 광호에게 산천어를 끓여준다면서 해불망치를 들고 차디찬 개울물속에서 절벽거리고 있다. 개울물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거리는데 그 물소리조차 술한 은불이들이 서로 부딪치며 쏟아져내리는 소리처럼 들려온다.

얼마나 좋은 밤인가. 예전엔 왜 이처럼 황홀한 자연의 매력을 취하도록 맛보지 못했을까.

만약 오늘 절벽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밤도 어느때처럼 적막함을 느꼈을것이다. 그러니 이밤따라 심산의 유정하고 아름다운 정서를 더 깊이 느낄수 있는것은 달빛이나 소쩍새가 아니라 광호 이 사람 덕분이 아닌가.

그는 아까부터 모닥불결에 한자세로 앉아있었다.

《이보라구, 광호! 내 하나 물을가?》

《뭔데요?》



《무슨... 책임자가 되어본적이 있소?》

나로서도 뜻밖의 질문이었다. 광호는 한참만에야 내심정이 이해된다는듯 미소를 지었다.

《뭘 별루...》

《그래도 동무를 보면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요.》

광호는 오래동안 말이 없었다. 한참후에 그는 별들이 아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답답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난 오늘 벼랑을 타면서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 뵈옵던 영광의 그날을 생각했소. 그때 난 험한 첩령을 넘어 우리 부대를 찾아오시여 동무들에게 초소를 부탁한다고 하시던 최고사령관동지를 몸가끼이에서 우리르며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책임을 지니시고 선군령도의 길을 걷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해 병사의 자세로 한생을 살리라 맹세했었소. 병사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자면 어느 때든 목숨바칠 준비가 돼있어야 하지 않겠소. 그런데 난 아직...》

나는 그때에야 비로소 나와 광호사이에 놓인 공간 지대를 보았었다. 쉽게는 메꿀수 없는 공간음...

난 조사조의 조장으로서 석영산지구의 지하자원을 책임지고도 그 의무에 성실하지 못했었다.

더 솔직히 고백한다면 석영산지구의 조사결과로 자신에게 차례질 행복과 명예, 아니면 책임한계에 따르는 추궁과 처벌에 대해 은근히 신경을 써왔다. 그런데 광호, 이 사람의 심장속에서는 자기를 다 바쳐서라도 시대앞에 지닌 책임을 다하려는 뜨거운 열정이 언제나 용암처럼 끓고있었던 것이다. 의식했든 못했든 나는 책임이란 말을 자기보신의 방패로 내세웠다면 광호는 그 말을 자기희생으로, 무조건성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고있었던것이다.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판이한 두가지 뜻을 가지고있다는게 이상할 지경이었다.

광호는 잠이 든듯 눈을 감고있었다. 그를 점도록 바라보느라니 별스레 마음이 든든해지는듯싶었다. 자기가 사는 시대를 진심으로 책임지려는 광호와 같은 사람이 곁에 있고 그가 지니고있는 군인정신이 선군시대의 기치로 나뉘기는 한 못해낼 일이 무엇이라. 나는 석영산지구에 대한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리라 마음먹었다. 지금까지 쓰던 1 대 1만 지형도가 아니라 1 대 5천이나 2천으로 이 지구를 참빗처럼 훑어서라도 기어이 ㄷ광물을 찾아내리라.

《잡았다!》

개울가에서 정남이의 환성이 터져올랐다. 잊지 못할 가을밤이었다.

#### 4

나는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도 보고하고 겨울나이준비도 하기 위해 정남이를 조사단에 보내기로 했다. 그가 떠날 때 나는 식물학연구소에 가서 광

호의 애인을 만나고 오도록 따로 부탁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정남이는 조사단에 갔다가 한주일도 못되어 돌아왔다. 조사단에서는 ㄷ광물을 끝까지 탐사하려는 우리의 결심을 지지하여 조사력량도 보충해주고 많은 후방물자도 보내주었다. 그리고 정남이는 나의 《특별임무》도 잘 수행하였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애인의 편지를 받아든 광호는 한참만에야 짐작이 갔던지 나를 바라보며 한마디 했다.

《고맙소, 조장동무!》

하루종일 광호는 기분이 하늘에 닿아있었다.

저녁에 그는 편지에서 받은 충격을 암만 해도 혼자서는 감당할수 없었던지 나에게 슬그머니 편지를 보여주었다.

《...》

사실 그때 저는 꽃을 시들게 한 동무를 원망했었어요. 그런데 동무와 헤어진 후 혼자서 곰곰히 생각해볼수록 자신이 부끄러워지더군요. 내가 얼마나 생명력이 약한 꽃을 육종해냈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서까지 시들어버렸을가 하는 자책감에 머리를 들수 없었어요. 남들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자기의 몫을 다하기 위해 피와 땀을 바치는데 전 완성되지 못한 창조물을 내놓고도 햇빛밝은 실험실에 단정히 앉아 학위론문을 쓰고있었거든요. 우리들 매 사람이 시대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에 성실한다면 우리 조국은 얼마나 더 아름답고 부강해지겠나요. 그런데 전... 동무가 매일 찾아오는줄 알면서도 창피해서 동무앞에 나타날수 없더군요. 전 늦게나마 그 꽃을 어떤 환경에도 끄떡없는 아름다운 꽃으로 새롭게 육종해내고싶었어요. 그래서 인차 백두산지구로 떠났답니다. 전 드디어 찾았어요! 그 꽃을 생명력이 강한 꽃으로 조직배양할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마지막실험을 하고있어요. 며칠후이면 새 품종의 꽃이 새롭게 피어날거예요. 그꽃을 키우며 전 동무를 기다리겠어요...》

역시 광호의 애인은 모든게 아름다움과만 인연이 있는 처녀였다. 그런 처녀길래 광호는 자기의 사랑을 확신하고있었던것이다.

#### ×

그 이듬해 나는 년로한 우리 부서책임자의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아마도 얼마전에 석영산지구에서 품위높은 ㄷ광맥을 찾아낸 공적이 과분하게 평가된것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그럴수록 나는 어깨가 무거워진다. 내가 꽤 해낼수 있을까? 나보다 모든 면에서 진짜 책임자는 광호가 아닌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은근히 힘이 생긴다.

광호와 같은 동지들이 곁에 있는데 두려울게 뭔가 그리고 나 또한 선군시대의 주인공들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야...

## 초도의 배길 (외 1 편)

박정철

위험한 배길이라  
서해에 소문난 곳  
바람좋은 날에도  
물결 사나운 초도의 배길

비 퍼붓고 파도 솟구며  
하늘과 바다가  
맞붙어 씨름하는 이런 날엔  
큰 배도 선뜻 띄우지 못하련만

방과제를 넘뛰는 파도를 맞받아  
작은 함정에 오르시는 장군님  
파도 세찬 바다를  
한눈에 굽어보셨네

-우리가 언제  
순풍에 돛을 달고 다닌 일이 있습니까

아슬한 벼랑처럼  
파도는 곧두서고  
장군님 모신 배는

산같은 그 파도를 타고넘고...

-최고사령관동지  
오지 마십시오  
가슴조이는 안타까움에  
초도의 병사들 발을 동동 구르는데

마침내  
섬에 내려서신 장군님  
파도세찬 바다를  
다시 한번 굽어보셨네

-사람들이 말하는것보다  
서해가 인상이 좋소

아 그 순간  
장령들과 병사들  
황홀한 눈으로 다시 보았네  
장군님 크나큰 그 품속에  
조국의 바다가 안겨있었네

## 웃음

종일토록 기다렸노라고  
나를 반겨 맞아주는가  
방안에 걸려있는 사진속에서  
오늘도 떠들썩 웃고있는 전우들아

아침엔 벌썬 웃음 한번 나누고  
내 서둘러 출근길에 올랐다면  
지금은 저녁시간 휴식의 한때라  
또 하루 회포를 나누어보세

넘쳐나는 힘과 젊음의 체취에  
몽클 취해보는 이런 때가 좋구나  
오늘계획 넘쳐수행한 기쁨도  
저 웃음속에 함께 어울리고싶구나

감나무 푸른 병실마당가  
그날의 사진기앞에 내 지금 섰는듯  
어느새 즐거워진 이 마음도  
그대들과 함께 어깨 부비나니

총잡은 청춘의 강한 모습을  
한생의 거울로 안고살라고  
사단의 마지막초소에까지

사진사 보내주신 아버지장군님

고지우에 솟는 아침해를 우러러  
감격의 눈곱 적시던 전호가의 그 웃음  
저 멀리 준령들을 발밑에 부르며  
강행군령마루에 날리던 그 웃음

내 청춘과 위훈으로 떨친 그 웃음이  
어찌 추억속에 잠들수 있으랴  
지금 공장의 영예게시판에도  
혁신자 나의 모습 웃고있거니

폭풍도 불비도  
웃음으로 이겨낸 그 시절처럼  
한점 흐림없는 병사의 웃음으로  
언제나 그대들을 땃땃이 만나리라

불같은 이 마음 벌써 읽은듯  
문득 울려오는 전우들의 목소리  
-아무렴  
장군님 꽃피주신 병사의 웃음속에  
우린 영원히 함께 있다네

## 위대한 혁명실록에 대한 불멸의 화폭

-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북방의 눈보라》에 대하여 -

최연경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북방의 눈보라》(리신현, 박태수 작)는 장편소설 《강계정신》(리신현 작)의 속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장편소설 《강계정신》에 대하여 이미 논의된 문제들을 전제로 하면서 그밖에 작가의 진지한 탐구정신이 엿보이는 일련의 사상예술적성과를 새롭게 이야기하려 한다.

### 또다시 북방의 눈보라를 헤치시며

위인의 력사는 력사적사실 그대로 기록되어야 한다. 하여 동시대인들은 물론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전해가야 한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강계정신》이 위대한 강계정신의 창조사에 대한 서사시적화폭이라면 장편소설 《북방의 눈보라》는 그 《강계정신》을 계속 빛내이고 더욱 꽃피우기 위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또다시 북방의 눈보라를 헤치시며 자강땅에 아로새기신 성스러운 혁명실록에 대한 불멸의 화폭이다.

여기에는 붓을 든 작가가기에 앞서 위대한 시대의 체험자로서의 인간의 숭고한 공민적사명감이 담겨있다.

소설에는 《고난의 행군》에 이어 강행군을 하던 주체87(1998)년 6월부터 주체90(2001)년 12월에 이르는 력사적기간 자강도를 본보기로 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이 눈물겹도록 감명깊게 형상되고있다. 바로 여기에 수령의 혁명력사에 대한 력사문헌과도 같은 소설의 국보적가치가 있는것이다.

소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실록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형상전반을 장군님의 숭고한 령도선으로 철저하게 일관시켰다. 형상의 대를 바로 세운 여기에 수령형상문학으로서의 이 소설의 기본성과가 있는것이다.

장편소설 《북방의 눈보라》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시기 《강계정신》을 창조하여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자강도인민들을 갈살게 할 구상을 안으시고 주체87(1998)년 6월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당시)을 찾으시는데로부터 시작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강도에서 이 공장에 총력량을 집중하여 《고난의 행군》이전 수준으로 생산을 끌어올릴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신다.

실로 아버지장군님께서 자강도사업을 중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말씀하시였다.

《…나는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가장 높은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웅적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자강도를 제일 먼저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면시킬 결심을 품고 오늘 여기로 왔습시다.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당을 받들고 우리 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싸운 사람들이 어떤 행복을 누리며 사는가를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자는것입니다. 그러니 자강땅에서 다시한번 큰 비약을 일으켜야 하겠습시다.》

앞으로 자강도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도 전국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모든데서 세계적인것을! 이것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세우신 전망목표인것이다. 자강도를 《자랑도》로 천지개벽하시려는것이다.

소설은 자강도사람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믿음과 사랑, 정력적인 령도에 떠받들리어 마침내 자강도사람들이 만년을 박차고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의 생산을 《고난의 행군》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었으며 홍주청년발전소를 비롯하여 현대적인 닭공장, 닭내포국집, 고려약공장, 기초식품공장 등 수많은 대상들을 멋들어지게 일떠세울수 있었다는것을 감동깊은 화폭들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이 나날에 자강도사람들은 산간벽지에서 세벌농사를 짓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남부럽지 않는 풀판을 가진 축산기지와 잠업전문농장도 새로 꾸려놓았다.

소설은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실록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수령형상을 고정적식화하지 않았으며 이미 장편소설 《강계정신》에서 친숙해진 인물들과의 뜻깊은 인간관계속에서 감명깊게 창조하고있다. 여기에 또한 그 력사문헌적특징과 함께 소설을 참된 인간학으로 되게 한 주요한 미학적요인이 있다.

소설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꿈결에도 보고싶은 친혈육과도 같이 류달리도 각별히 사랑과 믿음이 쏠려하시는 미더운 일군인 자강도당책임비서 강태혁을 비롯하여 그이의 품속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인생전환을 하는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차병도, 결사관철의 길에 청춘도 서슴없이 바친 홍주청년발전소건설 청년돌격대 대장 최지학, 알뜰한 실농군인 세벌농사를 위해 이악하게 애를 쓰는 장강군 읍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백옥심,

도미생물공장 지배인 립성실 등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미 잘 알고계시는 연고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가 장군님과 각별히 친근한 관계속에 생동하게 형상되고있다.

죽어서도 어버이장군님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로기능공 황석근의 형상이 그리하며 깎아지른듯한 무주채골벼랑등판에 무연한 풀판을 펼쳐 양떼, 염소떼가 흐르게 한 장강군 무덕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현달아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그러하다.

지어 소설에는 가렬처절했던 《고난의 행군》시기 어버이장군님께서 흠바람 물아치는 힘준한 초상령을 넘어 동신군 립산마을에서 보시게 되었던 그 잊을수 없으신 설송이, 장군님께서 걱정하실가 봐 풀죽 세그릇이 든 가마뚜껑을 막아섰던 그 철부지 어랑것도 다시 나타난다. 설송이는 밥그릇을 제손으로 열어 아버지장군님께 보여드리고 멋있는 전기곤로도 자랑하면서 그전날 그리도 모질게 아프셨던 장군님의 가슴에 밝은 웃음과 기쁨을 드리는것이다.

어버이장군님의 눈물겨운 사랑속에 행복의 제일향유자로, 강성대국건설의 선구자로 자라나는 그들의 아름답고 긍지로운 모습은 확실히 소설에 인간학적향기와 매력을 더해주고있다.

위대한 령장의 슬하에서 자라난 선군시대 참된 일군의 전형적형상 장편소설 《강계정신》과 더불어 《북방의 눈보라》가 이룩한 가장 특출한 사상에술적성과는 선군시대 참된 일군의 빛나는 전형을 훌륭히 창조한것이다.

자강도당 책임비서 강태혁의 형상은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자라난 선군시대 참된 일군의 가장 빛나는 전형이다.

장편소설 《강계정신》과 《북방의 눈보라》의 중심인물인 강태혁은 주체형의 참된 일군이다.

강태혁의 형상에는 혁명전사에 대한 뜨거운 동지의 사랑으로 걸음걸음 손잡아 키워주고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는 위대성이 눈부시게 비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에서는 혁명적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주체의 혁명관을 혁명적인생관으로 지닌 우리 시대 참된 당일군의 전형을 창조하여야 한다.》**

소설의 중심인물인 강태혁의 성격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결사관철의 정신이다.

소설은 실재한 원형 그대로 이 주도적성격을 심화발전시키는데로 시종일관 형상을 집중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철두철미 원형에 기초하면서도 일군의 형상이 수령의 위대성의 산아로 되게 한 작가의 진지한 노력과 탐구정신이 깃들어있다.

장편소설 《강계정신》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강태혁은 세멘트와 강재, 발전설비와 전력 등 모든것이 부족하고 사실상 가능성이란 하나도 없는 곳에서 자강도사람들을 불러일으켜 단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29개의 중소형발전소를 일떠세웠다. 한것은 그것이 더 낮추고싶어도 낮출수 없는

전투목표,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이 정해준 전투목표였기때문이다.

그런데 장편소설 《북방의 눈보라》가 펼쳐보이듯이 그는 강행군시기에 이러한 중소형발전소를 수백개나 건설완공하며 거기에 또 건설중에 있는 대상이 75개나 되는것이다. 이것은 말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다.

그는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에 자강도의 모든 력량을 집중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폐부에 새기고 기계의 동음이 완전히 멎고 설비들이 온통 못쓰게 된 최악의 조건에서 끝내 공장의 생산을 《고난의 행군》이전시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장군님께 그토록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것이다. 그는 이 모든것을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자강도는 남에게 덕을 입히는 도가 되어야지 남의 덕을 입는 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해나갔다.

이 나날에 그가 헤쳐야 했던 시련과 난관은 참으로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관철하는 길에서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호를 웨치며 앞채를 메고 달리기만 한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대고 육탄이 되어 뛰어들었다.

그는 홍주청년발전소의 조속기고장으로 1호발전기가 멎고 강물이 언제를 넘게 되는 위기일발의 순간 결사대원들과 함께 서슴없이 물속에 뛰어들었다. 가슴 노리까지 물에 잠기면서도 그는 얼음을 깨기 위해 함마로 수문의 뒤면을 세차게 힘껏 내려쳤던것이다.

수문을 열어 언제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구하느냐, 아니면 수문을 열지 않고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언제를 구하느냐 하는 생사관가름의 순간에 그는 그 누구도 모르게 수문련양기를 역세게 틀어잡고 언제우에 우뚝 서있었던것이다. 이것은 말그대로 적의 화점에 가슴을 내대는것과 같이 열번도 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결사의 영웅적장거였다.

하물며 그가 어버이장군님께서 늘 걱정을 놓지 못하시듯이 청춘기도 아닌 로년기의 일군이며 건강마저 좋지 못하다는것을 생각할 때 정녕 우리는 눈물없이는 그 숭고한 모습을 대할수 없다.

이런 일군을 믿고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 누가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관철하는 그 한길에서 그와 생사운명을 같이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강태혁이 발휘한 이 불같은 결사관철의 정신은 말그대로 한점의 티도 사심도 없는 한없이 순결 무구한 충실성에서 스스로 우리나라온것임을 소설은 참으로 진실하게 이야기하고있다.

《고난의 행군》시기 굵어 쓰러지는 자강도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이 역적이 될 각오를 가지고 원목수출을 허락해주실것을 어버이장군님께 편지올렸던 강태혁이, 그는 어느날 밤 장군님의 전화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무얼하였는가 하고 하시는 장군님의 물으심에 문건을 읽다가 피곤해서 좀 졸았다고 사실을 그대로 아뢰인다. 해종일 거

름을 저날랐던 탓에 사정없이 줄음이 밀려들었던 것이다. 이것은 장군님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애처럼 단순하고 솔직하게 되는 태혁의 너무도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다.

참으로 령도자의 구상과 지시를 관철하는 길에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내대는 참된 일군, 자기 령도자앞에서 솔직한것을 체질로 간직한 일군인 태혁, 그야말로 우리의 장군님께서 애지중지 뜨거운 그 동지의 사랑을 통채로 쏟아부어 품들여 키우시고 내세워주신 선군시대 참된 일군의 빛나는 전형이다.

소설은 그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실력과 능력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는것을 놓치지 않고 강조하고있다.

그는 실력가형, 실천가형의 능력있는 일군이며 조직적수완이 높고 내밀성있고 인간미가 있는 일군이다. 한마디로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녀과정을 그대로 닮은 조선로동당의 일군의 빛나는 전형이다. 우리는 이런 일군을 김책형의 참된 일군이라고 부른다.

그의 이 자랑스럽고 미더운 모습에는 수만자루의 품을 들어 그를 키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는 위대성이 눈물겹도록 뜨겁게 비껴있다.

참으로 장편소설 《북방의 눈보라》는 《강계정신》과 함께 선군시대 참된 일군의 빛나는 전형을 창조한 이 하나만으로도 선군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참된 교과서로 된다.

## 혁명적락관주의로 일관된 독특한 양상

총서 《불멸의 향도》중의 장편소설 《북방의 눈보라》의 특이한 양상적특징은 시종일관 심각한 국속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발전하는것이며 이에 따라 강계정신특유의 혁명적락관주의가 퍼덕이는 기폭처럼 작품전반에 약동하고있는것이다.

하다면 그 락관주의의 원천, 심각한 극을 날게한 형상적요인은 무엇인가?

작품에는 사건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추동하는 그 어떤 일관된 갈등선도 없다.

물론 여기에는 패배주의와 보수주의로 하여 백옥심의 세벌농사의 뒤다리를 채는 도농촌경리위원회 부위원장 유만술의 부정적형상도 있고 3년 세월 가산까지 바쳐가며 고생한 최지순의 당뇨병 치료약연구에 대해 자재도 대주지 않으면서 제동을 걸고 뒤시비질을 하는 도보건국일군 한시영의 형상도 있다.

그들은 거세찬 《강계정신》의 거류속에서 시대의 기습으로 밀려난 부정인물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저러한 부정으로서의 개성을 드러내고있을뿐 《강계정신》의 전진속에 맥을 추지 못하고 밀려나거나 개조될뿐 감히 긍정적대하의 흐름에 맞선 일관한 기본갈등선을 이루지는 못하고있다.

말하자면 장편소설 《북방의 눈보라》에는 장편소설이라면 거의가 있게 되는 일관된 갈등선이 없다.

하다면 작품에 이처럼 세차게 격동하고있는 심각한 극성은 어디에서 오는것인가.

그것은 일찌기 세상사람들이 보지 못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인간들- 《강계정신》의 창조자들의 영웅적위훈이 안겨주는 감동에서 오는것이다.

작품에는 참으로 눈물없이 읽을수 없는 자강도사람들의 가지가지의 영웅적위훈이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로벽이 무너지는 순간 로속에 송풍기로 바람을 쏘아넣고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불덩이같은 로속에 뛰어들어 단 4시간동안에 로보수를 끝낸 미더운 공장일군들과 영웅적로동계급, 그들은 공장당책임비서의 선창에 화답하여 로속에서 《적기가》를 불렀다. 그리고 기어이 임무를 수행하고 로를 건져냈을 때 그들은 그것이 너무 기뻐 승리한 고지의 병사들처럼 울고 웃으며 서로 부둥켜안았다.

그들의 모습은 그대로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는 안변청년발전소의 영웅적인 군인건설자들,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들의 모습이다.

소설의 형상은 그 어느것이나 이렇듯 눈물겨운 위훈담으로 충만되어있다.

120t의 중량이면 아스팔트길도 찌그러져나가는데 120t 짜리 발전기를 자강도의 그 험한 령길, 흐물흐물한 석비레길로 통채로 옮긴 도청년동맹 1비서 립준국이 이끄는 청년돌격대원들,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석탄을 캐기 위해 탄광으로 달려간 청년돌격대원들, 탄을 더는 못개낸단 탄광에 들어가 단 열흘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탄을 캐낸 그들을 두고 탄광지배인은 자기의 진심으로 되는 감동을 이렇게 터쳤다. 《...내 여기서 30년 지배인을 하지만 저런 젊은이들은 참 보오. 채탄작업이 중단됐던 갱들에서 이밤에 저렇게 석탄을 만재한 탄차들이 나오누만. 이것이 바로 <강계정신>이란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 이것은 강계정신의 창조자들만이 발휘할수있는 영웅적위훈이다.

그들은 난관앞에 물러설 줄 모르며 비판을 락관으로 락망을 랑만으로 전환시킨 영웅서사시의 주인공들이다. 그들은 위대한 선군령장의 혁명적락관주의에서 신심을 얻고 그것을 그대로 닮은 시대의 영웅들이다.

특히 최지학의 영웅적희생장면이 보여준바와 같이 그들은 가슴터지는 비극적슬픔을 혁명적락관으로 이겨낸 선군시대의 제일강자들인것이다. 이런속에 작품에는 《강계정신》에 고유한 혁명적락관주의가 파도쳐 설레이는 바다와 같이 끝없이 격동하고있는것이다.

이 모든 사상에술적성파로 하여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북방의 눈보라》는 《고난의 행군》시기 《강계정신》을 창조한 잇을수 없는 그 자강땅에 다시한번 드높은 비약을 불러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원불멸의 혁명실록과 업적에 대한 불멸의 화폭으로 되었다.

# 선군령장의 명필체

-한 해외동포의 목소리-

류명호

나는 지금 경탄의 눈길을 들어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을 보노라

금시 하늘을 날아오를듯이  
비스듬히 경사진 서명의 《김》자는  
그 모양이 신룡히 장군봉 같아라  
천하를 눌러딜고 우뚝 솟은  
백두의 장군봉 같아라

그리고 적진으로 공격하는  
화살표를 그은듯  
기운차게 옆으로 뻗은 《정》자는  
마치도 적진에 쏟아지는 돌사태 같아라  
우뢰를 치며 벼락을 치며 쏟아져내리는  
백두의 돌사태 같아라

그리고 눈보라를 일구는듯  
힘있게 휘감아올린 《일》자는  
높은 산을 타고 앉아  
그 위엄을 만리에 떨치는 호랑이 같아라  
세찬 눈보라를 입김처럼 날리며  
천하를 굽어보는  
백두의 호랑이 같아라

O가사O

아 백두의 정신과 기백이 넘치는  
그분의 명필체는 백두산 필체!  
이 세상 그 어떤 서예가도 따를수 없는  
선군령장의 위대함이 그대로 비껴있거니

우리 장군님  
늘 쓰시는 친필 하나만 보아도  
그분의 영웅적인 성격과 용맹  
절세의 위인의 대범함과 위엄을 느낄수 있어라

정신이 번쩍 드는 필체  
저절로 탄성을 터치게 하는 필체  
대번에 위인임을 직감케 하는 필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순간에 매혹케하는  
아, 선군령장의 위대한 필체!

나는 지금  
선군령장의 명필체를 보며  
그 어떤 원썬들도 감히 어찌지 못하는  
작고도 큰 나라를 보고있어라  
통일강국의 무궁번영할 찬란한 미래  
조선민족의 위대한 승리를 보고있어라

## 《병사들을 위한 날》이 좋아 (외 1편)

김은숙

전술훈련 끝나치고 돌아온 이 저녁  
병사들은 풍성한 식탁에 앉았네  
군관가족 지성어린 향긋한 김치향기에  
고향집 어머니 그 사랑이 실려오는가  
에헤 멋이로다 명절처럼 흥성이는 모습들  
얼싸좋아 절싸좋아 《병사들을 위한 날》이 좋아

구슬땀도 식혀주는 시원한 김치국물  
저저마다 국수말아 곱배기를 청하네  
새빨간 고추양념 듬뿍한 배추김치  
보기에다 군침돌아 한술뜨니 가슴이 쨍-

에헤 멋이로다 웃음 절로 노래 절로 터지니  
얼싸좋아 절싸좋아 《병사들을 위한 날》이 좋아

군대특식 김치로리 그 얼마나 별맛인가  
집을 떠나 총을 잡은 병사만이 잘 안다네  
무적의 장수힘 키워주는 우리 김치  
세상진미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한다네  
에헤 자랑하세 병사생활 랑만으로 꿰게 하는  
얼싸좋아 절싸좋아 《병사들을 위한 날》이 좋아

## 나의 비둘기

해빛도 따스한 우리 집 창가엔  
비둘기 형제들 정답게 사네  
구슬눈 반짝이며 노래부르는  
귀여운 비둘기 사랑의 새야

봄빛을 즐겨도 서로 다정히  
눈비가 내려도 서로 다정히

그 언제나 맑고 푸른 하늘이 좋아  
보금자리 못떠나는 사랑의 새야

태양이 빛나는 우리의 하늘  
영원한 평화가 이 땅에 있네  
행복을 꽃피우며 천만년 살아갈  
우리 마음 닮은 사랑의 새야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의 대중화는 인민대중을 문학의 진정한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중속에서 소설감상모임, 시랑송모임, <문학의 밤>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문학작품에 대한 실효투쟁을 실속있게 벌려 우리의 문학작품이 인민들의 실천투쟁에서 은을 낼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문학작품을 즐겨 읽을뿐아니라 자기 손으로 작품을 쓸줄도 알아야 한다.》

《문학통신원들은 문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선구자이며 믿음직한 작가후비이다.》

《군중문학창작에 대한 지도를 몇몇 일군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작가동맹적인 사업으로, 전체 작가들의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은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하는 웅대한 목표로 지향되어야 한다.》

## 군중문학통신원들의 작품

### 샘물을 드립니다

문광근

군사복무 마치고  
돌아온 이 아들이  
아버님께 드립니다.  
초소에서 길어온 샘물로

샘물로 소문난 내 고향마을에  
어이 샘물이 그리우랴만  
어찌하여 저 멀리 초소에서  
굳이 이 샘물을 떠가지고 온줄 아십니까

아슬한 산정에서 풍풍 솟아 이끼를 적시고  
자갈들사이로 돌돌 흐르던 샘물입니다  
기막히게 시원한 물맛에도  
수령님 찾아주신 뜨거운 사연 깃들어있고  
장군님의 전설같은 사랑이  
젖줄기마냥 흐르는 샘물입니다

못잊을 이야기 어제런듯 떠오릅니다  
산과 들에 하얀 눈이 쌓인 대소한의 그날  
우리 중대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  
눈보라에 옷자락 날리시며 생눈길 헤쳐  
샘줄기 몸소 찾아주신 그날의 그 사연

수령님의 그 자옥따라  
무더운 삼복철에  
우리 중대 샘터에 찾아오신 장군님  
군인들이 한모금씩 약수마셔보듯 해서는  
수령님의 그 사랑 다 알수 없다시며  
샘터를 넓혀 늘 리용하는  
사랑의 젖줄기로 되게 하라고  
절절히 이르시던 그 말씀 지금도 들려와라

또다시 우리 중대 찾아주신 그날은  
명절도 얼마나 큰 명절이었던가  
병실로 끌어온 물맛을 보아주신 장군님  
이 샘이 이름있는 샘보다 낫다시며  
이 샘물로 밥을 해먹어 장수들인가고  
호탕히 웃으시던 그 모습  
우리들이 받아안은  
영원히 지지않을 사랑입니다

진정 병사는 병사마다  
장수가 되였습니다다  
그 사랑의 젖줄기가  
온몸에 붉은 피가 되어  
펼 펼 나는 싸움군이 되였습니다다



아 그래서 소중히 안고온  
정갈한 썸물입니다  
영원히 변치않을 병사의 자세로 살고싶어

사랑의 썸줄기를 마음속에 두고 사는  
아들의 이 마음 아뢰고싶어  
초소의 썸물을 정히 붓습니다

## 아버지의 별

변영환

오늘도 군복입고 거울앞에 서니  
내 어깨의 별빛속에 안겨오누나  
어릴적에도 다 자라서도  
어머니 늘 꺼내보이던  
포연절은 아버지의 군복  
군복에 빛나던 작은 별 하나!

오, 전화의 그날  
하늘도 강도 불타던 락동강  
소대장이였던 나의 아버지  
《돌격 앞으로!》 구령웨치며  
도하작전의 진격로 앞장에서 열어나갈 때  
포화속에 빛나던 그 별

아, 군복입고 내 초소로 떠나올 때  
손저어 바래주던 어머니의 눈빛에서  
말없는 당부로 뜨겁게 받아안은 별  
조국의 크나큰 믿음속에  
내 어깨우에 첫별이 없혀질 때도  
아버지의 났으로 이어지던 별이여

훈련의 나날  
사품치는 강을 헤치고  
칼벼랑을 넘으며  
먼먼 행군길 달려갈 때도  
아버지의 별은

나에게 무엇을 속삭였던가  
아들아!  
조국의 안녕을 수호해가는 길에서  
너 만일 순간이라도 주저하고  
한치라도 물러선다면  
네 어깨우의 별은 흐리지리라-

복무의 나날속에  
어깨의 별 늘어갈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빛나던 그 별  
별은 작아도  
아버지의 한생이 다 담겨있어  
언제나 더 크게 안겨오는 그 별

비바람 눈바람 몰아쳐와도  
선군혁명의 한길을 따라  
내 가는 수호의 길을 함께 가는 그 별  
어제도 오늘도  
위훈의 길로 나를 이끌어주나니

조국을 지키는 성스런 길에  
내 한생 안고살 아버지의 별  
장군님 결사옹위의 길에서  
내 어깨의 별들을  
위훈으로 말없이 떠밀어주는  
아 작은별 하나  
포화속의 아버지의 별!

## 나의 집

장 일

고향 떠나 여기 초소에 왔건만  
언제 한번 멀리에 있다고 생각해본적 없는  
나의 집, 나의 고향

생일날엔 고향생각 날가보아서  
다정히 내 마음 다독여주고  
구미에 맞는 음식도 차려주면서  
사랑을 부어준 나의 동지들...

때로는 몸이 불편해 일어못날 때  
이마도 짙어주며 약도 달여주며  
건강한 몸으로 일으켜 세워준  
나의 중대 군관동지들...

몸은 비록 고향을 떠나왔지만  
마음은 언제나 중대라는 고향에 있었거늘  
말못할 사연도 터놓게 되는  
나의 중대, 뜨거운 동지애의 집이여

여기선 전우 위해 한목숨 아낌 없고  
마음속소원도 모두의 기쁨이 되어라

아, 뜨거워라  
고향집 부모도 주지 못한 사랑을  
나는 초소에 와서야 알게 되었어라  
우리 장군님 눈보라 헤치시며 찾고찾으신  
나의 중대, 나의 초소에서 알게 되었어라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지어주신  
인간화원의 큰집에서 꽃피는  
관병일치, 상하일치의 아름다운 화원이여

나는 더 활짝 피워가리라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신  
나의 집, 나의 중대에서  
장군님의 병사답게  
장군님의 아들답게...

## 용해장의 갈매기

김정철

고향하늘에 불타는 쇠물노을에 반해  
정든 바다를 떠 나온 갈매기인가  
쇠물빛어린 기증기 창가에 앉아  
방긋 날리는 처녀의 웃음 등뒤에 느끼며  
이 아침 나는 힘껏 출선구를 터친다  
그러면 처녀는 창파를 날으는 갈매기인양  
살같이 기증기 몰아 나에게로 온다  
인사를 보내는듯 쇠바줄 천천히 드리우며  
쇠물바가지를 출선구앞에 바짝 대인다  
순간 용해장 가득 불꽃보라 일으키며  
쏟아지는 쇠물폭포소리에서 나의 진정을 읽은듯  
빨강계 타는 처녀의 얼굴 나는 본다

까만 댕기 나뭇기며 창파를 날던 어제날 해병  
이제는 산뜻한 해병모 대신 안전모를 썼어도  
바다없는 고향하늘에 쇠물바다를 펼치며  
땅위에서도 바다의 노래 부르는 너 처녀야  
낮과 밤이 함께 끓는 이 열풍로앞에  
네 날아든 그날부터 내 마음의 쇠물빛은  
언제나 너와 함께 나래쳐올랐지  
때없이 심장은 흥분에 달아 높뛰고  
너 또한 남몰래 가슴 설레지 않았더냐

뜨거운 진정 서로 알던 그날부터  
내 품에서 갈매기 떠나가버릴것 같아  
한차지 쇠물이라도 밤도와 더 끓여냈지  
장입물도 함께 채우고  
우리 마음 쇠물파도로 불태워가며  
동트는 새날앞에 마주섰을 때  
아 솟아오른 봄날의 태양도 우리의  
행복을 축복했지

나는 로앞에서 쇠물을 끓여내고  
너는 하늘에서 불노을을 펼치며  
온 한해 불을 안고 사는 너와 나  
아슬한 기증기에 올라 그 많은 날과 달은  
무쇠갈구리에 꿰여들고  
펄펄 끓는 쇠물바가지 주형틀속에 기울일 때  
시뻘건 그 쇠물빛은 우리 열정의 나래  
아니였던가  
저멀리 전선길에 계실 장군님을 그리며  
퇴근길 강변에서 터놓던 맹세를 지켜  
그 어떤 시련도 불파도로 길들여온  
우리 맘처럼  
새형의 유압식굴착기도 고고성 터치지 않았던가  
락원이 새 숨결을 세상에 내뿜지 않았던가

열명당원이었던 로세대들처럼  
쇠물로 말을 하고 쇠물로 정이 통한 우리  
아버이께선 다 알아 전선길에서도 다 알아  
새 세기만도 여러차례 일터를 찾아오셨지  
제품들마다에 어린 우리의 진정을  
쇠물노을속에 헤아려주신 장군님  
뵈고싶어 또다시 뵈고싶어  
날마다 쇠물노을 하늘가득 펼쳐놓고

기다리는 마음 그리움에 불타는 마음  
네 마음 내 마음 하나로 불타오른  
그래서 락원의 쇠물은 언제나 전선길과 가까웠다  
아 정녕 나는 바다, 붉은 쇠물의 바다  
너는 그우에 나래펼친 내 사랑의 갈매기!

## 백두산은 내 조국의 기상

최성률

백두의 붉은기는 아침노을 펼쳐주고  
천지의 맑은 물은 산과 들을 꽃피주네  
백두산 높이 솟아 빛나는 내 나라  
백두산이 없으면 이 땅도 없어라  
아 백두산은 내 조국의 기상

빨찌산 김대장의 자욱으로 성스럽고  
투사들 붉은 피로 고귀한 성산이여  
백두산 높이 솟아 억세인 내 나라

백두산이 없으면 이 땅도 없어라  
아 백두산은 내 조국의 기상

백두의 그 기상 세상에 떨치시며  
장군님 우리 조국 승리에로 이끄시네  
백두산 높이 솟아 자랑찬 내 나라  
백두산이 없으면 이 땅도 없어라  
아 백두산은 내 조국의 기상

## 병사의 봄

김봉철

전호가에 봄잔디 새싹 움틀 때  
병사는 고향의 봄을 그리네  
봄물이 흘러드는 넓은 들판에  
설레는 푸른 모 안아본다네  
아 병사는 잔디푸른 전호가에서  
꽃피는 고향의 봄을 그리네

살구꽃 만발한 고향산천에  
종달새 춤추며 노래하는 봄  
총잡은 병사의 무쇠가슴에

무르익은 벼바다 파도쳐 오네  
아 병사는 잔디푸른 전호가에서  
고향의 봄과 이야기하네

시련을 이겨낸 봄 옷는 땅에  
병사의 꿈도 꽃으로 피네  
장군님 사랑넘친 내 고향 산천  
목숨바쳐 지켜갈 맹세 불타네  
아 병사는 잔디푸른 전호가에서  
승리의 새봄을 약속해주네

## 맑은 하늘

권은경

하늘가에 흐르는 흰구름 보며  
예쁘게 방긋 웃는 나의 아가야  
너는 아느냐 아가야 맑은 저 하늘  
그 어디서 찬란히 비껴오는지

귀여운 아가야 네 눈동자에  
푸른빛 가득히 담기였구나

너는 보았지 아가야 맑은 저 하늘  
맑고 맑은 해님이 펼쳐줬단다

전선길의 노을이 어리어있어  
조국의 하늘은 정말 맑단다  
잊지 말아라 아가야 맑은 저 하늘  
영원토록 지켜줄 우리 해님품을

## 고 향 사 람 들

조룡철

나는 얼마전에 미술전시회에 출품할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갔다.

십여년만에 고향의 동구길에 들어서니 참으로 감회도 새로왔다. 어릴적에 물장구를 치며 놀던 영천강 강언덕에 듬성듬성 서있는 무성한 백양나무들, 뚝에서 가담가담 풀을 뜯는 누런 황소들...

향토의 그윽한 정서를 안겨주는 풍경이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변모된 마을에서는 행복의 노래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는듯 하다.

산기슭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일떠선 아담한 살림집들, 시원한 약수가 쉽게 흘러나오는 솔매골엔 특색있는 정각, 풀판을 잘 조성한 청룡산 등판엔 염소목장... 따뜻한 해빛이 내려앉은 벌에서 가을걷이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고 과원에서 알알이 무르익은 열매를 따는 처녀들의 밝은 모습도 보인다. 정말 동화세계에도 비길데 없는 사회주의 선경-내 고향이다.

고향사람들이 나를 맞이했다. 평양에서 일하는 배나무집 아들이 왔다고 모두가 회한해 한다. 낯선 처녀들이 어른들의 등뒤에서 새초롬히 볼 때 (내가 대학으로 떠날 때엔 아마 유치원생들이었을테니...) 나는 왜서인지 벌에 탄 그 얼굴들이 미덥고 사랑스러워 머리를 숙였다. 나는 다음날부터 벌에 나가 땀흘리며 벼가을도 하고 실참이면 시원한 감차도 들면서 고향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며칠후에는 휴식날이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누구나 멋있게 차려입고 경치좋은 휴식터로 간다. 어떤데서는 가족들이 모여 사진을 찍고 어떤데서는 청년들이 기타를 타며 노래를 부른다.

영천강가.

모래밭에서 한창 씨름경기가 진행되고있을 때 백양나무아래서 요리준비를 하던 녀인들이 목을 빼들고 누구든 이겨라 하고 응원에 열을 올리는 모습도 웃음을 자아냈지만 그에는 아랑곳없이 물고기잡이도 하고 물싸움도 격렬하게 하는 젊은 축들의 모습 또한 한껏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이날의 점심식사는 그야말로 풍성하였다.

도라지채, 꽃감정과, 잉어튀기, 뱀장어튀기 ...

나에게는 고향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이 가슴후덥게 안겨왔다. 벌써 속사한 그림들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었다.

모두의 앞에 놓여있는 고뿌에 시원한 맥주가 찰랑찰랑 넘친다. 깊은 생각에 잠겼던 분조장이

《축배사》를 했다.

《선군의 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수록 우리 장군님의 헌신이 가슴에 마쳐와 정말 생각이 깊어지누만... 일년 삼백예순다섯날 어느 하루 편히 쉬지 못하고선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이 계시기에 오늘의 행복이 있는게 아니겠소...

예로부터 사랑에는 보답이 따라야 한단데 우리 농사를 더 잘 지어 우리 장군님의 로고를 적으나마 덜어드립시다.》

《축배사》가 끝났으나 사람들은 쉬이 음식을 들지 못하고있었다. 그들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고여 오르고있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속사지를 들들 말아 무릎밑에 깔았다. 그림들에 반영된 인물들은 하나같이 화려한 생활속에 잠겨있었는데 그것은 고향사람들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었다.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수록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가는 고향사람들의 모습을 꾸밈없이 감명깊게 보여주자. 이렇게 생각하며 나는 붓을 잡고 형상을 무르익혀나갔다.

회화에술도 인간학인것만큼 인물들의 내면세계와 성격을 잘 그려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이번에 감동적인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올해 봄에 예상치 않게 추위가 들이닥치며 진눈까비가 내렸다고 한다. 그때 누구나 포전으로 달려나와 얼어드는 팽상모판에 우등불을 피웠다. 그들중에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도 있었고 이제는 일손을 놓은 로인들도 있었다. 영농물자수송을 위해 먼길을 다녀와 금방 잠자리에 들었던 관리일군도 있었다.

차기들의 뜨거운 체온으로 추위에 까드라들었던 팽상모를 살려냈을 때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며 웃음짓는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밤하늘의 별들도 감동의 빛을 뿌리고 누군가 이렇게 속삭였다한다.

《어서 뿌리를 내려라. 너희들이 잘 자라 알찬 열매를 맺을 때 이 땅이 풍요해진다. 우리 장군님께서 기뻐하신다.》

돌밭땅을 묵이는것이 그리도 가슴아파 자진하여 그 땅을 말아 농사를 지은 3분조동무들.

돌을 쳐내고 거름을 두툼히 깔아 기어이 그 밭에서 례년에 드문 강냉이수확을 냈을 때 평양하늘을 우러르는 그들의 땀배인 얼굴엔 밝은 웃음이 한껏 어려있었다.

나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체의 흙보산비료생산기지를 꾸리던 고향사람들의 모습을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나는 다시 붓을 들었다. 우리 장군님의 로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땀흘리며 일하는 고향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하고 배경으로 아름다운 고향마을을 채색하니 비로소 내 고향의 행복상이 뚜렷이 안겨왔다. 그렇다, 우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고향사람들의 행복, 아니 온 나라 인민의 행복이다.

나는 생각했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현란하게 분칠하는 《문명》과 《번영》, 그속을 파헤치면 오직 자기라는 개념이 앙상한 드렁기처럼 박혀있다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에 대해

승냥이가 되어야 한다는 《승냥이철학》이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 인간들의 골격과 넋을 이루고있다. 이른바 국가의 《원수》라는 인물이 《국민에 대한 사랑》을 운운할 때 그 모습을 보며 정치적인 기만과 위선이라고 조소하는것이 자본주의사회 인간들의 심리이다. 우리 인민들처럼 령도자가 안겨준 어버이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아글타글 진정을 바치며 일하는 인민은 이 세상에 없다. 령도자는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은 령도자를 위해 순결한 도덕의리심을 바치는 여기에 일심단결의 위대한 철학이 있으며 위대한 힘이 있다. 이런 인민, 이런 나라를 핵무기로도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아, 사랑하는 인민이 사는 내 나라여!

## 한나절길(외 1편)

오재신

동해라 내 고향 원산만제염소는  
한끝에서 한끝까지 한나절길이라오  
선군의 열풍에 소금꽃이 피는  
한나절길이라오

소금꽃에 취해서  
가고가도 다 못가는 한나절길이라오  
제염공처녀들 웃음에 취해서  
가고가도 또 가고픈 한나절길이라오

우리 장군님 선군의 그 자욱이  
이 기슭에 열어놓은 꽃길이라오  
래일을 불러불러 우리 장군님  
이 강산에 펼쳐놓은 선경이라오

동해에 뜨는 해 중천에 세워놓고  
끝없이 걷고싶은 한나절길이라오  
가고가도 끝이 없는 장군님사랑  
목매여 가슴젖는 한나절길이라오

## 배고동소리

배고동소리 배고동소리  
원산만제염소 포구의 배고동소리  
우리 장군님 열어주신 바다길에 울리는  
아, 배고동소리

선군태양 그 해빛아래  
알알이 영근  
눈부신 소금  
기쁨이 실려가는 소리랍니다

강원땅너인들 밝은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소리랍니다  
마식령너머에도 두메라 산촌에도  
높아가는 웃음소리랍니다

아, 배고동소리 배고동소리  
어버이장군님 몰아가시는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랍니다  
좋은 세월 마주오는 소리랍니다



# 보통날 저녁에

허칠성

나는 소설을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소설이라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성격, 전형적인 이야기를 취사선택하여 허구와 묘사로 현실처럼 진실하게 써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날 저녁에 있는 이야기를 덜지도 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쓰려고 한다. 특별한 일이 있는 저녁이 아니라 제 목처럼 보통날 저녁의 이야기이지만 나에게 불현듯 찾아온 깨달음이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충격을 준 때문이다....

여기 북방도시의 10월은 어두워지면 찬기운이 돈다. 이 시간은 대체로 사람들이 퇴근길에 오르는 시간이다.

나도 책상 위의 원고지들을 간중그러놓고 옷걸이에 걸려있는 반외투를 벗기려다가 복도에서 가까와오는 발자국소리에 도로 자리에 앉았다.

아마 어느 문학통신원이 작품지도를 받으러 오는 것일 수 있었다. 로동생활을 하는 문학통신원들은 대체로 이 시간에 많이 찾아온다. 하루의 로동시간이 끝나고 퇴근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예, 들어오시오.》

스물대여섯살 되어보이는 청년이 들어왔다. 예견했던 것과는 달리 이미 알고있는 문학통신원은 아니었다. 제철소에서 일한다는 첼보는 청년이었다. 이 도시에서는 열중 다섯은 제철소와 인연을 가진 사람이다. 공연히 철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꺼내놓는 것이 원고지로 8매 정도 되는 시였다.

그런데 난처한 일은 내가 시인이 아니라 소설가이니 래일 시인들에게 보여 그들에게서 의견을 받으면 어떤가고 말하기 전에 《전 나가있다가 다보신 다음에 들어오겠습니다.》 하고는 청년이 훌쩍 나가버린 것이다.

나는 웃고말았다. 래의가 밝은 청년의 행동이 무조건 봐줄 수밖에 없는 모퉁이에 나를 몰아넣은 것이었다.

하기는 젊은 문학통신원들은 글을 써오면 《즉결재판》을 바란다. 결과에 대한 조급증은 나이와

는 정비례하는 것인 듯 하다.

나는 원고지를 펼치었다.

《온도계로도 켈 수 없는 것》

(온도계로도 켈 수 없는 것이 아니니?) 무슨 시가 제목부터 이런가? 아마 온도계로도 켈 수 없는 뜨거운 것에 대한 시겠지. 젊은이들은 언제나 뜨거운 것을 노래하기 좋아한다. 아닐세라 첫 시구부터가 예견대로였다.

불보다 더 뜨겁다 우리의 심장은

그때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제목에서부터 흥미를 잃어버린 나는 얼른 송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구에서 뜻밖에도 안해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철민이 아버지지요? 나예요.》

철민이란 군대에 나가있는 아들의 이름이다. 그애는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추천받았으나 그것을 뒤로 미루고 군대에 나갔다.

그런데 한달전에 아들에게서 대학추천을, 그것도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추천을 받았다는 소식이 날아왔었다.

그때 우리 부부의 기쁨은 얼마나 컸던지 모른다....

《나요, 그런데 웬일이요?》

좀해서는 직장으로 전화를 걸지 않는 안해였다. 더우기 이제는 퇴근시간이고 이 《온도계》가 어찌고 어찌고 하는 엉터리지만 아니라면 집에 들어섰을 시간인데 웬 전화인가.

《철민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철민이한테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철민이에게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잘있대요, 건강하고.》

그러나 안해의 음성은 확실히 갈려있는 듯 했다. 나는 다우쳐물었다.

《그런데?》

《그 애가 대학공부를 좀더 뒤로 미루기로 했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집에 들어

가 살겠다고...》

《뭐요?》

나는 너무도 뜻밖의 말에 아연해졌다.

《그건 도대체 무슨 소리요? 자세히 말하오.》

《...》

잠시 지나서야 안해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젠 퇴근시간이 아니에요?》

나는 앞에 놓여있는 원고를 내려다보았다.

《아무래도 좀 늦을것 같소.》

하고 나는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려고 했다.

그런데 안해는 《알겠어요.》하고는 송수화기를 끊어버렸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었다. 마치 머리를 한대 호되게 얻어맞은듯 했다.

대학을 그만두다니? 그리고 또 다른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건 뭐고? 가만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혹시 어느 처녀한테 반하여 그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건 아닐까? 다른 집에 들어가 살겠다고 했더니 그렇게밖에 생각할수 없었다.

《참 모를 일이군...》

저절로 흘러나온 소리였다.

복도에서 기침소리가 들렸다. 원고를 빨리 봐달라는 무언의 독촉인듯 했다.

머리속이 어수선했으나 별수 없었다. 나는 무언의 독촉에 《온도계》를 끌어다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 읽고나자 맥이 풀렸다.

요란스런 말들은 모두 끌어다 모아놓은듯 한 《시》였다.

불보다 더 뜨겁다 우리의 심장은

우리는 선군시대의 조선청년

우리 심장의 뜨거운 열을 채려고 하지 말라

우리 심장의 뜨거운 열

그 어떤 온도계로도 잴수 없는것이거니

선군시대 조선청년의 심장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알려거든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불 토하는 화점을 막은

그 젊은 가슴들에 물어보라

전후복구건설의 나날

불발탄을 안고가던 젊은 가슴에 물어보라

온도계를 찾지 말라

그리고 물어보라

불속에서도 지켜진 구호나무들에

수백도 고열속에 보수를 끝낸 해탄로 소성로들에

젊은 심장앞에 숙어든 활활 타는 불길에게

온도계를 찾지 말라

우리는 선군시대의 조선청년들

불보다 더 뜨거운 심장을 지녔거니...

마지막까지 이런 식이었다.

왜 현실속에서 살며 일하는 로동청년인데 구체적인 자기 생활속에서 보다 참신하고 생동한 시적소재를 잡고 쓰지 못하는가.

나는 걸상을 드르렁소리가 나게 밀어놓으며 일어났다.

그런데 《시인》은 방안에서 나는 소리에만 귀를 강구하고있었던듯 내가 문앞으로 가기 전에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다 보셨습니까?》

나는 힘들게 대답했다.

《다- 봤소!》

청년은 만족한듯 책상앞으로 다가왔다.

《그렇습니까? 저도 시가 그닥 잘되지는 못했다는것을 압니다.》

그닥 잘되지 못했다는것은 안다? 그러니 괜찮게 되었다는 소리가 아닌가. 나는 할 말을 찾느라고 그를 잠시 건너다보기만 했다.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문학통신원들에게는 고무적인 말이 앞서야 하는데 이 청년에게는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하는가.

그런데 눈여겨보니 좀 이상한 감을 주는 모상이었다.

고수머리는 아닌데 머리카락꼬트마리들이 심하게 꼬부라들었고 눈섭도 꼬트마리가 꼬부라져있었다.

저런 멋부림도 있는가.

이래저래 나는 그에 대한 불쾌감만 커갔다. 그것은 안해가 전화로 알려진 뜻밖의 소식때문에 그리고 빨리 집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때문이기도 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동문 시라는게 뭐라고 생각하오?》

그러자 그의 입에서는 대답대신 더 엉터리없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더 힘있는 말들을 쓰고싶었는데 찾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쓰지 못한것입니다.》

더 힘있는 말이라구? 나는 기가 막혔다. 더 요란스런 말을 쓰지 못한것이 유감스럽다는 뜻이다.

나는 시의 련들을 짚어보이며 말했다.

《기백과 정열은 좋소. 그렇지만 너무 말들이 요란스럽다고 생각되지는 않소?》

《예?》

그는 나를 마주보며 눈을 껌뻑거리더니 시의 련들을 손가락으로 콕콕 짚어내려갔다.

《그렇지만 이거야 모두 사실이 아닙니까?》

《...》

그래, 사실이라는것은 옳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화구를 가슴으로 막은 영웅들은 얼마나 많았으며 전후복구건설시기의 위훈은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고 산불이 일었을 때 자기들의 몸으로 감싸 구호나무들을 구원한 군인청년들, 아직

불길이 이글거리는 해탄로 소성로에 뛰어들어 보수를 한 로동청년들은 모두 실재한 주인공들이다.

어찌 그뿐이라.

뜻밖의 일로 화재가 난 집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백두산3대장군들의 초상화를 모셔내오고 아이들을 구원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며칠전 안해한테서도 들은바가 있었다.

《그렇지만 시란...》

그러자 청년의 얼굴이 좀 붉어졌다.

《저도 시를 이렇게 쓰는게 아니라는건 압니다.》

《?》

《전 뭐 이 시를 발표해달라고 가져온게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일이야 보통일이 아닙니까. 선군시대 조선청년이면 누구나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들중에는 무슨 일을 하나 해놓고는 굉장한 일을 한것처럼 우쭐대는 사람들이 더러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자그마한 일을 두고도 벽적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써본겁니다.》

《그-령소?》

나는 새삼스러운 눈으로 그를 보았다. 엉터리로만 알았더니 생각하는바가 얼마나 깊고 훌륭한가.

그런데 그 끄트마리를 꼬불꼬불하게 한 머리카락과 눈썹만은 여전히 눈에 거슬렸다.

그때 문두드리는 소리가 울리더니 대답도 하기 전에 문이 열리고 뜻밖에도 안해가 나타났다.

그러나 나는 별로 놀래지 않았다. 아마 좀 늦어진다는 나를 집에서 기다리고만 있을수 없어서 왔을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군대에 내보낸 후에는 내가 퇴근하여 집에 들어서기를 기다리는것이 안해의 유일한 저녁일과로 되어있었다. 오늘은 그 일과가 틀어지게 되었으니 이렇게 찾아온것이였다. 그의 손에 쥐여있는 사각형의 봉투는 아들에게서 온 편지일것이였다.

그런데 나의 안해가 들어서자 《온도계》는 별스러운 정도로 서둘러 《전 그림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하고는 내가 뭐라고 할 사이없이 나가버렸다.

안해는 좀 이상한 눈길로 놀랜듯이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고있었다.

나는 안해에게 손을 내밀었다.

《편지를 보지요. 덜된 녀석 같으니!》

안해는 나를 놀랜 눈길로 보더니 손에 쥐고 있던 편지를 내밀었다. 그 시선에는 책망 비슷한 감정도 담긴듯 했다.

(흥, 그래도 아들을 욕하는건 싫다는거지.)

나는 집안문안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쓴 부분을 대충 훑어내려갔다.

《사내자식이 무슨 군소리가 이리 많아?》

나는 화를 냈다.

안해는 무슨 말을 할듯 하더니 결상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어서 편지를 보세요.》

드디어 안해가 전화로 말하던 부분에 이르렀다.

나는 성급히 읽어내려갔다.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그리고 안해를 건너다보았다.

안해는 내가 곁에 내던진 편지봉투를 손에 들고 물끄러미 들여다보고있었다. 몇번 거듭 읽고 또 읽었을 편지의 글줄들을 보고있는듯 했다.

나는 여기에 아들의 편지를 몇구절만 인용하려고 한다.

《...우리가 주둔지역 인민들과 합심하여 일떠세우는 <군민발전소> 건설현장에 한달에 두번씩 꼭꼭 지원 물자를 가지고 찾아오는 전쟁로병인 영예군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이 둘이서만 사는 분들이였습니다. 그분들은 불편한 몸이지만 그냥 앉아있을수 없으면서 건설자 된 심정으로 찾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였습니다.

그런데 한달두달이 지나도록 그분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명령을 받고 찾아가보았더니 글썽 옛상처가 도져서 운신을 못하고 누워계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아랐는지 모릅니다. 마을에서 돌봐주니 아무 불편도 없다고 하지만 친혈육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이 피로써 청춘을 바쳐 지켜낸 땅에서 태어나 자라난 저는 선군시대의 청춘으로서 그분들을 외면할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집에 들어가 그분들의 친손자가 되기로 결심한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는지를 저도 잘 압니다. 제가 학창시절부터 그토록 희망하였던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추천받고 얼마나 기뻐했을지는 아버지, 어머니도 잘 아시겠지요? 그리고 저보다 더 기뻐했을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도 이 아들은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추천을 양보하고 전쟁로병할 아버지, 할머니의 집으로 보내줄것을 지휘부에 제기하였습니다. 지휘관동지들은 저의 제의를 찬성해주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도 한생을 이 아들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왔지만 이 아들의 결심을 들으면 더 기뻐할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진정한 친손자로 되어 일하면서 배워 꼭 훌륭한 기술인재로 되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대답을 잘했지요?...》



《...》

나는 묵묵히 앉아있었다. 안해 역시 말없이 앉아있었다.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나는 일어났다.

《가기요.》

안해가 옷걸이에 걸려있는 반외투를 벗겨들었다.

《입으세요. 밤날씨가 쌀쌀해요.》

어두운 밤거리는 쌀쌀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우리가 할 말은 이미 아들에게 다 해버린것과 같았다.

《참, 아까 그 젊은이를 어떻게 알아요?》

하는 안해의 물음에 나는 방에 들어섰을 때 안해가 그를 놀랜듯 보던것이 생각났다.

《그 청년을 아오?》

《전 깜짝 놀랐어요. 며칠전에 불붙는 집에 뛰어들었던 젊은이에 대해 말한게 기억나요?》

《그런데?》

《바로 그 젊은이예요.》

《뭐요?》

나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정말이요?》

안해도 멍어섰다.

《틀림없어요. 머리카락과 눈썹이 불에 그슬린 자리도 그냥 있었어요.》

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머리카락이나 눈썹의 기묘한 모양은 그래서였구나.

《불을 끈 다음엔 누가 알아볼 사이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부모들도 그렇고 인민반에서도 그 사람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뜻밖에... 그 젊은이 이름이 뭐예요?》

나는 원고의 내용에만 관심을 돌렸을뿐 필자의 이름에 주의를 돌리지 못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이름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나는 대답을 기다리는 안해에게 말했다.

《그 사람은 제철소에서 일하는 젊은이요. 시를 써가지고 왔댔소.》

《문학통신원이에요?》

《그래, 시인이요!》

부지중 그의 시구절이 떠올랐다.

우리 심장의 뜨거움은

그 어떤 온도계로도 잴수 없는것이거니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공허한 큰소리로만 느껴지던 시구절이 이때는 다른 느낌을 안겨주며 계속 머리속에 떠올랐다.

우리 심장의 뜨거움을 알려거든

...

한무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옆으로 성급하게 달려 지나갔다.

《저기서 무슨 일이 있는것 같애.》

《무슨 일일가?》

《하여튼 빨리 가보자!》

창문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비치고있었다. 젊은이들은 그곳으로 달려가고있었다.

나와 안해도 그곳으로 가보았다. 별다른 일이 아니었다. 길을 잃고 우는 어린애때문이었는데 마침 애어머니인 젊은 녀인이 나타나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갔다.

《거참, 또 무슨 큰일이라두 났다구?》

우리옆을 달려지났던 젊은이들이 실망한 소리를 하며 물러갔다...

어쩌다 이따금씩 볼수 있는 광경이었다. 몇사람이 모여서 웅성거리면 삽시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그때면 나는 (무던히도 구경거릴 좋아한다니까.)하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날 저녁에는 그 광경이 다르게 안겨왔다.

모여드는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있으리라는 자각때문이라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겠는가. 우리 부부를 성급히 지나쳐 달려갔던 젊은이들이 만일 그곳에서 자기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기다리고있었다면 뛰어들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리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하지 않은가. 방금전에 만났던 그 《시인》처럼 그리고 나의 아들 철민이처럼...

늘쌍 별생각없이 걷던 저녁길에 이밤에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안겨왔다. 저녁퇴근길을 걸으며 그제도 보고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는 평범한 사람들, 그들의 걸음에는 시대에 대한 자각, 선군시대 인간의 사명감, 위훈이 숨쉬며 자라고있다는...

우리는 선군시대의 조선청년들

불보다 더 뜨거운 심장을 지녔거니

그 어떤 불길앞에서도 시련속에서도 주저를 몰라라

안해와 나는 생각깊은 길을 걸어 집으로 오며 우리들의 할바를 의논하였다. 아들 철민이를 영예 군인로병부부의 집에서 마중하자고...

그리고 서로 이마를 마주하고 회답을 썼다. 이 글에 그 편지내용을 부디 옮기려 하지는 않겠다.

다만 편지의 마지막구절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끝내려 한다.

... 선군시대청년이 서야 할 위치를 찾은 너한테 이 아버지, 어머니는 경의를 표한다.

## 가을 시 초

우광복

### 말없는 계절

봄들판의 노래는  
꽃처럼 진것이나  
여름포전의 웃음은  
논물처럼 잦아든것이나  
고요한 가을아  
말없는 가을아

이삭을 익혀놓고  
첫날색시처럼 고개숙인 가을아  
실바람조차 불어올가 걱정이구나  
그 이삭들 고개 상할가

열번 봐도 기쁘고  
백번 봐도 싫지 않은 가을아  
이런 날에야 노래할수 있지 않느냐  
너의 기슭에 새겨진 불멸의 이야기  
우리 장군님 어떻게 펼쳐주신 가을이더냐

흰날개 저으며 찾아온 두루미조차  
나래를 접지 못하는 가을아  
너를 위해 우리 장군님  
봄날도 꽃볼새 없으셨구나  
여름도 그늘생각 못하셨구나

보내지 않고

그냥 붙들고만 싶은 가을아  
너는 큰일을 하고도  
자랑을 모르는 어머니만 같구나  
우리 장군님 안고오신 원대한 포부가  
바로 이런것이 아니었더냐

바라볼수록  
생각은 깊어만지누나  
안아볼수록 가슴은 뜨거워만지누나  
계절이 있으면 절로 오는 가을이나  
땅이 있으면 찾아오는 가을이나

할 일 많은 조국의 일손들  
너를 위해 다 불러주신 고마우신 장군님  
너를 위해 눈비도 다 맞으신  
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은정이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된 가을아!

정녕 말이라도 하면  
뜨거운 눈물이 쏟아질것만 같은 가을아  
아 한없는 고마움에 큰절 드리며  
해가 저도 차마 일어서지 못하는 가을아  
목메여 목메여  
말 못하는 가을아!

### 발 머 리 에 서

봄날엔 애기모  
여름엔 푸르청청 《장부》  
가을오니 멋진 수염 흔드는  
《할아버지》는 아니냐  
팔뚝같은 강냉이 누런 이삭들  
봄순아 우릴 보고 손녀들이 왔다고  
어깨를 툭툭 치며 반기는것 같구나

겹겹 오사리 《옷》마저

이제는 작아졌구나  
척박한 땅이라 도리질하던  
샘물집 할머니 놀라는 모습에  
와수수- 설레이며 온 포전이 웃는다  
갓 스물 우리도 실농군이 분명타  
그 웃음에도 가을이 실렸구나

폭포처럼 넘쳐나는 청춘의 사랑  
폭폭 쏟아부은 우리네 포전

사랑은 퍼낸다고 축나는법 없구나  
저봐라  
똑하기로 소문난 우리 반장  
웃음도 철철 헤쳐졌구나  
코노래 흥얼흥얼 기쁨에 취했구나

봄순아  
너도 한이삭 슬쩍 안아보렴  
무거움이 가득히 실려오며  
가슴이 뻐근해진다  
이 기쁨 흘릴세라 다 싣기엔  
힘장수라 뽑내는 트랙포로도  
바퀴가 늘리워 힘깨나 뽑을게다

봄하늘 흔드는 종다리노래보다  
땅과의 속삭임 더 많이 나누며  
지는 해도 잊고 산 우리의 보람이다  
감미론 꽃향기보다 거름내 더 맡으며  
가는 계절 잊고 산 우리의 행복이다

꿀짜기도 배가 불러 낮아진 계절  
해마다 이런 기쁨으로  
청춘의 년륜을 새기자  
이런 기쁨으로 부강해지는 조국이 아니냐  
또 한해 비약할 조국의 힘  
한껏 마련한 청춘의 기쁨이다

## 그대 사랑 내 사랑

바람조차 달고단 가을날 아침  
한아름 벼단을 안아드리  
내가 글썽 애기안은 어머니만 갈대요  
싱글벙글 웃는 제대군인 그 동문  
첫아기 본 아버지만 갈대요

정말... 정말...  
아기만 같습니다.  
보세요.  
내 불을 살살 비벼봅니다.  
캐득캐득 웃으며  
어리광도 부리는것 같습니다.

찬바람 모질던 이른 봄날엔  
비닐박막 요람속에 고이 잠재워  
자장가 불러주던 내 사랑입니다.  
찬서리 내릴 때 잎새 하나 열세라  
우등불 피워가던 그대 사랑입니다

봄아씨 꽃물고운 파란 봄날엔  
모내는기계도 유모차처럼 태워주던  
그대 사랑 내 사랑입니다.  
병날세라 약 뿌리고 《보약》도 먹여주며  
김잡아 가꾸던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열두번 손이 가도 모자라던 마음  
업어주면 좋을가 안아주면 좋을가  
떨어져선 못살던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비바람 치면 약속이나 한듯 달려나와  
한밤을 지새우며 지켜주던  
그대 사랑 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야 가을을 어떻게 안아온담  
뜨거운 우리 사랑 이 벼단 낳았지  
이런 가을 위해서 처녀가 엄마되면 어떻담  
총각이 아버지되면 어떻담  
아 그대 사랑 내 사랑

## 가을소묘

김매기 휴식참엔 오이랭국 으뜸이고  
벼가을 휴식참엔 콩국맛이 제일이라  
제대군인총각 한그릇 더 들라고  
샘물집아주머니 술머시 권한는데  
어허라 잔치도 하기 전에 사위대접이라고  
분조장의 웃음소리 떡호박처럼 구수하구나

×

새집들이 처마아래 빨간 고추타래는  
정한 겨울김치맛 불려오는데  
박령감은 콩가을이 늦어진다  
마당들썩 로친네를 재촉하누나  
어허라 올해는 고추장도 한독 더 담그어  
군관에게 시집간 딸에게 보내야지

## 따뜻한 골짜기

리진복

푸르싱싱한 나무잎새 사이사이로  
흘러내리는 햇빛은 얼마나 따사로우나  
바위와 바위 풀덤불속을 감돌아흐르는  
구슬같은 옥계수는 그 얼마나 맑고 정갈하나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날으며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 얼마나 청아하나  
울창한 숲속 싱그런 숲향기 실어오는  
산들바람은 그 얼마나 이 마음 시원히  
적셔주느냐

새벽이슬 머금은 싱싱한 풀판을 찾아  
염소떼 흰구름처럼 흘러가고

물살빠른 골개천 막아 물아가는  
소형발전소 동음소리 내 마음조차 빛을 안은듯  
따뜻해

과원의 숲 설레이는 땅  
사파나무마다 풍성한 과일열매 주렁주렁  
행복이 넘치는 락원  
황홀한 선경으로 펼쳐진 행복의 골짜기  
고향사람들의 더운 숨결 끝없이 고동치며  
감사의 노래 고마움의 노래 넘쳐흘러라  
따사로운 선군태양아래 천지개벽한  
내 태어난 따뜻한 골짜기 사랑의 요람이여

가사

## 내 고향은 행복의 꽃동네

최정용

살구꽃 만발한 내 고향 모습  
장군님 정답게 바라보셨네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마을  
살구꽃동네라고 불러주셨네  
아 내 고향은  
장군님의 축복받은 행복의 꽃동네

들에는 이모작 기쁨넘치고  
마을엔 과일꽃 향기넘치네  
선군시대 선경으로 활짝 꽃피나

장군님의 기쁨이 된 내 고향 마을  
아 내 고향은  
장군님의 축복받은 행복의 꽃동네

어버이의 따뜻한 그 품에 안겨  
온 나라가 다 아는 마을되었네  
뜻있을 그 사랑 길이 전하며  
대를 이어 꽃피우리 내 고향 마을  
아 내 고향은  
장군님의 축복받은 행복의 꽃동네

가사

## 조국은 나의 사랑

황성하

푸른 산 맑은 물 가없는 들판  
내 조국은 왜 이리 아름다운가  
정을 안고 바라보니  
사랑안고 바라보니  
너보다 아름다운 강산은 없어라

흙 한줌 돌 하나 나무 한그루  
내 조국은 왜 이리 소중한것인가  
땀을 바쳐 가꿔가니

피를 바쳐 지켜가니  
너보다 더 귀중한 땅은 없어라

고난을 박차고 일어서는 땅  
내 조국은 왜 이리 밝고밝은가  
장군님 선군으로  
밝은 앞날 열어가시니  
너보다 희망넘친 나라는 없어라

# 푸른 숲은 무엇을 속삭이는가

-런시 《내 사랑 푸른 숲이여》를 놓고-

리정웅

숲이 설레이는 소리, 설레이는 숲, 푸른 숲, 내 사랑 푸른 숲...

런시 《내 사랑 푸른 숲이여》〔《조선문학》 잡지 주체95(2006)년 4호〕인 한기운시인의 유고작에서 울려나오는 후더운 숨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의 서정은 시인 자신의 정서를 직접 표현하는 주정이다.》**

시인의 정서를 직접 표현한 주정을 해쳐보면 런시 《내 사랑 푸른 숲이여》의 서정세계를 감수할 수 있다.

## 1. 푸른 숲에 사는 시인의 사색

런시는 매개 작품들이 독자적인 서정시인 동시에 매 편의 사상정서적내용이 하나로 이어져야 한다.

런시 《내 사랑 푸른 숲이여》는 6편의 서정시로 이루어졌는데 작품의 중심에 서있는 서정적주인공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보내바와 같이 서정적주인공은 해방후 땅을 부여받은 농민의 아들이며 전쟁시기에는 조국을 지켜 피흘리며 싸운 병사이다. 그리고 한평생 조국의 푸른 숲을 가꾸오는 성실한 공민이다. 하기에 푸른 숲에 사는 서정적주인공-시인의 사색은 땅과 숲, 조국이 얼마나 귀중하며 이 모든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데로 펼쳐지고있다.

런시의 첫번째 시 《피로 지킨 이 땅은》의 첫련에서 《내 싸움의 그날/ 좋은 땅이라고 피흘려 지키고/ 석비레 돌밭땅이라고/ 마음밖에 버렸던가》라고 한 첫 주정으로부터 시인의 사색은 얼마나 웅심깊고 의미심장한것인가.

땅, 목숨같은 땅. 그 값을 어떻게 정한단 말인가. 이 땅은 력사적인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분여지 석자이름 패말을 안고/ 꿈만 갈아 울며 웃던/ 아버지의 그 눈물에서 받아안은/ 목숨같은 이 조국》땅이고 《백두산3대장군의 거룩한 자욱/ 소중한 어려》있는 한치한치의 땅이며 《저 노루재 석비레땅도/ 전우들의 피가 스민 땅》이다.

마침내 시인은 결구에서 강한 주정을 토로한다.

아, 조국이 품고있는것이면  
석비레땅 모래 한알도  
이름없는 풀 한포기도 소중한 이 땅

지켜야 할 때는  
목숨보다도 귀중한것을!

그렇다. 시인은 런시의 첫 작품에서 땅의 소중함을 다른 시인들과 다른 각도에서 절절하게 체험하고있는것이다.

시인은 시에서 그 땅은 《좋은 땅이라고 피흘려 지키고/ 석비레 돌밭땅이라고》, 《그 값 다르게》정할수 없으며 《지켜야 할 때는/ 목숨보다도 귀중한것》이라고 뜨겁게 토로하고있는것이다.

이 시는 다음시들의 푸른 숲이 무성하게 자랄수 있는 비옥한 토양으로 되고있다.

즉 시 《내가 사는 집》에서는 설레이는 푸른 숲에서 번영하는 조국-강성대국의 모습을 보는 그 기쁨을 두고 못 떠나는 집이기에 수도 멀리에 살아도 언제나 모란봉기슭에 사는 마음이라고 노래하였고 시 《산에 사는 기쁨》에서는 봄, 여름, 가을의 숲에 대한 풍만한 화폭으로써 산에 사는 류다른 행복은 말로 맺은 정보다 땀으로 맺은 정이 더 뜨거움을 느끼는데 있다고, 시 《꽃과 뿌리》에서는 한생 숲을 가꾸온 늙은 부부의 생활세계를 통하여 《령감백발이/ 숲속에 뿌리내린 백합》 같고 《로친의 귀밀머리 허연 모습도/ 숲속에 핀 백도라지꽃》 같다고, 시 《숲속을 먼저 걸어보시라》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내면세계를 펼쳐면서 온갖 푸른 잎새들의 속삭임을 들으며 숲속을 걸어보면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높은 뜻 받들어 한생을 이 푸른 숲과 기꺼이 바꾼 백발도 푸르게 보이리라고 노래한다.

마지막 시 《한껏 설레이라 내 사랑 푸른 숲이여》에서는 앞의 시들에서 축적된 시인의 체험세계가 하나로 농축되어 절절한 감정으로 흐르고있다.

아침저녁 숲속을 오르내리는 서정적주인공의 마음속에 못잊어 찾아오는 뜨거운 추억은 무엇인가? 전화의 날 최전선을 찾아오신 아버지수령님께서 불탄 산천을 아프게 바라보실 때 전호가에 타다남은 애솔나무가 시인의 가슴에 깊이 뿌리내렸다. 그 나날에 조국산천도 원썬들의 소이탄에 상처를 입었고 시인의 몸에도 미제원썬들의 총탄이 상처를 냈다. 그래서 서정적주인공에게는 조국의 산천이 자기의 살점처럼 보여오고 한생을 푸른숲을 가꾸며 살아온것이 아닌가. 그 마음으로 산천에 뿌리내린 시인의 한생은 무성한 푸른 숲으로 설레며 미제침략자들을 이기고있으니 정녕 푸른 숲은 서정적주인공의 어제이고 오늘이고 래일이며 삶의 전부인것이다.

...

오, 우리 장군님 선군령도의 손길아래  
내 사랑 푸른 숲이어  
푸른 하늘을 팔 벌려 안고  
한껏 설레이라  
이 세상 그 어떤 원썬도  
나에게 다시는 불질 못해

(시 《한껏 설레이라 내 사랑 푸른 숲이어》)

이 련시의 전반에 《선군령도》라는 단어는 이  
결구에 한번 들어있다. 그러나 푸른 숲의 설레이  
소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에 대한  
궁지높은 찬가로 격조높이 울리고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내 사랑 푸른 숲이어/ 푸  
른 하늘을 팔 벌려 안고/ 한껏 설레이라》와 때  
여놓고서는 정녕 받아안을수 없는 감정이다.

푸른 하늘, 푸른 숲!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  
조국의 푸른 하늘을 펼치고계시기에 푸른 숲은  
그리도 설레이고 서정적주인공의 삶은 그리도 보  
람찬것이 아닌가!

시인의 주장은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세  
상 그 어떤 원썬도/ 나에게 다시는 불질 못해》라  
고 엄숙히 선언한다.

여기서 《나》-이는 원썬의 총탄에 부상당했던  
시인-서정적주인공인 동시에 원썬들의 소이탄에  
상처를 입었던 푸른 숲이며 조국이다.

그렇다! 푸른 숲을 가꾸가는 서정적주인공의  
정서속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위업의 정  
당성과 그 생활력을 시적으로 힘있게 확인한 여  
기에 사회주의적애국주의, 열렬한 조국애를 선군  
시대의 주도적감정에 기초하여 훌륭히 노래한 시  
의 생명이 있고 시인의 참다운 모습이 있는것이  
다.

## 2 화폭속의 푸른 숲 노래하는 푸른 숲

《시중화》라는 말은 《시속에 그림이 있다》는 뜻  
이다. 최근 일부 시들에서 생경한 정치적술어들  
이 눈에 뜨이는 경우에 비추어볼 때 이 련시가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서 시인의 감각화된 언어형  
상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우선 푸른 숲의 화폭을 펼쳐보자.

화창한 봄날의 기쁨은  
가을에 빈 땅에 옮겨심은 어린 나무  
석비레땅에 뿌리박고  
파아란 첫움을 피여날 때

싱그러운 여름날의 환희로움은  
하늘가에 설레는 숲속에  
온갖 새들 날아들어  
할미새, 밀화부리 보금자리에 알 품고  
춤추는 아지골 동실한 등지에  
피팔새 한가득 알 깎을 때

가을날의 흐뭇한 보람은  
산에산에  
심어가꾼 잣나무, 호두나무...  
온갖 나무들 아지마다 무거이  
첫 열매 드리울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숲에서 사람만 보아도  
뒤틀러 뿔 차비하는 노루, 사슴들  
나를 보면  
풀 뜯으며 마주오는 때...

(시 《산에 사는 기쁨》에서)

마치도 한쪽의 그림앞에 마주선 기분이다. 그것  
은 봄, 여름, 가을을 다같이 펼친 병풍속의 그림  
인듯싶다.

아니, 벗어있는 그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그림처럼 느껴진다. 석비레땅에 파아란 첫움을 틔  
우는 어린 나무, 춤추는 아지골의 등지에 한가득  
알을 깐 피꼬리, 잣나무, 호두나무의 아지마다에  
무거이 드리운 첫 열매, 숲에서 사람을 보고 놀라  
뛰려다가도 서정적주인공을 알아보고는 풀을 뜯  
으며 마주 오는 노루, 사슴들(얼마나 정들었으면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시인은 자기의 시에 숲의 풍경을 훌륭한 화폭  
으로 펼쳐놓았다.

독자들은 그 화폭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  
고 음미한다. 그러자... 화폭에서는 별안간 능란한  
기타수가 손끝으로 가벼이 현을 건드린듯 음향이  
울리기 시작한다.

이제는 푸른 숲에 묻혀  
가을이면 소슬바람 불어도  
지붕우에, 마당가에  
жат송이 기름밤알 굴러내리는 소리  
듣기 좋은 집

...  
이른새벽  
온갖 새소리에 잠깨는 그 맛  
함박눈 내린 아침엔  
앞뜨락에서  
닭무리와 섞여 노는 새무리...

(시 《내가 사는 집》에서) 서정적주인공과 함께  
우리는 듣는다. 푸른 숲에 불어오는 소슬바람의  
가벼운 소리, 지붕우에, 마당가에 жат송이 기름밤  
알이 또그르르 굴러내리는 소리, 함박눈 내린 상  
쾌한 아침, 숲속의 작은 집 앞뜨락에서 닭무리와  
섞여노는 새들의 지저귂소리... 아름다운 자연의  
음향속에 잠을 깬 서정적주인공의 기분상태를 실  
감있게 체험한다.

우리는 련시의 매 편들에서 생동하게 살아움직  
이는 화폭을 보며 그 화폭에서 울리는 아름다운  
노래를 듣는다.

시는 현실생활의 재현이며 그것은 곧 화폭과

음악으로 펼쳐져야 한다. 추상적인 감정, 빈 구호로는 절대로 독자들에게 감흥을 줄수 없다.

그렇다. 문학의 비결, 시의 비결은 작가의 언어형상력에 있다.

작가는 가능한껏 생동하게-즉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도록, 오감이 짜릿하게 감촉될수 있도록 자기의 언어력량을 동원하여야 한다. 감성화의 대상으로 될수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껏 언어구사력을 발휘하라.

우리는 이 려시에서 그러한 시인의 노력의 산물-탐구된 시문장들을 수없이 볼수 있다.

시 《피로 지킨 이 땅은》에서 《목숨같은 이 조국에/ 그 값 다르게 정한 땅 있었던가》라든가, 시

《숲속을 먼저 걸어보시라》에서 《한생을 이 푸른 숲과 기꺼이 바꾼/ 나의 백발》을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

시는 끝났으나 푸른 숲은 쉬임없이 속삭인다. 그것은 독자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시인의 다정한 속삭임, 위대한 선군혁명시문단에 마지막으로 놓고간 시인의 소박한 꽃다발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 이시초

# 꽃은 태양이 피운다

리영철

## 비행기는 국경을 넘어서 가도

아득한 하늘길  
특별비행기를 타고  
무재봉의 영옥이  
국경을 넘어서 간다

명승의 동해바다가  
귀여운 딸과 남편이 있는 집  
정다운 그곳도 지나  
영옥이는 지금  
국경을 넘어서 간다

초소의 구호나무  
한글자한글자가 목숨보다 소중한  
타래치는 불길속에 가슴으로 덮었던 그  
그때 입은 화상자리가

얼굴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꿈같이 간다 목메여 간다  
영웅들의 넋이 푸른 무재봉을 찾아  
강사인 그를 만나주신 우리 장군님  
아름다운 그 삶을 더 곱게 꽃피우시려  
만리창공우에 열어주신  
뜨거운 인덕의 이 길

비행기는 국경을 넘어서 가도  
그 사랑을 안고가는 심장엔  
더 가까이 안기여지는  
아 조국  
떨어져 못살 아버지의 품이여!

## 공주와 공민

정원의 백송나무에  
햇눈이 소복이 내린 그 아침  
치료산보를 나온 영옥이  
퇴원하는 한 녀성을 만났네  
그는 남아시아에서 온  
어느 왕국의 공주

고요한 병동 서로 다른 특별실에서  
몇달을 함께 입원생활을 했어도  
병원의 각별한 관심속에 치료를 받는  
영옥이를 처음으로 보게 되는 그 녀성  
숫눈길을 나란히 걸으며 물었네

- 당신도 나처럼 왕의 딸이겠지요?  
- 아니, 난 그저 보통공민이랍니다.  
- 정말인가요, 세계의 이름있는 이 병원에서 그  
많은 치료비를 내며  
귀빈치료를 받고있는것은?...  
- 우린 김정일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답니다!...

한떨기 백합이 하얀 눈우에 편듯  
불수록 아름다운 영옥이  
활짝 핀 얼굴에 함뱍 웃음을 담으며

자기가 받아안은 장군님의 사랑  
태양민족이 누리는 행복을  
금지높이 그에게 말해주었네  
그 목소린 봄하늘 종다리의 노래 같았네  
아들딸 천만을 한품에 안아  
하나같이 보살피고 꽃피워주시는  
위대한 아버지가 계시여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넘친 그 모습

부러웠네 공주는  
돈보다도 인간의 아름다움을 귀중히 여기는 나라  
돈 없이는 살아도 그 품 떠나 못사는 인민  
이국의 차디찬 눈우에서도  
아름다움의 향기를 한껏 풍기는 영옥이

저멀리 히말라야산맥을 넘어  
자주를 지향하는  
그리운 조국땅으로  
그 햇빛 그 아름다움을  
소중히 안고가고싶은 마음

공주는 머리 숙였네  
조선의 공민 영옥이앞에  
그리고 진심의 인사를 남겼네  
- 김정일평도자를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축복을 받은 당신을  
세계의 진짜 《공주》라고 부르고싶군요

## 은정의 《오작교》

견우와 직녀는  
하늘의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그리워 찾고 부르다  
일년에 단 한번 칠월칠석날  
까막까치들이 날아와 놓는  
오작교우에서 만났다 합니다  
만나면 작별의 아픔에 울다가  
견우는 이편 직녀는 저편서  
안타까이 부르며 헤어지곤 했답니다

달덩이처럼 환해진 얼굴로  
비행기에서 내리는 《직녀》를  
땅우에서 꿈같이 맞이한 《견우》

서로가 손꼽아 일년만에 만났으니  
이들이 만난 날도 《칠월칠석》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만난 곳도 《오작교》가 아니겠습니까

전설의 견우 직녀는  
하늘의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만나자 작별의 서러움속에  
한생을 살았다 합니다  
하지만 내 나라의 《직녀》와 《견우》는  
은혜론 사랑의 은하수가 흐르는 이 땅우에  
장군님 펼쳐주신 은정의 《오작교》에서  
백년토록 행복할 상봉을 했습니다

## 모성의 고백(1)

아기란  
잠시 떼어놓고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것

아기란  
결에 있으면  
엄마의  
하늘이고 땅  
아기야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두고 떠났던 엄마  
입원실의 창문을 열면  
웃는 꽃 고운 꽃은 네 얼굴이였고  
새들의 지저귀도 네 목소리였다

첫돌잡이 네가 있는 집  
밤이면 꿈마다 찾아가  
너의 까만 눈 맑은 두볼에  
너의 감쪽한 두손과 발에  
입을 맞춰보던 이 엄마였다

그렇게 그리웠구나

이 엄마는  
너를 생각할 때면  
주고싶은 사랑으로 애를 태우고  
다 못 준 정으로 잠들지 못하며  
베개잇을 다 적신적도 있었다

아기야 그러나 엄마에게는  
너 먼저 그려본 모습이 있었구나  
이국땅 먼곳에 떠나보낸 나를 두고  
누구보다 마음을 쓰신  
아버지의 사랑이 내결에 있어

하늘길 수수천리로  
날마다 보내주신 치료약과 보양약  
만사람이 눈물젖던 그 사랑속에  
엄마는 고운 얼굴을 찾고  
너에게 왔구나

아기야  
엄마는 온 한해 그리웠다  
그 품 떠나 나의 사랑도 행복도 없는  
장군님 그리움속에



너도 있고 우리 집도 있고

## 조국도 있었다 모성의 고백(2)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앞에  
내가 영옥이의 어머니라고  
영옥이가 내 딸이라고

어머니들은  
잘못을 저지른 자식을 놓고도  
그 마당에서  
주저없이 말합니다  
이 애가 내가 키운 자식이라고

하물며  
장한 일 한 아들딸을 두고야  
자랑집이 터져서 못배기는것이  
우리 녀인네들이 아닙니까

나도 그랬습니다  
군복 입고 집을 떠난 영옥이가  
무재봉의 구호나무를 지켜  
불속에 한몸 주저없이 내뒀을적엔

얼굴에 상처를 입은 애라도  
내 딸이라 말하기가 땀뻗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앞길이 시작인 딸애의 장래를 두고  
생각보다 고민이 컸고  
녀성으로 일생을 그렇게 살 그 애를 보면  
속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걸을 낳는다고 했지만  
두번다시 줄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영옥이가 한창 컸던 그때보다도  
더 고운 얼굴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도 있습니까  
사람은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을 못 잊는다고  
한생토록 그 사랑에 숨결을 잇고 살  
우리 영옥인  
경애하는 아버지장군님의 딸입니다

## 바다가의 해당화

홍영순

해쑥은 바다 초소길에 나서니  
꽃잎 잎잎에 아침해살 머금고  
나를 반겨 마주웃는 해당화  
아, 해당화

소중해라 그 모습  
꽃잎을 사연 이 가슴에  
끝없이 속삭여주는  
정다운 그 모습

그날도 이맘때  
우리 장군님  
바다가 나의 초소 찾아오시며  
가까이 나를 불러 세워주시며  
뜻깊은 사진도 찍어주셨지

해당화는 향기로운 꽃이라고  
참으로 아름다운 꽃이라고  
이 바다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몸소 그 향기도 맡아보셨지

그날부터 아 그날부터

내 가슴속에  
언제나 피고피여  
향기를 풍기고풍기는 해당화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 장군님  
그날의 그 영상 어리어오고  
뜨거운 그 사랑 향기로 넘쳐나  
이 가슴 맹세로 불타오르나니

사나운 파도가 밀려와도  
한번 뿌리내린 바다가를 떠나지 않는 꽃  
불파도가 밀려와도 그 모습 잃지 않을  
우리 장군님 따르는 내 마음의 꽃이어

사나운 비바람도  
꽃잎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떡장구름 밀려와도  
그 향기 흐리우지 못하게  
총대로 지켜갈 내 나라의 꽃  
아, 해당화  
바다가초소의 해당화



# 들국화 향기

림병순

우편물을 실은 렬차가 국경역에 도착하여 한시간이 지나면 우리 집 대문앞의 신문통에는 어김없이 그날의 신문이 꽂혀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것은 례외로 되지 않았다.

내가 제일 기다리는 아침일과의 하나가 바로 이 시간이였다. 마당청소를 하고 그날의 신문을 펼쳐드는 그 순간의 심정을 무엇이라 표현할수 있을는지?... 격동적인 사변들과 고결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충만한 신문을 보느라면 자연히 우리가 사는 이 선군시대에 대한 더없는 긍지와 함께 깊은 사색에 잠기면서 생에 대한 그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것이다.

그것이 이제는 나의 생활에서 오래동안 계속되면서 어느덧 하나의 관습처럼 굳어져버리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신문을 가지러 밖에 나갔던 나는 신문통이 비어있는것을 보자 허전한 마음으로 한동안 그대로 서있었다. 맞은켠집 신문통에는 신문이 꽂혀있었다. 아무리 길거리를 살펴봐야 통신원이라고 짐작할만 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누구한테 알아볼 길도 없었다. 그러나 기대를 버리지 않고 대문밖을 드나들었으나 출근시간이 가까와올 때까지 기다리는 통신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부엌에서 밥이 식는다고 독촉을 하던 안해는 이미 밥상을 차려가지고 방안으로 들어간지 오래다.

나는 밥상에 마주앉아서도 마음이 허우룩해져서 기계적으로 수저를 놀리였다. 오래동안 유지되어오던 생활의 질서가 흐트러져버린 실망에서만 아니였다. 공허감뒤에 따라서는것은 통신원에 대한 야속한 생각이였다. 한번도 본적이 없는 통신원이였다.

《아니, 뭘 그렇게 실망하는거예요?》

안해는 나를 보는것이 저으기 민망스러운 모양이였다.

《통신원이 너인이라지?...》

《그래요 어서 드세요. 신문이야 후에 봐도 될게 아닌가요.》

하지만 통신원에 대한 고까운 생각은 좀처럼 가셔지지 않았다. 그것은 사업이 어떻게 되든 제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맡은 일을 등한시하고있는 일부 사람들에게 대한 불만이였다. 통신원에 대한 나의 감정도 다를바가 아니였다.

《허참 한심하다니까... 제집일이라면 안그러겠지?...》

그러자 시들하게 마주보는 안해의 입에서는 어느덧 가벼운 한숨까지 새나왔다. 그것이 집살림을 안해한테 맡겨놓고 그저 일밖에 모르는 남편에 대한 칭원임을 왜 모르랴.

《아무렴 당신처럼 제집살림에 무관심한 사람이 어데 있겠어요? 당신이야 밥을 한끼 건네는 한이 있어도 신문을 보지 않고서는 못견디는 사람이 아닌가요?》

나는 그저 허허 하고 열적은 웃음을 지으며 무심히 나물채를 집어먹다 말고 안해를 바라보았다. 약간 데쳐서 양념을 한 미나리나물채는 입안에 들어가자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대번에 구미를 돋구었던것이다.

《여보, 당신 오늘 특식을 하였구려.》

《특식은요? 당신이 요즘 입맛이 떨어진것만 같아서 건설장에 나갔다오는 길에... 안됐어요.》

안해는 오히려 죄스러운듯 조용히 눈길을 내리였다.

일껏 나물채를 장만한것이 송구스러운 모양이였다.

《나야 미나리채만 있으면 물고기반찬도 돌아보지 않는다는걸 당신도 알지 않소.》

《그럼 많이 드세요.》

미나리채에 입맛이 동하여 오래간만에 밥그릇을 다 냈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출근차비를 서둘렀다.  
《저… 당신하고 한가지 의논할 일이 생겼어요.》

《?…》  
안해는 밥상을 거두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약간 망설이는듯 한 안해는 다소 심중한 기색이었다.

《…요즘 군민발전소건설장에 나가면서 전 부끄러웠어요. 우리 고장을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려주겠다고 애쓰는 건설자동무들에게 무엇 하나 해준것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말끝을 얼버무리고 잠시 생각을 굴리던 안해는 별안간 이제부터 돼지를 길러야겠다는것이였다.

뜻밖이였다. 직장에 나가면서 잠시간이 생기기만 하면 극성스럽게 건설장에 찾아가던 안해였다.

《당신이?… 일을 다니면서 꽤 길러내겠소?》

《물론 힘이야 들겠지요. 하지만 남들이라고 힘이 안들겠어요. 전 남들이 돼지를 길러서 건설장에 보내줄 때마다 낫이 뜨거워져서 견딜수가 없어요. 당신이 좀 도와준다면…》

안해의 결심은 확고하였다.

나는 허구프게 웃어버리였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집살림에 무관심한 남편에 대한 칭원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안해가 더없이 미덥고 돈우보이기까지 하였다.

《당신 결심을 잘했소.》

《그렇다면 저의 마음도… 고마워요.》

몹시 혼연해진 안해는 이렇게 말하며 서슴없이 돼지우리를 지울 생각까지 털어놓는것이였다.

나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신문을 받아보지 못하여 서운하던 마음은 안해한테서 받은 충격으로 하여 가뭇없이 사라지고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그날 저녁이였다. 지루하게 계속되던 장마가 걷히는듯 날이 개이더니 한낮이 지나서부터 구름이 밀려오면서 후둑후둑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변덕스러운 날씨였다.

대문안으로 들어서니 안해가 토방우에 판자들을 꺼내놓고 톱질을 하느라고 야단이였다. 돼지우리를 지울 나무들인 모양이였다.

《허참, 이거 콩밭에 서술을 치겠군…》

《돼지우리부터 지어야 새끼를 가져다 넣을게 아닌가요?》

나는 가방을 방안에 들여다놓고나서 인차 안해의 손에서 톱을 넘겨받았다.

《당신은 들어가 밥이나 짓구려.》

《그럼… 부탁해요.》

하늘은 잔뜩 흐렸지만 날씨는 여전히 무더웠다. 아마도 한소나기 퍼부를 모양이였다. 굵은 비방울이 톱질을 하느라 한껏 달아오른 어깨며 이마를 시원히 튕겨 주었다.

얼마후 땅거미가 진 대문밖에서 누군가가 찾는 목소리가 들리였다.

부엌에서 밥을 짓던 안해가 급히 대문밖으로 나가자 밖에서는 한동안 너인들이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리였다.

이윽고 마당안으로 들어선 안해의 손에는 뜻밖에 신문이 들려있었다.

내가 의아해하자 안해는 신문을 내앞으로 내밀면서 통신원이 찾아왔었다고 알리였다. 오늘 급한 사정이 생겨서 신문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게 하였는데 한부가 남아있었다는것이였다.

《어느 집이 빠졌는지 알수가 없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확인을 하고있는 길이라지 않아요.》

《아니, 이 저녁에…》

《통신원아주머니는 몹시 미안해하며 사과까지 하더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것이라고 다짐까지 하는게 아니겠어요. 글썄 신문 한부가 뭐길래…》

나는 방에 들어와 신문을 펼치였으나 왜서인지 글줄들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순간이나마 통신원의 성실성에 의심을 품었던탓이었던지도 몰랐다.

《신문 한부라도 남았다면 자기들에게는 사고라는군요. 정말 쉽지 않은 아주머니지요.》

나는 전기에 감전되듯 가슴이 찌르르해났다.

알지도 보지도 못한 생면부지의 녀인이였다. 신문 한부를 위해 저녁 늦도록 찾아다니던 통신원을 나무람하던 생각을 하니 거북스럽고 얼굴이 다 화끈거리어다.

나는 자리에 누워서도 가슴을 누르는 자책감으로 하여 잠이 오지 않았다. 오랜 세월 변함없이 유지해온 자신의 생활질서가 바로 그 통신원의 성실성에 의하여 담보된것이 아니였던가?

그 일로 하여 나는 신문을 펼칠 때면 통신원에 대한 류다른 심정에 잠기곤 하였다. 지금까지 나의 생활에서는 전혀 관심밖에 있던 통신원이였고 더구나 그들의 수고에 대하여서는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통신원은 아직도 부족한 생활속에서도 조금도 자기 궤도에서 탈선됨이 없이 맡은 과업을 드팀없이 해나가고있었다. 그래서 받아안은 충격과 뉘우침이 더 컸는지도 몰랐다.

통신원을 만나면 수고한다는 말이라도 한번 해주고싶은 간절한 심정이였다. 그래서 하루는 시간이 가까와 오자 대문밖으로 나갔더니 뜻밖에 나

의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기다리던 통신원이 아니라 열서너살이 됐을상실은 소년이었던것이다.

신문 한부를 들고 대문앞으로 바삐 달려온 소년은 날째게 신문을 꽂아놓고 지체없이 걸음을 돌리었다. 애리애리한 두볼에는 땀방울이 맺혀있었다.

나는 어리둥절하여 소년의 거동을 지켜보다 따라가서 소년을 불러세웠다.

그는 까만 눈동자를 굴리며 나를 말끄러미 올려다보았다. 바쁜 걸음을 멈춰세운것이 어딘가 불만스러운 모양이었다.

《어떻게 네가 신문을 가져왔나?》

그러자 소년은 덧이가 귀엽게 박힌 입언저리에 수줍은 웃음을 지으며 길 저쪽을 가리키는것이였다.

얼마 떨어진 길로 통신원가방을 무겁게 멘 젊은 녀인이 걸어왔다. 통신원인 모양이었다.

《너의 어머니냐?》

《아저씨도 참. 저렇게 젊은 아저씨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겠나요. 정말 우습네.》

소년은 입에 손을 대고 깔깔 웃어댔다.

《우리 어머니가 아파서... 저아저씨가 대신...》

《음... 그럼 너의 어머니가 여기를 담당한 통신원이냐?》

소년은 대답대신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사이 통신원이 가까이로 다가왔다.

소년은 싱긋이 웃으며 젊은 통신원에게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우리 반장동지는 오늘 몸이 불편해서 제가 대신에...》

《네...》

《전 통신원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데다가 이 지구는 전혀 파악이 없지요 뭐.》

그러면서 젊은 통신원은 반장이 그려주었다는 락도를 보여주었다. 락도에는 큰길은 물론 좁은 골목까지 그려져있을뿐만아니라 신문통이 있는 위치며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적혀있었다.

《이렇게 락도까지 그려주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영남이까지 뒤따라 보냈구만요. 우리 반장동진 신문 한부라도 잘못 배포할가봐 늘 마음을 쓴답니다.》

《난 이 마을을 손금보듯 환히 알거든요. 그래서 길안내로...》

소년은 해죽거리며 너스레까지 부리였다.

나는 소년의 머리를 말없이 쓰다듬으며 단숨을 내쉬었다. 참으로 성실한 녀인이였다. 정녕 인간이 발휘할수 있는 성실성에서는 결코 직업의 귀천이 따로있는것이 아니였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성실성을 두고 조국에 바치는 량심의 무게라고

하였던가?

나는 담당통신원의 소행에 깊이 감심되어 불현듯 그 이름을 물어보았다. 내 혼자 감수하고있기에는 녀인의 소행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던것이다. 나의 직업상 특성으로 해서였을가? 결코 그래서만은 아니였다.

젊은 통신원의 입에서 《한금녀》라는 말이 나오자 나는 놀라 대뜸 눈시울을 치켜올리였다.

《혹시 애어머니가 그전에 인민군대에 복무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어머니는 제대군인이예요.》

그 소리에 나는 소년의 얼굴에서 처녀간호원의 모색을 찾아보려고 이모저모 살피보았다. 하지만 20여년이 흘러간 오늘에 와서 그것은 어딘가 부질없는 일이었다.

내가 집주소를 물어보자 소년은 뒤더수기를 쓸 어만지며 먼구스러워하더니 길 저쪽으로 총총히 달아나버리였다.

나는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서 끝없이 떠오르는련상의 물결에 실려 멀리 흘러간 추억의 기슭으로 거슬러갔다.

간호원 한금녀는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수수한 이름을 가진 처녀였다. 모습도 류다른데가 없이 그저 수수하였다. 그는 들꽃을 각별히 사랑하였다. 그가 담당한 환자들의 침상결에는 언제나 싱그러운 들국화들이 피여있었다. 병동주변에는 꽃밭들이 꾸려져 다리아며 장미같은 아름다운 꽃들이 한창 피어나고있었지만 그는 꽃밭의 꽃을 꺾어오는 일이 한번도 없었다. 그래서 환자들은 간호원이 원래 화려한걸 싫어하는 처녀라느니 들국화처럼 억센 의지로 병을 이겨내기를 바라서 그런다느니 하면서 제나름으로 간호원의 소행을 두고 수군거리였다.

한번은 주변의 산기슭에서 들국화를 꺾어다 꽃병에 꽂고있는 간호원을 보자 나는 이렇게 물었다.

《가까이에도 고운 꽃들이 많은데 또 그런 들꽃을 꺾으려고 산에 갔겠소?》

간호원은 조용히 두볼을 붉히였다.

《소대장동지, 꺾지 않다고 타하는게 아니예요? 대신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향기야 들꽃에만 있는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자연의 싱그러운 향기를 풍기거든요. 그리고 찬서리가 내려도 들국화는 시들지 않고 꽃꽂이 피여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꽃이 아닐가요?》

비록 화려하지는 못해도 자연그대로 싱그러운 향기를 풍기며 억세게 피여있는 들국화였다. 사실

나의 침상옆에는 언제나 들꽃이 피어있었지만 내가 감수하는것은 그보다 간호원이 풍기는 마음의 향기였다. 동통이 와서 시달리다가도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순식간에 동통이 멎고 기분이 밝아지는것이 이상하였다. 그럴 때면 환자들은 병글거리며 소대장동무에게는 들꽃향기에 취하는것이 명약처방이라고 통말을 던지곤 하였다.

다만 내가 유감스러운것이라면 자기 담당간호원의 노래소리를 들어보지 못한것이였다. 노래를 부르라면 대뜸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울상이 되기까지 하였다. 그때마다 나는 그 모양이 보기가 민망스러워 나중에는 스스로 그 요청을 철회하고 오히려 간호원을 위안하기까지 하였었다.

그러던 간호원이 혼연히 노래를 부른적이 있었다.

그날은 나의 침상옆에 있는 중사(당시)동무의 수술이 있는 날이였다. 군사분계선에서 적들의 도발을 저지시키다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온 그의 부상은 악화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었다. 그런것만큼 중사동무에게는 아주 운명적인 수술이였던것이다.

환자들은 긴장되어 그의 수술이 성과적으로 끝나기만을 기다리였다.

장시간의 수술끝에 그는 간호원이 미는 밀차에 실려 호동안으로 들어섰다. 환자들이 일시에 환성을 지르며 밀차옆으로 모여와 저마다 위안을 하며 야단이였다.

그러나 그의 다리에 눈길미치자 환자들은 말문이 막히고 분노로 하여 얼굴들이 세차게 이그러지고말았다.

끝내 중사는 한다리를 잃었던것이다. 무슨 말로 그를 위안할수 있을것인가?...

병동에는 잠시 납덩어리와 같은 무거운 침묵속에 잠기였다.

그것을 느끼자 중사는 간신히 입가에 엷은 미소를 짓고 환자들을 둘러보았다.

《동무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난 비록 한다리를 잃었지만 오른다리와 두팔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면 얼마든지 혁명을 계속할수 있습니다. 원썬들을 쳐부실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 흐려진 고인 물처럼 병동안의 분위기는 좀처럼 가셔질줄을 몰랐다.

중사는 밀차를 잡은채 환자들을 애타게 바라보고있는 간호원에게 노래를 불러줄것을 요청하였다.

그 소리에 간호원은 하나의 주저감도 없이 환자들을 쭉 둘러보더니 목청을 돋구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몹시 떨려나오는 목소리는 끊지 못하였다. 그러나 박자마다 자기의 내심을 담아

부르듯 힘을 넣으며 손을 흔드는 간호원의 노래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던 병동안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정화시켜놓았다. 환자들이 노래를 따라부르자 병동안에는 본래의 생신한 활력이 소생되였던것이다.

그후 나는 한금녀가 안겨주는 들국화꽃뭉음을 흔들며 병원을 나섰던것이다.

그 간호원이 바로 다름아닌 통신원이라는 예감에 나의 가슴은 견잡을수 없이 부풀어올랐다. 병동에서의 생활은 비록 길지 않았으나 그가 남긴 흔적은 들국화향기처럼 늘 나의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간호원처녀와 통신원은 하나의 인물로 인식되면서 그에게로 쏠리는 마음은 녹쫓힐수가 없었다.

나는 어서 그를 만나고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집주소를 알아가지고 일요일 이른아침에 한금녀를 찾아갔다. 그의 집은 강변에서 멀지 않은 마을에 있었다.

집앞에 이르자 나는 조용히 널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섰다.

방안에서 신문을 읽는 목소리가 새나왔다. 낮고 차분하면서 구절마다 력점을 찍어가며 읽고있는 녀인의 목소리였다.

나는 한자리에 서서 그 목소리에 귀를 강구었다. 시내물이 흘러가듯 맑고 포랑포랑하던 그전날의 처녀간호원의 정겨운 목소리를 찾아보거나 하려는듯...

방안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정겨웠으나 어딘가 모르게 음색이 좀 꺼칠하였다. 세월이 목소리마저 변화시킨 모양이였다.

《아버지, X X산이면 아버지가 지키고있던 초소가 아니냐요?》

어린 아들이 묻는 말이었다. 분명 짧은 통신원의 길안내로 왔던 그 소년의 목소리였다.

《그래 우리 장군님께서 내가 썼던 최전연초소를 또 찾으셨구나.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모양으로 되었으니...》

굵고 저력있게 울리던 목소리는 물동처럼 터져나오는 걱정예 그만 삼켜버리고말았다.

녀인이 그러는 남편에게 진정하라고 살뜰하게 위안을 하였다.

《여보, 그만하세요. 그래도 당신은 불편한 몸으로 병사들을 위한 노래를 짓지 않나요.》

나는 뜻밖의 놀라운 예감에 숨을 한껏 죽이였다.

이윽고 남편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여보, 신문에 우리 장군님의 영상이 모셔졌겠지?》

《그럼요. 병사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도 있고

감시소를 돌아보시는 영상도 모셨어요.》

어머니의 말에 이어 어린 아들의 또렷한 목소리가 뒤따랐다.

《아버지, 그리고 중대예술소조공연을 보시는 사진도 있어요. 북을 치면서 하모니카를 부는 장면인데요 아버지장군님께서 웃으시며 박수를 쳐요.》

《그래...》

이어 방안에는 다시 엄숙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나의 가슴을 마구 옥죄어왔다. 예감은 어느덧 인화지에 살아나는 한쪽의 사진처럼 나의 눈앞에 생생히 떠올랐다. 분명 전연초소에서 적들과의 전투에서 시력을 잃었을 남편과 신문을 읽어주고있는 한금녀, 실로 상상하지조차 못하던 현실앞에서 나는 숨소리를 죽여왔다.

한금녀, 언제나 생신한 들꽃으로 부상병들에게 삶의 향기를 뿌리고 피를 바치던 처녀간호원은 오늘은 남편의 두눈이 되고있었다.

나의 눈곱에는 절로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나자신도 가늠할수 없는 불덩어리같은 정희가 한가슴에 그들먹이 차오르면서 씹없이 깊은 생각을 몰아왔다. 이 자그마한 방안에는 얼마나 준엄한 생활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적들이 이 가정에 남긴 상처는 그토록 크고 모진것이였다. 적들의 준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 녀인들의 가슴속에는 결코 따뜻한 한가정의 안락이나 행복만이 깃들수는 없었다.

그것을 립증이나 하듯 안해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그 험한 산밭을 넘으시면서 췌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겠지요? 우리 장군님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나는 고개를 깊이 떨구었다. 언젠가 통신원을 잡시나마 잘못 생각했던 그 자책보다 어제든 오늘도 오직 우리 장군님만을 믿고 한생 그이의 선군령도를 받드는 길에서 하나의 헛디딤도 없이 걸어나가고있는 한금녀가 그전날의 처녀간호원보다 비할수 없이 더 돋우보이고 강한 모습으로 안겨왔기때문이었다.

잠시후 어머니가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한테 신문을 다 읽어드리라고 당부하자 소년은 몸이 아픈데 좀 누웠다가 가라고 어머니를 만류하였다.

《안된다. 오늘 신문은 여느날과 다르다. 빨리 신문을 배포해야겠다. 모두 오늘신문을 기다리고 있을게다.》

처녀시절 환자들에게 조국의 생신한 들국화향기를 풍기며 헌신하던 그는 오늘은 선군시대의 거창한 숨결을 향기마냥 집집마다 풍겨주고있는 것이였다.

방문이 열리면서 한금녀가 토방으로 나섰다. 한쪽 어깨에 우편물가방을 둘러메고 약간 비청거리 는 걸음으로 내려선 그는 나를 보자 한자리에 서서 의아쩍은 눈길을 던지였다.

나는 녀인의 모색을 살피였다. 반듯한 이마에 곱게 휘여든 눈썹, 그사이로 상큼하게 내려그은 코마루, 어딘가 도담스러운 모습이였다.

그도 한동안 묵묵히 나를 지켜보았다.

나는 눈시울을 한층 쪼프리고 녀인의 모습에서 옛 간호원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오랜 세월이 그토록 변모시켰는가? 가름한 얼굴이며 꼭 다물린 입모습... 아무리 보아도 생소하였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는 선뜻 무어라고 대답할수가 없어 망설이고 있는데 아들이 나를 알아보았다.

《혹시 또 신문이 잘못되었는가 보지요?》

《아니, 그런게 아닙니다.》

《전번엔 제가 그만... 안되였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급히 두손을 내저였다. 용서를 빌어야 할 녀인한테 오히려 사과를 받고보니 정말 몸둘바를 몰랐다.

《아닙니다. 용서는 제가 빌어야 합니다. 제가...》

나는 거듭 사과를 하고 몇마디 이야기를 나누고나서 걸음을 돌리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나는 깊어지는 상념에 잠기였다. 그처럼 만나보고싶던 통신원은 생소한 녀인이였으나 간호원의 모습은 통신원의 모습에 겹치면서 하나의 생각을 자아냈다.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모진 광풍이 몰아친대도 변함없는 자기들의 고유한 색깔과 생신한 향기로 자연의 정서를 한층 돋구고 생기를 주고있는 들국화에 비할수 있을는지?... 그것은 나라를 묵묵히 떠받들고있는 조선녀인들의 수수하고 역센 모습이였다. 그것이 어찌 간호원이나 통신원뿐이겠는가? ... 나의 생각은 얼마전에 미나리채를 만들어놓고 오히려 송구스러워하던 안해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더욱 깊어졌다. 지금까지는 전혀 레사롭게 여기던 안해가 오늘처럼 류별나게 생각되기는 처음이였다. 사실 요즘처럼 미제의 새로운 침략책동으로 하여 정세가 긴장해지는 때에 남모르게 갖은 어려움을 묵새기며 수고를 하고있는것은 뉘니뉘니해도 한가정을 맡고있는 안해들이였다.

기대를 안고 찾아갔던 간호원 한금녀는 만나지 못하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나의 마음은 조금도 서운하지 않았다. 그것은 통신원의 모습에서 지난날의 간호원의 모습만이 아니라 변함없이 애국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고있는 수많은 오늘의 한금녀를 보게 된 기쁨에서였다.

## 민주선전실의 트랙 (외 1 편)

백 하

솔향기 그윽한  
소나무들을 울타리로 두르고  
승엄하니 서있는  
락원의 민주선전실

정갈한 트랙에 내 섰노라  
전화의 날은 아득히 흘러갔어도  
오늘도 그대로 흰종이 엇갈려 붙인  
창문마다에선 수령님 음성  
찌렁찌렁 울려나오는듯

보여오누나 나의 눈앞엔  
수령님을 모시고  
함께 나오신 어리신 장군님  
방공막을 내린  
선전실 문앞에 서시어  
올려다보신다 적기소리 떠도는 밤하늘을  
-항공감시를 잘하여야겠습니다.

어디선가 폭격의 둔중한 소리  
먼 사이렌소리  
장군님은 선전실두리를 돌고도신다  
창문에 불빛이 새지 않는가  
온넛은 오직 그 한생각

수령님 주물공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당세포총회를 지도하고계시거니  
무시로 불기둥이 솟는  
엄혹한 전쟁의 한밤을  
장군님 한몸에 맡아안으시고  
수령님의 안녕을 지키시여라

못잊을 새 조국건설의 밤  
어머님과 함께 찬이슬 맞으시며  
수령님 창문앞을 지켜서시였던  
저택트랙의 그밤이  
여기에 다시 이어졌는가

어두운 밤  
머리우엔 때없이 신호탄이 오르는데  
적기의 폭음은 쉽없이 떠도는데  
10대의 그 나이에  
수령결사옹위의 크나큰 위업을  
한몸에 지니시고  
결연히 서계신 우리 장군님

오, 가슴 뜨거운 트랙이여  
락원의 민주선전실 트랙이여  
내 여기 서서 생각하노니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들  
락원의 10명당원이  
이 트랙에서 자라났구나

## 내 삶의 정거장

인생의 길은 멀고  
풍랑도 있어라  
허나 우리의 머리우엔  
가장 정답고 자랑찬  
신념의 글발이 얹혀있어

이른새벽 통근렬차에서 내릴 때  
저물녘 역나들문을 나설 때  
우리는 버릇처럼 쳐다본다  
정다운 그 글발-포항

불러보면 음악처럼 울린다  
새겨보면 가슴뜨거이 젖어든다  
이 세상 가장 순결한 랑심으로  
우리 당을 받든 그 이름

때로 먼 출장길에 올라도  
즐거운 휴양길에 올라도  
나들문에서 우리는

자랑스레 내민다  
포항 그 이름이 찍힌 차표를

그것은 락원사람이란 뜻  
그것은 당에 가장 순결했던  
10명당원의 고향이란 뜻  
그것은 가장 높은 긍지와 영예

인생길은 멀고  
정거장도 많아라  
허나 우리 떠나는 역은 포항역  
우리 돌아오는 역도 포항역

아, 내 삶의 정거장은 포항역  
우리 장군님 크나큰 믿음으로  
높이 달아주신 그 이름  
수령결사옹위의 그 이름을  
우리는 한생  
머리우에 이고 사노라

# 강대나무의 넋

전동혁

죽어도 서서 죽는 넋을 안고  
너 오늘도 곳곳이 서있구나  
백두밀림의 이깔나무숲속에  
머리 높이 치여든 강대나무야

비바람 눈보라에도 변함없이  
푸른 숲바다에 거연한 모습  
죽어도 정녕 쓰러지지 않는  
오, 너의 모습은

이 나라 빨찌산들 그 모습 아니더냐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기 위하여  
비발치는 탄우도 일떠서 막고  
죽음을 앞에 둔 교수대에서도  
승리의 그날 믿어 머리 높이 쳐들던

적기가의 구절구절이 가슴을 친다  
세월의 눈바람에도

준엄한 포연에도  
죽어도 무릎을 꿇지 않고  
성스런 항일의 전장에 거연히  
창검같이 솟아있는 나무여

한목숨 내대고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내 설사 쓰러진다 해도  
선군의 붉은기 우러러 곳곳할  
피끓는 맹세 너에게 부치노니  
살아 내 백두밀림의 이깔이 되리라  
죽어 내 백두밀림의 강대가 되리라

오, 백절불굴의 네 모습에  
혁명가의 영원한 삶이 있음을  
오늘도 뜨겁게 깨우쳐주며  
항일의 피어린 전장에 거연히 서있는  
백두밀림의 강대나무여!

# 추억할 권리

리 준

그대와 나  
누구나 지나온 한생을 두고  
추억할 일도 많으련만  
걸어온 자욱 땀뿔이 돌이켜볼 권리  
아무에게나 똑같이 차례지는것이라

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며  
바친 열정 흘린 땀방울  
그 얼마나 뜨거웠는가를  
그 얼마나 깨끗했는가를

행복한 날과 날  
순풍만을 안고 걸어왔다면  
얼마나 쉽게 말할수 있으랴  
걸어온 자욱자욱  
결코 한번도 헛디딘적 없었노라고

하지만 아직은  
끝나지 않은 시련도 헤쳐야 할 길에  
한자욱 두자욱...  
수혈치 않아라, 오늘의 삶을 돌이켜  
래일앞에 땀뿔이 서기란

저기 뻗어가는 천길 지하막장에  
저기 높아가는 발전소언제밀에  
애국의 순간순간을 고임돌로 놓으며  
감자꽃 피는 이랑이랑에

더운 숨결 더운 맥박을 거름으로 묻으며

내 잠시나마  
자식들을 어려운 길에 내세우길  
서슴은적은 없었던가  
선군의 그늘밑에서  
가정의 안락을 먼저 생각한적은 없었던가

만약 잠시라도  
조국보다 먼저 가정을 생각하며  
더 조여야 할 신들메 늦추게 된다면  
그것은 한생의 치욕  
이제 이 땅에 솟아오를 강성대국을  
그 어이 땀뿔이 바라볼수 있으랴

바라볼수 없으리  
높이 솟아 빛날 내 조국의 눈부신 그 모습을  
오늘에 바친 삶이 땀뿔치 못하다면  
량심의 구멍 우뢰처럼 심장을 울려  
스스로 머리를 들수 없으려니

아, 자신을 위해 사는 삶에  
그 무슨 돌아볼 권리 있으랴  
한생을 변함없이  
조국에 진정을 바치고  
량심을 바친 사람들만이  
땀뿔이 추억할 권리 지닐수 있으리!





# 과품을 밝히려

리금철

아직은 까리양시에 닥쳐올 무서운 재난이 공해되지 않았다. 다만 국제지질학회의 고찰단이 이곳 까리양시의 주변에서 나타나고있는 이상한 지각현상을 관측하고는 앞으로 가까운 기일내에 뭔가 큰 재난이 도시에서 일어나리라는것을 예감했을 뿐이었다.

고찰단의 이 예감을 접한 까리양시장 다니엘 롬센은 마음이 몹시 불안하였다.

정말로 까리양시에 재난이 생기겠는가? 생긴다면 그건 어떤 재난인가...

하여 그는 몇년전에 지질연구차로 이곳 까리양시에 한동안 해외출장을 와있은적이 있는 평양의 유옥영교수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도움을 청하였다.

며칠후 롬센시장은 까리양시교외의 국제비행장에서 너교수의 분석자료를 가지고 도착한 두 젊은 남녀연구사들을 마중하였다.

×

... 이국의 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음산한 밤이다.

그 밤하늘 어데선가 퇴성이 울린다. 이어 간단없이 번쩍이는 푸른 섬광, 그때마다 적막속에 묻혀있는 까리양시의 전경이 환히 드러나보인다.

남방특유의 고층살림집들과 각이한 모양의 건축물들, 사원의 탑들... 바다쪽에서 불어쳐오는 광풍에 애처롭게 몸부림치고있는 밤거리의 야자나무들은 그 모습이 참으로 처절하였다.

갑자기 땅속에서 웅글은 소리가 터진다.

꾸르릉- 쿵!- 쿵!-

련이어 계속되는 무시무시한 그 굉음과 함께 까리양시의 지층이 부르르- 흔들린다.

한번 또 한번...

삽시에 잠을 깬 밤도시는 아비규환으로 화한다.

밤하늘에 울리는 비상경보의 고동소리, 사방에서 터지는 사람들의 고함소리, 비명소리... 나자빠지는 고층살림집의 높다란 벽체, 먼지를 일구며

무너져내리는 건물들...

까리양시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해상의 구와트 섬근방에 진앙을 둔 리히터척도 7.5의 이 지진은 파괴력이 실로 대단하였다.

련속되는 강한 지진으로 여기저기에서 넘어지고 허물어지는 건물들과 시설물들...

이번엔 바다에서 해일이 무섭게 덮쳐든다.

썩!- 썩!-

10여메터의 높이로 일어난 바다물까지 밀려와 휩쓸어놓은 도시의 광경은 참으로 비참했다.

황포한 자연의 광란으로 순식간에 엉망이 된 까리양시.

추산되는 사망자수와 피해액은 천문학적수자에 이른다.

실로 참혹하고 엄청난 자연의 대재난이다.

...

박은식은 컴퓨터의 마우스에서 맥없이 손을 떼구었다. 때이르게 잔주름이 건너간 젊은 연구사의 넓은 이마에는 벌써 식은땀이 흥건히 내배여있었다.

《박선생...》

옆에 앉아있는 롬센시장이 가볍게 목소리를 떨었다.

컴퓨터화면에 비쳐지고있는 까리양시의 파괴상을 지켜보는 시장의 두눈에는 공포와 비애가 한가득 실려있었다.

《...과연 저것을 믿어야 합니까?》

박은식은 대답대신 미간을 찌프리며 지그시 두눈을 내려감았다. 이곳으로 떠나올 때 이미 유옥영교수한테서 이야기를 들어 전혀 예상 못한 사태는 아니지만 막상 이국의 도시에 닥쳐올 재난이 너무도 비참하여 젊은 연구사는 가슴이 허비여졌던것이다.

그의 등뒤에 서있는 선아(그는 유옥영교수의 외동딸이다.)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채 오돌오돌 몸을 떨고있었다.

방안에는 또한 국제지질학회의 고찰단성원으로 이곳 까리양에 와있는 여러 나라 학자들이 모여 컴퓨터의 화면을 지켜보고있었다.

화면에는 여전히 지진으로 폐허가 된 까리앙시의 광경이 비쳐지고있었다.

까리앙시에로 닥쳐올 무서운 재난, 그것은 바로 대지진이었다. 지금 화면에 비쳐지고있는것은 앞으로 20여일후 이곳 까리앙시에서 실제로 빚어지게 될 대지진의 참변을 3차원화상으로 재현한 모의현실인것이다. 유옥영교수의 분석자료를 가지고 이곳에 온 박은식과 선아가 구와트섬근방의 지층속에서 나타나고있는 이상한 열대류현상을 관측하고 연구하기 시작한것은 달포전부터였다.

최첨단관측기재들은 지구내부의 중간권에서 엄청난운동을 하는 만틀(액체와 고체의 중간상태인 용융물)이 위로 서서히 떠오르면서 거대한 량의 열에너지를 지층에 전달하고있음을 알려주었다.

관측기들의 정보체계를 거쳐 송달되어오는 모든 자료들을 해석하여보면 오는 9월 4일에 만틀의 열대류로 모호면(지층과 만틀의 경계면)에 에너지를 최대로 축적되어 물질의 파괴력에 이르게 된다. 우연적인 현상이지만 그날은 달이 근지점을 지나는 때이고 또 태양과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대사리이므로 천체들의 미세기힘이 모호면의 축적된 에너지를 터뜨릴수있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한 리치였다.

모든것은 유옥영교수가 분석한 그대로였다.

관측된 만틀의 열대류속도와 그것에 내포되어있는 열에너지 그리고 구와트섬 지층속의 지질상태와 지표면까지의 거리, 대사리때 있게 될 천체들의 미세기힘 등등의 유옥영교수의 분석자료들과 박은식이네의 관측자료, 계산수치들을 입력시키고 진행한 컴퓨터모의시험은 오래지 않아 이곳 까리앙시에 파괴적인 대지진이 들이닥친다는것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지진... 인류는 이 자연의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 재난을 가져오는것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있다.

일본의 간포대지진, 중국의 당산대지진 그리고 칠레에서 일어난 파괴적인 지진...

이제 얼마후이면 까리앙대지진이라는 새로운 참변이 또 이 땅의 지진력사에 기록될것이다.

길게 내뿜는 한숨과 함께 울리는 롬센시장의 목소리가 침울한 방안의 공기를 깨뜨렸다.

《재난은 언제나 뜻밖에 빚어진다더니... 우리 까리앙시도 그런 지진피해를 당하게 될줄은...》

고찰단의 한 학자가 뜨직한 말로 롬센을 위로했다.

《당신네 나라일이 참 안됐습시다. 도시의 수많은 고적들도 다 파괴될테니...》

고찰단의 학자들 역시 닥쳐올 대지진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얼굴빛이 거멓게 죽어있었다.

《후- 그래도 예측을 했기망정이지 술한 인명피

해를 볼번 했소.》

《하지만 빨리 피난책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엔 다른 나라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와있는데...》

한동안 이구동성으로 술렁대던 고찰단의 학자들은 장내의 중압이 지겨운지 하나 둘 무거운 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방안에는 박은식과 선아 그리고 롬센시장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 비낀 어두운 그들은 여전히 가셔지지 않고있었다.

롬센은 한참후에야 은식과 선아한테로 눈길을 들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수십만의 시민들우에 군림해있는 40대의 권력자이지만 몸에 뻐 기개는 간곳 없고 지금의 롬센은 그 모습이 초체하기가 그지없었다.

《역시 당신네들의 과학은 듣던바 그대로군요. 이번에 유옥영교수랑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수십만의 우리 까리앙시민들은 잠자리에서 무리죽음을 당하게 됐을겁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우리 까리앙의 은인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진피해야 역시 피해이지요.》

롬센의 파찬이 도리어 피로운듯 박은식이 또다시 미간을 찌프리며 무뚝뚝히 내뿜는 말이였다.

선아는 그한테로 언짢은 눈길을 주었다.

그러자 은식은 슬며시 고개를 돌리였다.

선아는 이번엔 롬센한테로 눈길을 들었다.

《시장선생,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시민들을 소개시켜야지요. 정부에 통보해서 까리앙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하구...》

말끝을 얼버무린 롬센은 무겁게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로서는 이제 도시에 닥쳐올 험악한 난국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기가 참으로 피로웠던것이다.

선아도 가늘게 한숨을 내그었다.

《시장선생, 어찌겠어요. 어차피 당해야만 하는 재난인걸... 9월 4일까지는 기일이 촉박합니다. 빨리 지진예측을 공개하고...》

그러자 박은식이 숙이고있던 고개를 쳐들며 처녀에게 짜증섞인 목소리를 터뜨렸다.

《공개나 해선 뭘한다는거요?》

《시민들을 피난시켜야지요.》

은식은 움쭉 몸을 뒤채이며 선아한테로 고개를 돌리였다.

《그렇게 해서 도시주민들의 생명은 구원한다 침시다. 그다음 까리앙의 술한 재부는 어떻게 한다는거요? 살림집들과 건물들은 모두 무너지고 도시는 파괴되구...》

선아의 표정은 갑자기 싸늘해졌다.

《동문 정말...》

박은식의 흥분된 눈길은 롬센에게로 돌려졌다.

《지진관측을 공개하는것은 심사숙고해야 합니

다. 시민들속에서 공포가 생기고 도시에 혼잡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은…》

《참, 평양의 유옥영교수도 당신들의 지진예측을 알고계시는가요?》

롬센이 은식의 말꼬리를 자르며 물었다.

《까리앙의 지진은 이미 교수선생님이 내다보신 겁니다.》

《하긴 그런들 그분이라고 무슨 다른 방도가 있겠습니까.》

롬센은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고뇌가 비껴있는 그의 얼굴은 이 하루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보였다.

## ×

잠들수 없는 밤이었다.

닥쳐올 대지진, 폐허가 될 까리앙시…

온밤을 불안과 고통, 번민으로 지친 롬센시장은 새벽녘에야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채 잠박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 잠 역시 악몽이었다.

별안간 마주 놓인 컴퓨터가 신호음을 울리었다.

눈을 뜬 롬센은 한동안 어리둥절해있었다.

-시장은 까리앙지진예측을 절대 침묵할지어다. 물론 고찰단의 모든 학자들도… 지진은 일어나지 않을수도 있느니라. 《팔라스》-

컴퓨터화면에 현시된 이 전송문을 롬센은 두눈을 비비며 보고 또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도 아니고 꿈은 더우기 아니었다.

《팔라스》, 고대 그리스신화의 여신인 평화와 과학의 보호자.

여신의 그 성스러운 이름을 빌어 까리앙지진예측에 간섭해드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이며 그가 어디서 무엇때문에 이런 험박비슷한것을 컴퓨터로 전송하는지 롬센시장한테는 풀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어쩐지 이것이 불미스러워 그달음으로 박은식이네를 찾아간 시장은 그곳에서도 똑같은 수수께끼와 맞닥뜨렸다.

《허! 그런 전송문은 우리도 받았는걸요.》

《뭐라고요?!》

박은식은 마치도 롬센을 기다리고있은듯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컴퓨터인쇄지를 보여주었다.

-… 안심하여라. 아직은 그것이 가설일 따름이니 그대들은 침묵을 지키고 꼼꼼히 생각해볼지어다. 내 확인하거늘 본질에 작용하는 그 어떤 외적영향이 현상을 달리되게 한다는것이다. 그러니 그대들은 현상의 손님이 아니라 본질의 주인이 되어야 할지이다. 《팔라스》-

전송문을 받은 세사람의 표정과 태도는 각이하

였다.

박은식은 어제와는 달리 침중하던 얼굴에 화기를 띠고있었다. 아마 그는 그것으로 전송문이 가져온 방안의 불안을 가져내려는 모양이었다.

롬센의 표정은 이곳으로 올 때보다 더 사색에 질려있었다. 그는 석상처럼 굳어져 화분의 소철나무우듬지만 묵묵히 응시할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지금 《팔라스》의 전송문이 뿌려놓은 갖가지 의혹과 불안이 삼거웁처럼 뒤엉켜있었다.

본질이니 현상이니 외적영향이니 하며 그 무슨 암시를 해오는 《팔라스》의 지설이 롬센한테는 자기들의 목을 매려는 울가미처럼 느껴졌다.

전송문에 대한 반응이 제일 민감한것은 역시 선아였다. 지금 처녀의 얼굴에는 옅은 공포와 짙은 의혹이 서로 엇바뀌며 비껴지군 하였다.

《은식동무, 〈팔라스〉란 대체 누가가요?》

《글쎄… 아마 고대신화의 그 여신이 환생한가 보오.》

이렇게 대꾸하는 은식의 입가에는 가벼운 미소가 어려있었다.

그러는 은식이한테로 롬센은 눈길을 돌렸다.

《박선생, 여신 〈팔라스〉는 신화의 인물이지만 전송문을 보낸 그 사람의 존재야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지진예측을 알고있을가요? 아직은 우리만이 알고있는것인데…》

《왜 우리뿐입니까. 고찰단의 학자들도 모두 알고있지요.》

《그럼 혹시 그들중의 누가…》

《그렇게 속단할수는 없지만 그들에게도 전송문의 내용을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그들의 대화에 선아도 끼여들었다.

《〈팔라스〉가 어째서 까리앙지진예측에 그렇게 간섭할가요?》

《과학의 신이니까.》

은식은 또다시 빙그레 웃었다.

선아는 은식을 깔끔히 바라보았다. 나타난 불미한 현상을 대하는 그의 혼연한 태도가 도리어 처녀에게는 실없이 느껴졌던것이다.

처녀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은식은 여전히 우선한 표정으로 다시 전송문을 읽어보며 누구에게라없이 중얼거렸다.

《이것을 보니 까리앙지진예측을 달리 생각하게 되오.》

선아는 은식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 물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지진예측이 가설이라는거야 옳은 소리지. 혹시 알겠소? 지진이 정말 일어나지 않을수도 있을런지.》

《?!》

선아는 너무 놀라 한동안 말을 못했다.

까리앙지진에측이 절대불변의 학설이 아님을 시인하는 이 짧은 연구사한테로 롬센시장은 기대 어린 눈길까지 보냈다.

《박선생, 정말 그렇게 될수도 있을까요?》

《만약경우라는것이 있지 않습니까. 〈팔라스〉의 확인대로 그 어떤 외적작용이 예측결과를 달리되게 할수도 있으니까요.》

선아가 은식에게 다급히 물었다.

《그 만약경우란 대체 무엇이예요?》

《아직은 나의 가상일뿐이요. 하지만 모호면에서의 열평형관계는 다르게도 성립될수 있다는것만은 확신하오.》

선아의 표정은 새파랗게 질리었다.

모호면의 열평형관계는 지진예측의 중요한 요인이므로 유옥영교수가 제일 많은 탐구와 계산을 바쳐온 문제였던것이다.

《그러니 동문 저의 어머니가 한 분석안을... 그건 너무하군요.》

《교수선생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는건 거만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소.》

《그러니 동무의 그 확신이 진리라는건가요?》

또다시 둘사이의 분화가 터질것 같아 롬센이 끼여들었다.

《박선생, 그렇게 되면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수도 있다는건데 선생한테는 그렇게 단정할 그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선아 역시 그 근거를 알고싶었다.

《시장선생, 까리앙지진예측설을 다른 각도에서 고찰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롬센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니였다.

하지만 선아한테는 정립되어있는 지진예측설을 아직도 회의적으로 대하는 은식의 그 우유부단이 더 자극되였다.

《까리앙지진은 이미 저의 어머니도 예견하신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모의시험으로도 예측의 현실성이 확증되었구요.》

《그렇다고 예측이 곧 현실은 아니요.》

은식은 선아에게 통명스레 내뱉고는 다시 롬센한테로 눈길을 돌렸다.

《시장선생, 지진예측은 조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피난과 소개를 해놓고 만약 지진이 발생하지 않으면...》

방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롬센의 마음은 착잡하였다.

지진예측을 공개하고 시민들을 소개시켜야 하는가? 말이 소개이지 그것은 공포와 불안, 혼잡과 무질서의 절정을 이룬 도시의 아비규환일것이다.

그다음 만약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은식이 롬센의 상념을 깨쳐놓았다.

《시장선생, 침묵합시다. 9월 4일까지는 아직 기일이 있으니 그사이 우리가 까리앙지진을 다시

고찰하겠습니다.》

《글쎄요. 다시 고찰한들... 선아선생도 같은 생각인지...》

그러나 선아는 새초롬히 두눈을 내려간채 침묵할뿐이였다.

롬센은 무겁게 한숨을 내그었다. 어쩌지 지진예측에 대한 《팔라스》의 간섭이 자기네 까리앙시의 운명은 물론 이 두 연구사들의 관계에도 상서롭지 못한 그늘을 지어놓을것만 같았다.

마음이 피로운 롬센시장은 지그시 두눈을 내려 감았다.

《음- 〈팔라스〉...》

저녁, 이날의 저녁은 별스레 한산했다.

또다시 휘익- 물기먹은 바람이 길가의 야자수 가지들을 휘저어댄다.

깊은 생각에 잠겨 호텔쪽으로 무겁게 걸음을 옮기던 은식은 자기앞에 오도카니 서있는 선아를 띠어보고 멈춰섰다.

《아니? 아직 속소에 안갔소?》

《동무를 기다렸어요.》

《왜? 무슨 일이 있소?》

선아는 은식앞으로 다가와섰다.

《말씀해주세요. 지진예측의 과학성을 이제와서 의심하는 그 이유는 무엇때문이에요?》

《...》

《혹시 〈팔라스〉의 전송문때문이 아니예요?》

《사실이 그렇다면?》

선아는 고개를 외로 돌리였다.

은식의 입에서는 허거픈 웃음이 흘러나왔다.

《불을 끄는데는 결코 깨끗한 물만 쓰이는게 아니요. 아직은 〈팔라스〉의 진모가 불투명해도 그의 암시야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소?》

《그래서 저와 습박꼭질을 하세요? 동문 지금 저에게 숨기는것이 있지요?》

《...》

그들의 머리우에서 후두득-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은식은 하늘로 눈길을 들었다.

꾸르릉-

어데선가 천둥소리가 울리였다.

《허! 이거 한바탕 쏟아부를 잡도리군. 선아동무, 빨리 가시오. 이러다간 한지에서 비를 맞겠소.》

은식은 제먼저 성큼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선아는 그자리에 못박힌듯 움직일념을 안했다.

몇걸음 옮기던 은식은 다시 선아한테로 되돌아와 섰다.

《선아동무, 오해마오. 난 교수선생님의 분석안을 다시 연구하겠소.》

《뭘라고요?! 그럼 동문 저의 어머니를...》

췌-

드디어 폭우가 쏟아져내렸다.  
삽시에 주위는 뽕안 비발속에 묻혀버렸다.

×

대지진의 《시한탄》우에 올라있는 까리앙시의 지진감시소들도 결코 잠을 자고있는것은 아니었다. 감시소의 기사들은 까리앙시 근방의 지층속에서 점점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는 이상한 징후들에 관측기의 초점들을 맞추었고 앞으로 대사리를 이루게 될 천체들의 운동도 불안을 안고 지켜보았다.

도시주변의 여러 구역에서 발생하는 지질현상들의 비정상상을 관측한 그들 역시 드디어 까리앙의 대지진을 내다보았고 이것을 롬센시장에게 먼저 알려왔다.

《난 이미 그것을 알고있었소. 지진발생일은 오는 9월 4일이요.》

감시소의 기사들은 깜짝 놀랐다.

《시장님, 그러면 빨리 도시주민들을 소개시켜야지요.》

《아마 그래야 할가보오. 당신들까지 예측을 했으니...》

《그럼 지진예측을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까리앙지진예측을 공개할수가 없었다. 《팔라스》의 간섭이 그들한테도 미치었던것이다.

-침묵할지이다. 지진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느니라...

처음 감시소의 기사들은 어리둥절해있었다. 그들중에는 그것에 기대를 거는 축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었다. 맹렬한 리성들이 그 기대를 거부해나섰던것이다.

곧 《팔라스》와의 콤퓨터론쟁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지진예측은 과학적이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과학적이란 말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다 더 과학적인 현상이 있을수 있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한테 인식시키라.

-인식은 시간만이 줄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대들은 나의 주장이 옳음을 알게 되느니라.

-우리가 기다린다고 대지진도 함께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평양에서 온 연구사들도 이미 지진을 예측한 이상 까리앙의 재난은 틀림이 없다.

-심중할지이다. 그들도 지금 지진예측을 침묵하고있노라. 그러니 서둘러 소동을 피웠다가 만약 경우 지진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들은 까리앙의 수십만 시민들을 우롱하고 사회적혼란과 공포를 일으킨 큰 죄를 짓는것으로 될것이니 처신을 심중해야 함을 권고하노라.

이 사실을 두고 누구보다 사색이 된 사람은 롬

센시장이었다.

《팔라스》란 대체 누구일가? 그 미지의 인물은 어째서 우리 까리앙의 지진예측을 집요하게 부정해나서는가?...

롬센은 시경찰당국에 《팔라스》의 수사를 지시하였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결과관 역시 막연하였다.

이곳 실정을 제때에 손금보듯 하는걸 박서는 까리앙시에 와있는 국제지질학회의 고찰단속에 있을수 있다는것과 또 어떤 불순한 목적을 노린 해외의 어떤 테로단체일수도 있다고 보는 축들도 있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팔라스》의 간섭으로 지금 까리앙은 이중적인 위협을 받고있는셈이다

선아는 망연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있었다.

마음이 심란한 처녀의 가슴속에는 지금 그에 대한 야속감이 설분을 자아내고있었다.

박은식.

떠나온 평양의 연구소에서는 지금도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별반 많지 않다.

선아 역시 그가 어머니의 제자이고 대학때 자기의 3년선배였다는 정도밖에는...

나이 서른이 다 됐음에도 아직 학위는커녕 이렇다할 연구성과도 없는 평범한 총각연구사.

《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남다른 포부가 있단다. 세계로 나가 세상을 쥐고 흔들어보려는 담이 큰 포부가 말이다.》

박은식과 함께 이곳 까리앙으로 떠나올 때 선아에게 한 어머니의 말이다.

포부가 곧 그 사람의 전체를 의미하는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때 선아는 어머니가 자기대신 은식을 까리앙으로 보내는데 대한 호기심과 함께 은근한 기대도 없지 않았었다.

그런데...

《허! 오늘은 어째서 선아선생이 외비돌기가 뻗습니까?》

상념에서 깨어난 선아는 방안에 들어서는 롬센시장을 띄여보고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박은식선생은 어데 갔습니까?》

《오늘 아침 루바짜로 떠났어요.》

《루바짜? 아, 그래서 그 선생이 루바짜의 열력학 연구소소리를 나한테 했구만.》

《그러니 시장선생과는 이미 이야기가 있었겠군요.》

선아는 서운해진 자기의 심경을 롬센앞에 내보일것같아 창가로 다가섰다.

루바짜란 까리앙과 200키로미터거리에 떨어져있는 과학도시로서 그곳에는 이 나라의 중추적인 과학연구기관들과 기지들이 집중되어있는 곳이다.

물론 박은식이 홀로 그곳에 간데는 자기판의

무슨 목적이 있을테지만 선아는 거기에 자기를 멀리하고 피하려는 그의 속마음도 함께 깔려있음을 모를 처녀가 아니었다.

은식의 이 변화는 《팔라스》의 전송문을 받은 후부터였다.

말 못할 무엇인가를 안고있는듯 한 표정과 태도, 무뚝뚝한 말투...

갑자기 루바씨에 왜 가느냐는 선아의 은근한 물음에도 은식의 대답은 덜통스러운 한마디뿐이었다.

《참관을 가오.》

그는 매양 이런 식으로 처녀의 호기심을 깨뜨려놓곤 하였다.

루바씨의 열력학연구소... 필경 모호면의 열평형관계문제때문이었는데 그것을 선아에게 굳이 숨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박은식이 지금 자기 주위에 울타리를 쌓아놓고 선아가 넘겨다보는것을 꺼려하고있음이 분명했다.

까리앙지진예측에 대한 박은식의 회의심, 외적작용에 대한 그의 가상, 스승의 분석안 부정, 다르게도 성립된다는 열평형관계...

안개속에 묻혀있는 이 현상들은 그 내속을 필경 그 《울타리》안에 두고있으리라.

선아는 아무도 몰래 박은식의 《울타리》안을 넘겨보기로 결심하였다.

룸펜이 자기네 기사들한테도 마수를 뻗친 《팔라스》의 소식을 전해주고 돌아간 다음 선아는 곧 컴퓨터를 마주 앉았다.

먼저 루바씨에 가있는 박은식의 주소를 알아낸 선아는 그의 주컴퓨터가 가입한 인터넷망에 자기도 함께 끼여들었다.

먼저 시작한것이 은식이 몰래 그의 자료 《창고》를 열어본것이다. 그러나 선아는 거기에서 자기가 기대했던것을 찾을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엔 그가 하는 일을 지켜보기로 하였다.

선아는 그가 《가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따라갔다.

박은식은 지금 루바씨의 어느 자료연구실에 앉아있지만 그의 활동무대는 참으로 광원하였다.

세계를 거미줄처럼 뒤덮고있다는 뜻에서 www(3더블유)로 표기되는 웹망의 《정보통신고속도로》에까지 뛰어들어 그는 세계를 활주하였다.

누구나 자료제공과 자료탐색을 할수 있게 나라와 나라, 지역과 지역간에 개방체제로 구축한 이 광대역망을 통해 그가 찾아내고 수집하는 정보자료 또한 방대하였다. 지층속물질의 방사능상태, 열력학에 의한 물질의 변화, 모호면에서의 열평형순차성 등등...

분명 지금 그가 노리는것은 모호면의 열평형관계이다.

어머니의 분석안을 불신하고 그에 도전해나선 박은식에 대한 야릇한 반감과 문제의 결과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진행하는 선아의 콤플렉스추적조사는 꾸준하였다.

은식은 처음엔 자기를 따라다니는 선아를 무관하더니만 그가 열람프로그램에까지 끼여들자 엄하게 쫓아냈다.

-불청객! 물러가라!

하지만 상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대상하는 컴퓨터의 세계에서만 무슨 일인들 못하랴. 그때마다 선아는 오묘하게 자신을 은폐하면서 박은식이 하는 일을 지켜보곤 하였다.

그 과정에 선아는 자기처럼 박은식의 주위에서 맴도는 또하나의 불법가입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박은식의 연구과정을 추적조사하는 과정에 선아는 그 정체불명의 가입자와 자주 맞닥트리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 가입자는 제먼저 선아를 피하곤 했다.

선아가 보매도 그의 콤플렉스추적은 여간만 로회하지 않았다.

박은식은 아직 그 가입자의 존재를 모르고있는것 같았다.

선아는 마음이 긴장해졌다.

누구일까? 혹시 《팔라스》?!...

보다 간파할수 없는것은 그 정체모를 가입자는 은근히 박은식이 하는 일에 간섭해드는것이였다.

그로 해서 산생되는 모호면의 열평형관계식은 점점 어머니의 분석안과는 다르게 성립되어가고 있었다.

어찌보면 그 미지의 가입자는 이미 은식의 의도를 알고있는듯 했다.

이것은 그러지 않아도 까리앙지진예측을 회의적으로 대하는 은식이한테 붙는 불에 키질하는격이다.

이제 박은식이 지진예측의 부정설까지 주장하면...

하여 선아는 급히 위성중계텔레비존전화기로 평양의 어머니를 찾았다.

곧 텔레비존전화기의 화면에 유옥영교수의 모습이 비쳐졌다. 아마 대학의 어느 연구실에서 전화를 받고있는듯 너교수는 새하얀 실험복을 입고 있었다.

《어머니!》

딸을 띠여본 어머니는 잔주름진 눈가에 순후한 웃음을 담았다.

《선아로구나. 그새 앓지는 않았니?》

《앓긴요? 이렇게 건강한데...》

선아는 어리광을 피우듯 어머니앞에 자기의 단

아한 몸매를 보였다.

《그런데 네 얼굴색은 좋지 않구나. 아직도 그 〈팔라스〉 때문이냐?》

선아는 시무룩이 대꾸했다.

《그보다는 은식동무때문에...》

《왜?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겼니?》

《그 동문 어머니의 분석안을 불신해요. 스승의 학설을 감히...》

너교수의 표정은 진중해졌다.

《그것때문이라면 네 생각이 옳지 않다. 과학의 진보에서는 스승과 제자간의 한계가 없어야 한다. 설사 그의 주견이 아직은 과학성이 결여되어있어도 그것이 보다 큰것을 지향하는것이라면 지지해주고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되면 카리앙지진예측이 달리 된다는걸 어머니 모르세요?》

《그 문제로 너희들이 자주 언쟁을 한다는걸 내 룸펜시장을 통해서 들었다. ...선아야, 은식이 그 사람이 지진예측을 달리본다면 그것은 카리앙시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수도 있다는거다.》

《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교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나는 그를 믿는다. 대학때부터 포부가 남달랐으니까.》

《...》

선아는 가볍게 눈길을 떨구었다. 지금껏 은식에 대해온 자신의 감정이 너무 왜소하지 않았는가 하는 자책이 느껴졌던것이다. 더우기 어머니까지 은식에 대한 견해가 드팀이 없으니 선아로서는 자기가 아직도 그 청년에 대해 모르는것이 너무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하는 연구는 대체 무슨 목적이 있는가? 단지 지진예측을 부정하자는것만일가? 아니면 그 외의 다른것이...

화면속의 어머니가 다시 말을 건네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나? 난 그곳으로 너희들을 나란히 함께 보냈는데 지금은 그렇게 서로가 갈라져있으니 말이다. 너 혹시 그 사람을 노엽힌 일이 있지 않니?》

《그건 제가 아니라 그 동무가 그래요. 언제 한번 다정한 말 한마디 없이 저와 다투기만 하면서...》

어머니는 빙그레 웃었다.

《내 알기에는 너도 같더구나. 폭폭쏘는 별침처럼... 그러나 그 뒤에 끝이 있지.》

《그건 무슨 말씀이예요?》

《사랑이란 때로는 그런 다툼질로 시작되는 때도 있는거란다.》

《예-에?!》

이것은 지금껏 잔잔해있던 처녀의 가슴속 호수에 떨어진 하나의 돌맹이였다. 그로해서 일어나는

아름한 파동...

《아이참, 어머니두. 못하시는 말씀이 없네...》

《호호... 그런데 얼굴은 왜 그렇게 붉어지냐?》

《아이! 제가 뭐 어쨌어요?》

《이 어머니눈은 못속인다. 나도 너자란다.》

눈길을 어데 들지 몰라 허둥거리던 선아는 고개를 숙이고말았다.

《호! 그건 그거구... 이제라도 은식이 그 사람일을 돕거라. 네 직분이 그 사람을 방조하는게 아니냐?》 선아는 슬머시 눈길을 들었다.

《저도 루바싸에 가겠어요.》

《그럴 필요는 없을게다. 지금 그 사람은 미싸일시추탄시험때문에 다른 곳에 가있을테니까.》

《미싸일시추탄?! 그것은 뭇에 쓰려구요?》

너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겨있더니 조용히 말을 하였다.

《내 아무래도 너한테는 말해야 할가부다. 그는 그것으로 꾸와트섬지층속에서 핵반응을 일으키려고 할게다.》

《핵반응?!》

선아는 저도 모르게 벌떡 몸을 일으켰다.

선아의 인식을 뿌연게 덮고있던 현상의 안개는 비로소 가셔지기 시작하였다.

천체들의 미세기힘, 만틀의 열대류, 모호면의 열평형관계, 축적되는 에네르기, 지층속물질의 방사능상태, 미싸일시추탄, 핵반응...

이 모든것을 추리의 실줄에 쫓 꿰놓으면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성립된다.

...9월 4일은 그믐이다. 이날 천체들의 미세기힘은 최대치에 이른다. 역시 만틀의 열대류로 모호면에 축적되는 에네르기도 물질의 파괴력에 이르게 된다. 똑같은 시각에 똑같이 최대치를 이루는 거대한 두 자연의 힘.

수십년만에나 한번 있게 되는 자연의 우연적인 현상이랄가.

하지만 그중에서 어느 하나가 늦게 또는 빠르게 자기의 형성시간을 변화시키면 두 현상의 일치는 피하게 된다. 그러면 거대한 두 자연의 힘은 서로 합쳐지지 못하므로 지진은 일어나지 못한다. 모호면의 에네르기가 최대치를 이룰 때는 천체들의 미세기힘이 그것을 터뜨릴 힘이 진할것이고 반대로 천체들의 미세기 힘이 최대치를 이룰 때에는 모호면의 에네르기가 물질의 파괴력에 이르지 못하기때문이다. 문제는 만틀의 열대류가 모호면에 축적시키는 열에네르기의 최대치를 이루는 시간을 지연시키는것이다.

바로 그래서 미싸일시추탄이 필요하다.

반응촉매제를 적재한 그 시추탄이 뿔고들어가 지층속의 방사성물질에 핵반응을 일으켜 사전에 모호면의 열온도를 높여주면 열평형관계로 만틀의 열대류속도가 떠지게 된다. 이를테면 자연적으

로 성립되는 모호면의 열평형관계를 인공적으로 조절하는것이다. 그러면 모호면의 열에너גיע최대치는 천체들의 미세힘보다 늦게야 이루게 된다.

이것은 인간이 과학의 힘으로 그 어떤 대지진도 막을수 있다는것이 아닌가. 박은식이 지금껏 선아 몰래 혼자서 연구해온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만물의 열대류속도를 조절하는 열평형관계식의 인공적인 성립.

《아직은 나의 가상이요. 하지만 모호면에서의 열평형관계는 다르게도 성립될수 있다는것만은 확신하오.》

그날의 박은식의 이 말이 다시금 귀전에 울리면서 선아의 가슴은 감흥으로 들뛰었다.

은식은 그때 벌써 이 연구를 결심하고 유옥영교수의 분석안을 부정했던것이다.

박은식.

선아는 너무도 그를 모르고있었다.

그는 결코 평범한 연구사가 아니었다. 그는 정말 세상을 쥐고 흔드는 그런 담력과 배짱이 있는 과학자였다.

선아는 또다시 박은식의 세계에로 뛰어들었다.

그와 함께 《팔라스》의 간섭도 로골적이었다.

하지만 은식은 그들의 이 행위에는 전혀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하긴 것처럼 엄청난 일을 벌리는 사람한테는 콤퓨터망에 끼여든 불청객들이 나중에 들리 만무했다.

박은식은 지금 지구를 통채로 그러안고 그것의 거대한 지심을 헤집어대고있었다.

그런 담력, 그런 기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누구의 간섭이니, 불안이니 하는따위의 잡사가 통할리 없는 법이다.

## ×

삼라만상이 모두 고요속에 묻힌 깊은 밤.

박은식은 조용히 지하격납고에 들어섰다.

그곳에는 은식이 은밀히 준비해놓은 지하로켓트 《번개-1》호가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낮에 까리앙시로 돌아온 은식은 그간에 꾸와트섬지층속의 진원가까이으로 진입할 모든 준비를 남모르게 갖추어놓았던것이다.

《번개-1》호에로 다가간 은식은 초경질특수합금강으로 된 그것의 은빛동체를 가볍게 쓸어만졌다.

은식과 선아를 이곳 까리앙으로 떠나보내면서 유옥영교수가 함께 보내준 이 《번개》계열의 지하로켓트들은 낫설은 이국땅에서의 이들한테는 조국의 한부분이기도 하였다.

《(번개-1) 호! 어디 나와 운명을 함께 해보자.》

지하보호복을 착용한 다음 은식은 《번개-1》호

에 올랐다.

시간당 1000미터의 굴진능력으로 그 어떤 굳은 암석도 쉽게 뚫고 들어가는 이 초고속지하로켓트는 이제 은식을 그가 목적하는 반응좌표에까지 실어다줄것이다. 그 반응좌표는 은식이 이번 연구에서 가장 많은 심혈을 넣은 반응제원들중의 하나이다.

낫설은 남의 나라 연구소들과 시험장에서 보낸 사흘낫 사흘밤이었지만 자기를 내세워주고 남모르게 이끌어주는 스승이 있었기에 은식은 외롭기는커녕 오히려 신심과 열정에 넘쳐 지진을 막기 위한 연구를 완성한것이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시각이 다가오니 은식은 옛스승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추연했다.

대학때부터 안고있는 제자의 포부를 귀중히 여겨 자기의 연구자료까지 들려 해외로 떠밀어보낸 유옥영교수, 닥쳐올 까리앙대지진을 두고 락심에 빠져있는 제자를 오늘의 연구에로 이끌어주며 세상을 굽어보는 하늘높이로 날아오르게 역센 날개를 펼쳐준 스승의 고마움을 은식은 안고갈것이다.

하지만 은식이 이제 가야 할 길은 생을 기약할수가 없는 길이다. 하기에 함께 온 선아한테도 자기의 연구를 숨겨온 은식이였다.

아직도 은식이한테는 선아에게 자기가 어찌하여 유옥영교수의 딸과 재능이 깃든 모호면의 열평형관계식을 부정하게 되였는지를 납득시켜주지 못하고 떠나가는 자격지심이 남아있었다.

선아, 용모도 아름답고 마음도 괜찮은 처녀이지. 리지적이고 이악하고...

다시는 정다운 그들과 영 만나지 못할수도 있는 길을 이렇게 남모르게 떠나자니 은식은 마음이 애상으로 젖어들었다.

그는 두눈을 지그시 내려감았다.

벌써 은식의 심중에는 나약해지려는 자신에 대한 질책의 회초리가 휘파람소리를 일군다.

분석안의 부정설과 함께 손상될수도 있는 자신의 명예는 전혀 아랑곳 않고 도리어 지진을 막아낼수 있다는것을 깨우쳐주고 떠밀어주는 유옥영교수의 그 응심에 감복하며 연구를 시작할 때 은식이 가슴속에 새긴 리념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세계의 한복판에 우뚝 설 과학의 거목을 자래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땅속의 뿌리가 되여 자신을 헌신하는 옛스승한테서 물려받은 과학의 역센 신념과 의지였다.

그래, 우리의 과학이 까리앙의 수심만생명과 그들의 재부를 다같이 지켜주지 못한단 말인가.

어디 맞서보자!

은식은 두눈을 홉떴다.

지진, 너는 결코 일어나지 못한다!



어득시그레한 조종실안에 들어선 은식은 뜻밖의 광경에 깜짝 놀랐다. 마치도 자기가 이 지하로 케트의 주인인듯 벌써 보호복까지 입은 웬 사람이 조종석에 앉아있었던것이다.

《누구요?》

대답이 없었다.

또다시 다루쳐묻는 은식의 당황한 물음에야 그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나직이 대꾸했다.

《불청객이예요.》

《아니?!》

은식은 아연해졌다. 자기보다 먼저 《번개-1》호에 올라와있는 그 불청객은 바로 선아였던것이다.

조명등의 스위치를 누른 다음 은식은 의혹과 걱정으로 들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처녀 한테로 다가갔다.

《어찌된 일이요? 혹시 침실을 헛갈린게 아니요?》

선아는 여전히 등을 돌리지 않고 랭랭히 대꾸했다.

《오히려 동무가 참관길을 잘못 잡은게지요. 여긴 루바짜가 아니니까요.》

은식은 어이없어 허거프게 웃었다.

《동무는 정말 지긋은 불청객이군.》

《어찌겠어요. 어머니의 분석안을 짓밟고 선 동무를 제가 감정없이 대할수야 없지 않아요.》

《동무는 그럼 줄기도 뿌리를 짓밟고 서있다고 생각하오?》

선아는 고개를 돌리었다. 리지를 담고있던 그의 두눈에는 지금 원망이 한가득 실려있었다.

《자신을 그 무슨 철학가연하지 마세요. 동문 아직도 어머니의 분석안을 부정하는가요? 그래, 지금껏 동무가 진행해온 그 연구가 어머니의 그 분석자료에 전체를 둔것이 아닌가 말이에요.》

《...》

《그간 이름없던 동무는 이제 그 연구 하나로만 도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겠지만...》

《그렇소. 애어린 줄기는 자라서 거목이 되요.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 거목을 자래운 땅속의 뿌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있소. 바로 동무부터가 말이요.》

《제가 어쨌다는거예요?》

《동문 내가 누구때문에 이 연구를 하게 되였는지 아직 모르고있소.》

《?...》

《그건 바로 유옥영교수선생님이시오.》

《예?!》

은식은 놀라는 선아의 얼굴에서 눈길을 돌리고 조종실의 한쪽 구석을 점도록 바라보았다.

《자신의 분석안대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지진을 예측하고 동무나 나나 걱정만 하고있을 때 벌

써 교수생님은 지진을 막기 위한 결심을 하시었소. 그래서 내가 대학때부터 준비해오던 지층속의 핵력학연구를 까리양의 지진을 막기 위한데로 개발시켜주고 이끌어주신요.》

은식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있었다.

《교수의 명예에 그들이 질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그런것엔 전혀 아랑곳 않으시고 나로 하여금... 자신의 분석안을 부정케 하고 열평형관계를 인공적으로 성립시키게끔 눈을 띄워주시면서...》

얼굴이 상기된 선아는 긴 속눈섭을 파르르 떨었다.

《그게 사실이예요?》

은식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동무의 어머니은 바로 그런분이시오.》

선아는 눈물이 핑 돌았다. 고결한 품성을 지니신 어머니의 그 뜨거운 인간미가 그의 온몸에 확 미쳐왔던것이다.

선아는 고개를 숙이였다.

자신이 키우신 제자들을 세계앞에 내세워주시고 세상을 쥐고흔드는 과학자로 되게끔 이끌어주느라 남모르게 자신을 바쳤을 어머니를 지금껏 모르고있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 말을 왜 이제야...》

피로움에 싸여있는 선아의 마음을 녹찾혀주려는듯 은식은 쾌활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허! 컴퓨터추적조사는 누가 말을 해줘서 했소? 반응시간까지 탐색하고 여기에 올라 나를 기다린걸 보니 여간이 아닌것 같은데...》

선아는 눈굽을 찌고 가볍게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은식을 바라보며 수집게 웃었다.

《미안해요. 사실 전 처음엔 동무가 그런 연구를 하는줄은 모르고... 반응시간도 실은 제가 아니라 다른 가입자의것을...》

《다른 가입자라니?》

선아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아직 모르고계세요? 동무를 뒤따라 웹브망에 끼여든 〈불청객〉은 저 하나뿐이 아니예요.》 은식은 놀랐다.

《그럼 누가 또...》

《전 〈정보통신고속도로〉 상에서 동무를 추적하는 또 하나의 불법가입자를 발견했어요.》

《그게 누구요?》

《아마 〈팔라스〉 일거예요.》

《〈팔라스〉?!》

은식의 얼굴은 삽시에 킁킁하게 질리였다.

《아, 내가 왜 미쳐 그 생각을...》

그는 어찌할바를 몰라 이리저리 허둥거리더니 선아에게 소리쳤다.

《빨리 격납고를 탐색해보요!》

돌변하는 은식의 거동에서 그 무슨 심상치 않은 사태를 직감한 선아는 얼른 탐지기를 조종하

였다.

《앗! 반대쪽의 〈번개-2〉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그가 벌써...》

《누가 말이에요? 〈팔라스〉가?!...》

《그렇소! 〈팔라스〉요. 그가 〈번개-2〉호를 타고 나보다 먼저 지층속으로 들어갔소.》

은식은 황망히 보호모를 찾아쥐고 선아한테로 다가섰다.

《시간이 급하오, 빨리 내리시오!》

하지만 선아는 두눈을 내리깔뿐 움직일념을 안했다.

《어서!》

벼락치는듯 하는 은식의 고향에 선아는 흠칠 몸을 떨었다.

《싫어요.》

성격과 태도가 것처럼 울퉁고 다기차던 처녀의 기품은 간곳 없고 고집스레 몸을 흔드는 그의 거동은 마치도 어머니앞에서 떼질을 쓰는 소녀애를 방불케 했다.

은식을 바라보는 선아의 두눈에는 벌써 애원이 실려있었다.

《저도 가겠어요.》

《안되오!》

은식은 단호하게 선아의 팔을 잡아끌었다.

선아는 자기를 잡은 은식의 팔을 다른 손으로 움켜쥐고는 고개를 외로 숙이었다.

《제가... 제가 싫은게지요?》

물기에 젖은 선아의 그 말에 은식은 처녀를 붙잡았던 손을 맥없이 떨구었다. 것처럼 억센 이 사나이도 처녀의 눈물만은 이길수가 없었던것이다.

선아의 함초름한 눈길에 돌려지자 이번엔 은식이 고개를 외면했다.

바로 이런 일을 피하자고 은식이 것처럼 연구를 남몰래 해왔고 또 선아를 멀리해온것이 아닌가. 이제 은식이 가야 할 길이 어떤곳임을 과연 이 처녀가 알거나 하는지...

《선아동무, 이 길은 동무가 갈곳이 못되오.》

《위험하다는거지요?》

《죽을수도 있소.》

그러나 처녀의 표정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전 두렵지 않아요.》

선아는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었다. 그리고는 귀전 밑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가볍게 쓸어올리고 나직이 뒤말을 이었다.

《동무와 함께만 있으면...》

선아는 더 말을 못하고 얼굴을 빨갛게 물들일 뿐이었다.

은식은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그는 인생의 최후가 될수도 있는 이 시각에 한 처녀한테서 사랑을 고백받았던것이다.

별안간 조종실안의 컴퓨터에서 울려나오는 신

호음이 은식과 선아간의 숙연한 침묵을 깨뜨려놓았다. 곧 컴퓨터의 화면에 전송문이 나타났다.

《〈번개-1〉호! 나 〈번개-2〉호. 내말이 들리는가?》

《〈팔라스〉 예요!》

박은식은 얼른 컴퓨터를 마주하고 회답하였다.

《나 〈번개-1〉호. 말이 잘들린다. 〈번개-2〉호의 현재위치를 알리라.》

《〈번개-2〉호의 현재위치는 구와트섬지층깊이 2만 5천...》

깜짝 놀란 은식은 다급히 음성통화기의 스위치를 넣고 고향을 내질렀다.

《위험합니다! 교수선생님, 멈춰서십시오!》

보다 더 놀란것은 선아였다.

교수선생님이라니? 그러면 어머니가? ... 《팔라스》?!

선아는 지금 자기가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선아는 박은식네가 대학때 자기 어머니를 《팔라스》라는 별호로 애칭하였다는것도 그리고 어머니가 그때처럼 제자를 이끌어주고 까리앙시에 공포와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과학과 평화의 수호신이 되었다는것을 전혀 알수가 없었던것이다.

이윽고 확성기에서 너교수의 후더운 목소리가 울리었다.

《은식동무, 그간 고생이 많았어요. 정말 큰일을 했어. 장해요. 정말 장해!》

《선생님, 이곳엔 언제...》

《동무가 루바싸를 떠나자 나도 평양을 떠나왔지. 룡젠시장만이 내가 온걸... 은식동무, 반응조작은 내가 할테니 들어올 생각은 아예 말라구, 미싸일시추탄은 이미 내가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뭘라구요?!》

은식은 얼굴을 험하게 이그러뜨리었다.

《선생님! 그 일은 제가 해야 합니다.》

《동무야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아닌가. 걱정말라구. 내 컴퓨터를 통해 동무가 연구한 모든걸 다 탐색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선아까지도...》

《선생님, 알고있습니다.》

《그래? 호! 은식동무, 우리 선아를 나뻘 생각말라구. 원래는 마음도 성품도 참 좋은 애라오.》

마치도 림종을 앞둔 어머니의 유언을 듣는것만 같아 선아는 울컥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 저 예요. 선아예요.》

《선아?! 아니, 넌 어디서...》

《지금 여기 〈번개-1〉호에 그 동무와 함께...》

《아무렴, 그 사람결엔 방조자인 네가 있어야지.》

어머니는 기쁜듯 웃음소리까지 터뜨렸다.

선아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어제는 옛제자를 과학의 대공으로 날게 해주려고 남모르게 자신을 바치시더니 또 오늘은 그를 대신하여 위험한 지층속에까지 서슴없이 뛰어드신 어머니를 그려보는 선아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것이 가득 차있었다.

다시금 녀교수의 목소리가 확성기에서 울려나왔다.

《은식동무, 내 말을 들어요. 동무가 산출한 반응시간은 최량화가 못돼요. 내가 그렇게 답을 내게끔 동무 몰래 간섭했어요... 가장 효율적인 반응시간은 이제부터 20분후라오.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온거지.》

은식은 두눈을 꼭 감으며 고개를 숙이었다.

자기가 그 위험한 길에 먼저 들어서지 못하게 하느라 컴퓨터지원체제로 우정 그런 일까지 했을 스승의 그 응심이 가슴뜨겁게 미쳐와 은식은 눈곱이 축축히 젖어들었다.

《은식동무, 반응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선생님...》

《빨리 반응좌표를 밝히라구.》

은식은 우들우들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자그마한 전자종이를 꺼내들었다. 거기에는 오직 그만이 알고있는 가장 실리적이고 적합한 반응좌표가 적혀있었다.

《빨리 밝히라구. 어서!》

녀교수의 불같은 독촉에 은식은 흠칫 몸을 떨었다.

《선생님, 현재위치에서 반응좌표까지는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대신 효과가 더 클테지.》

《안됩니다. 후퇴하십시오. 선생님의 생명이...》

《위험하단 말이지... 은식이 이 사람, 그래서 동무는 연구를 혼자 해온거구 나 또한 그것을 밝힐 수가 없어 <팔라스>가 된것이 아닌가. 결국은 지금의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자신들을 숨겨온 셈이지. 하지만 이제야 우리 서로 숨길것이 뭐가 있겠나? 실은 반응좌표를 내 모르는게 아니라오. 그것의 정확성여부를 확인하자는거지. 자, 어서 좌표를 밝혀요. 반응시간이 이제 10분 남았어요!》

은식은 쓰러지듯 조종석에 주저앉았다.

《아!- 이 일을 어찌면...》

《흑!-》

선아는 흐느낌을 터치며 은식이곁에 다가와섰다.

《은식동무, 어서 좌표를 밝히세요.》

처녀의 두볼은 눈물에 젖어있었으나 목소리는 어느때없이 메마르게 울려였다.

《안되오! 어떻게 교수선생님을 그 위험한 위치에 두고...》

《알려야 해요. 까리앙의 운명이 지금 어머니한테...》

선아는 눈물을 뿌리며 은식의 손에서 전자종이를 빼앗아들었다.

《〈번개-1〉호! 시간이 급하다. 빨리 좌표를 밝히라!》

다시금 울리는 어머니의 다급한 재촉에 선아는 두눈을 꼭 감았다.

이어 그의 입에서는 울음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오기시작하였다.

《반응좌표... X-002-34-1350, y-123-58... 어머니!-》

선아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목놓아불렀다.

다음 그는 조종실바닥에 쓰러졌다. 처녀는 확성기에서 울려나오는 어머니의 마지막말도 옛스승을 부르는 은식의 피타는 웨침도 듣지 못하였다.

은식은 쓰러진 처녀를 안아일으켰다

《선아동무, 선아!》

은식은 품에 안은 처녀를 흔들어 깨웠다.

한참후에야 간신히 두눈을 뜬 선아는 은식을 물끄러미 올려다보기만 하였다.

《선아, 힘을 내오. 우리 어머님한테로 가자구.》

선아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한테로...》

《그렇소, 어머님은 꼭 살아계실거요.》

《정말 그럴가요?》

은식은 힘있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뿌리는 깊이 내릴수록 더 억세여지는 법이요.》

×

9월 4일.

예측했던 까리앙대지진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어째서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다.

룸펜시장도 고찰단의 학자들도 그리고 까리앙지진 감시소의 기사들도...

며칠전에 불쑥 이곳 까리앙시에 나타나 지층조사를 하던중 그 무슨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는 유옥영교수도 어제 완치되어 퇴원했건만 그 역시 침묵일뿐이었다. 그의 두 연구사들도...

일어났어야 할 까리앙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은 그 기이한 내막을 알고있는 사람은 다만 그들뿐이리라.

하여 까리앙은 유옥영교수와 그의 연구사들이 평양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그 《팔라스》를 찾고있다.

## 가 락 지

-한 너인이 결혼식날에 부른 노래-

김명익

내 오늘 머리없는 날  
어머니는 자기 손의 가락지를  
이 딸에게 끼워줍니다.

홀려간 처녀시절  
할머니에게 할아버지 끼워주었다는  
휘영청 달밤의 옥빛가락지

가난속에도 정을 모아 성례를 하고  
제물포에 샅집지려 갔다  
철조망이 막혀 다시는 못온  
그날의 할아버지 그리며 그린  
그리움의 세월이 다 감긴 가락지

백발의 할머니 한을 다 못푼채  
세상을 떠나는 날  
나의 어머니에게 물려준  
옛 가락지에 피땀눈물이 어렸습시다

예로부터 사랑을 감으며  
백년해로를 하자고  
맑은 아침의 나라 남정들이  
일생에 한번 끼워주는 혼인가락지!

하였건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평생은  
동그란 가락지처럼 아니되었으니  
아마도 그렇듯 가락지에 감기고감긴  
그 불행을 런던히 누리며는  
동서 룡백리 가시철조망도 덮으리

그런 반지들에 하염없이 떨어진 눈물  
그 눈물에  
림진강도 천리장강이 되어  
그 어이 이 강산을 아니 흐르겠습니까

울리며는  
그런 반지를 다 녹이여  
종인양 관문각에 달아놓고 울리며는  
아 그 소리 구천에도 닿으리라

사무치는 그 분함에  
할머니의 반지를 다시 살펴보려니  
이 가락지에조차  
한서린 38도선이 감기였구나!

이리 갈라지고 저리 동강난  
원한스런 세월 그 세월이  
아직도 짙아 통일이 못되는거라면  
아리랑민족이  
눈물의 아리랑고개를 이제 더 얼마나 넘어야  
통일조국을 보게 된다는것이나

이 세상사람들  
어디나 다 오가건만  
제 땅의 삼천리를  
우리 겨레만은 넘나들지 못하고있으니

외세가 강요한 피비린 장벽  
원한의 분계선을 없애는 날엔  
내 나라 반만년이 환희의 울음을 터칠겁니다!

그날은 오려니  
우리의 6.15는  
이 강토우에 통일해가 뜬 날입니다!  
분명 그날은  
온 삼천리가 평양의 통일해돋이를 우러러  
《우리 민족끼리》하나되는 날  
이 옥가락지에 맺힌 한이 풀리는 날입니다.

사뭇, 반지낀 이 손이 저려듭니다.  
할머니의 가락지는 유물일뿐  
유산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생각  
조국의 분열, 분열은 대대로 물려주는  
그런 《유산》이 아니기에...

언제인가 나도 백발을 없으려니  
내 그날 할머니의 증손녀에게  
이 반지를 유산으로 또 물려주는  
후손으로 어이 될수 있으리

아 눈물속에 그려봅니다  
축복속에 새 가정을 이루면서도  
하나된 조국을 더 그려보는것이  
이 땅 금수강산의 각시들인가 봅니다!

아 아  
가락지  
휘영청 달밤의 가락지  
삼천리너인들의 옥가락지여!

# 잘 가시라

정성환

잘 가시라  
남녘의 문인들이여  
한시간이면 와닿는 길을  
60년 세월의 츤렁바위를 뚫아서야  
한자리에 모였던 그대들이여

6.15의 기치를 든  
유서깊은 평양에서  
뜨겁게 뜨겁게 손잡고 나섰던  
오늘을 언제나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우리 마음 하나로 합치지 못했다면  
영원히 서로 손잡지 못하는 두 강기슭처럼  
분렬의 장벽에 막히여  
소원으로만 남아있었을  
우리의 뜻깊은 이 상봉을

손에 손을 굳게 잡은것  
이것이 피타게 바라던  
통일의 모습이 아니냐  
만나면 반가움에 눈물짓고  
헤어지면 그리움에 목메이는  
이것이 하나의 겨레의 마음이 아니냐

그대들과 나는  
분렬된 이 땅의 손님이 아니다.  
우리모두는 통일의 주인  
머리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한  
기어이 그날을 앞장서 찾아야 할  
통일의 기수

통일의 붓대를 높이 들자  
그러면 우리의 붓대는 사람들의 심장에  
통일의 폭풍을 불러일으키리라

## 경구, 격언

- 글쓰기기교-이는 함축하는 기술이다
- 세무없이 작품은 살지 않는다. 어떤 단편 소설이나 세부가 없이는 혼체한 물고기로부터 쫓겨한 막대기로 되고만다
- 언어는 반드시 소박하고 아름다와야 한다
- 간결성은 재능과 자매이다
- 사랑은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를 북돋아주는 불이고 그 감정의 영향으로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은 삶과 시문학의 활자로 기록된다
-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은 행복하지만 처녀의 매력에 끌려 장가를 가는것은 장마당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거저 좋아서 사는것과 같다

그 거세찬 폭풍으로 하여  
미체가 쓰고있는 《해방자》의 탈은 벗겨져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히리

미체는 피문은 알몸뚱이를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원한의 분계선과 함께 날아나리라

아, 백두의 이갈숲도  
그날을 기다려 파도쳐 설레이고  
남해의 해당화도 통일을 부르며  
피처럼 타는 이 시각

다시 만날 그날 위해  
우리 헤어지노라  
지금은 우리 헤어져도  
서로의 소원은 여기에 남았으니

작별의 노래는 우리 부르지 말자  
통일의 소원을 지닌 미음들엔  
통일과 함께 만나는  
상봉만이 있거늘

6.15의 해발아래  
외세의 뿌리를 뽑아던지고  
우리 민족끼리 3천리 강산에 통일의 문을 열  
그날이 다가온다  
하나된 이 강산에 한식술 되어  
무궁토록 살아갈 그날이 보인다

잘 가시라  
그대들이 날아갈 저 푸른 하늘처럼  
조국통일의 푸르른 희망을 안고  
고향에 가닿으시라  
부디 안녕히 가시라

## 성구, 속담

- 눈앞에서 자랑 말고 뒤에서 꾸짖지 말라
- 마음 한번 잘 먹으면 복두칠성이 굵어본다
- 칠년 긴병에 삼년 묵은 쥘을 찾는다
- 정직한 사람의 자식은 굵어죽지 않는다
- 저는 말도 바른 길로 간다
- 어린 아이 병엔 예미만 한 의사 없다
- 취중에 진담 나온다

## 통일애국투사-비전향장기수들을 형상한 장편소설권의 창조와 소설문학의 새로운 전진 (1)

리수립

### 독창성의 구현과 창작력량의 강화

대장편소설권의 창조를 통하여 우리 소설문학은 주체적인 창작력량을 강화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은 언제나 독창적으로 해야 한다. 끝없이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생활을 반영하는 예술작품마다 특색이 있어야 사람들을 교양하는데서 예술만이 가질수 있는 정서적감화력을 더욱 높일수 있다.》**

독창성을 위한 투쟁속에 이룩된 작가대오의 획기적인 성장, 이것은 새 세기 선군소설문학의 전성기를 담보하는 커다란 성과이다.

새로운 소재영역과 큰 규모의 소설형식을 다루어야 하는 대장편소설권창조는 작가적자질과 기량제고의 벽찬 마당이었다.

대다수의 소설가들은 여직껏 많이 대상해보지 못한 생활영역인 남조선사회현실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연구와 파악, 체험의 과제앞에 섰다.

외세에 의하여 군사분계선으로 가로막힌 남조선현실을 장편의 서사적인 화폭에 자유분방하게 체험한듯이 펼쳐놓으려면 생소한 이 분야의 파악에 많은 품을 들여야 하였다. 그것은 우리와 판이한 미제강점하의 자본주의현실이였으며 그 사회현실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의 요구였다. 그것은 또한 많은 경우 세월을 거슬러올라야 하는 력사적인 인식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지식이나 인식에만 그칠 일도 아니였다.

투쟁생활, 옥중생활을 위주로 생활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체험적인 요구였다. 대장편소설권의 창조는 문학형식의 측면에서도 높은 요구앞에 작가들을 세웠다. 그것은 적지 않은 짧은 소설가들에게 아직은 생소하였던 장편소설의 창조미학을 능란하게 활용해야 하는 기량향상의 과제였다.

소설가들중 많은 사람들이 단편소설이나 중편소설과 같은 짧은 형식, 중간형식의 창작경험밖에

갖고있지못하였으며 장편소설창작에 숙달된 소설가는 얼마 되지않았다.

장편소설의 미학, 그것은 시대현실의 폭넓은 반영과 묘사, 인간관계의 다면적인 조성, 많은 등장인물과 그 개성화, 주인공성격의 다양한 특징과 장성발전과정의 추구, 형상수법과 기교들의 전면적인 활용 등 문학창작의 가장 높고 어려운 세계였다. 이 모든 자질과 기량제고의 아름다운 노력은 당면한 창작실천, 특히는 형상의 비반복성, 독창성을 지향한 피타는 탐구의 걸음걸음으로 이어졌다.

대장편소설권은 대작품형상의 비반복성, 독창성을 견인력과 감화력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생명으로 내세운 류다른 소설목음이다.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모두를 각기 장편소설로 형상할데 대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로 더 높이, 더욱 굳건히 혁명화할 새형의 거창한 문학형식에 대한 발기였다.

그것은 우선 광범한 인민대중속에서 나온 투사들, 각이한 출신과 경력을 가진 혁명가들이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되여 승리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진리성, 불패성을 내외에 떨친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내용으로 한 혁명적문학의 풍만한 세계이다.

그것은 또한 시나 극 등 이외의 묘사방식의 작품과 달리 인간생활에 대한 전개된 묘사력을 가지고 투사 주인공의 구체적인 생활과 깊은 내면세계까지 충분히 그려내는 소설문학, 특히 장편소설의 우월성으로 하여 대중에게 친근하고 인민의 사랑을 받는 침투력과 감화력이 큰 문학형식으로 된다.

바로 그러한 거창하고 위력한 힘을 가진 새로운 문학세계가 우리의 대장편소설권이였다. 새것이 거창한것일수록 창조의 진통은 더욱 크며 그 진통이 크고 심각한것일수록 태어나는 새것의 가치와 의의도 크기마련이다.

러놓고말하여 비전향장기수라는 공통된 주제와 대상으로 60여편에 달하는 하나의 웅대한 작품권을 내다보던 초기부터 그 완성의 마지막시각까지 심각히 제기된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류사성 극복과 독창성구현 문제였다.

옥살이를 수십년세월 똑같이 하였으며 같은 사상, 같은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비전향투쟁의 승리가 되어 한낱한시에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60여명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는 생활의 기본테두리, 기본흐름에서 류사성을 전제로 하고있었다.

그것은 분명 하나의 커다란 장벽, 류사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크고 높은 장벽이었다.

선행한 문학들에도 제한된 소재와 주제로 소설 묶음을 조성한 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장편소설권에서처럼 류사성이 심각한 문제로 나섰던 경우는 흔치 않았다.

《인간회극》이라는 총제목아래 프랑스부르조아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그 부정면을 비판할것을 의도한 발자크의 소설총서만을 보아도 작품의 소재나 주제호상간에는 공간과 여유가 적지 않았다. 《풍속연구》, 《철학적연구》, 《분석적연구》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96편의 작품을 묶은 이 소설총서에서 그중 《풍속연구》부분만을 보아도 《개인생활장면》, 《지방생활장면》, 《정치생활장면》, 《군대생활장면》, 《농촌생활장면》 등 여섯 계열로 갈라 그 생활영역을 구별짓고있다.

이 총서중의 소설들은 서로 연관되면서도 각기 독자성을 가지고 1789년 프랑스부르조아혁명직후부터 1848년 2월혁명직전에 이르는 약 반세기간의 프랑스사회생활과 풍속을 년대기형식으로 반영하였고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도합 2천여명의 인물형상을 자유롭게 선택적으로 그려냈다. 이 례에서도 보는바와 같이 지난시기 총서요, 다부작이요 하는 등의 소설묶음들은 거의 다 한사람의 작가가 창작하면서 큰 선에서 공통점을 가지는 경우에도 시대배경이나 생활, 인간관계나 인물형상, 주제면에서 상대적인 구획과 매듭을 짓고있다.

우리와 같이 여러 작가들이 류사한 대상과 공통된 주제로 60여편의 장편소설을 단꺼번에 창작한 례는 문학사에 보기드문 경우였다.

작가들속에서는 류사성과 도식에 대한 위구로하여 초기에 일부 편향들도 없지 않았다.

남먼저 써내려고 서둘러 조급성을 드러내거나 옥중생활이 아닌 다른 생활을 위주로 펼쳐보이려는 시도들이 그것이었다. 《시간단축》으로 다른 작가를 앞질러 소설을 끝내어 비교대상을 없이하는 방법은 결코 근본대책일수 없었거니와 수감이전이나 출옥후 생활의 파다한 인입 역시 형상을 판

값으로 몰아갈수 있게 하는 그릇된 경향이었다.

물론 감옥밖에서의 생활이 주인공의 비전향투쟁을 더욱 깊이 밝히는 계기로, 그 연장으로 형상권에 인입된다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대해야 할것이지만 다른 생활어로 관심과 흥미가 돌아가다나머지 형상의 중심이 달라지게 되면 안하기만 못한 일이다.

소설가들앞에는 어디까지나 절해고도와도 같은 감옥에서 자기 인생의 기나긴 시기를 보냈으며 그 고립무원한 속에서 혁명적신념을 끝까지 지킨 숭고하고 영웅적인 인간을 진실하고 감동깊이 그려야 할 물려설수 없는 과제가 있었으며 그것을 떠난 비반복성, 다양성이란 아무 의의도 없는것이였다.

류사성의 장벽은 대장편소설권의 창조를 위하여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난관이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 창조의 성패가 좌우되는 심중한 과제였다. 그것은 단순한 비반복성으로가 아니라 대장편소설권의 숭고한 사명과 요구를 관철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형상의 독창성이였고 어려운 창조적과제였다.

장벽이 크고 높았던 그만큼 이 장벽을 넘고오른 독창성의 령마루에 높은 사상예술성과 심오한 철학적깊이의 세계가 빛나고있었다.

류사성의 극복과 독창성의 실현을 위하여 소설가들은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원형들의 인생로정이 서로 다르기에 창작이 충분히 가능할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비전향장기수모두에게 각기 구체적이고 다양하며 비반복적인 생활과 생활의 흐름새가 있으며 이러한 생활바탕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 매 소설에서 형상의 독창성을 보장하고 장편소설권을 풍만하고 다채로운 인간학의 세계로 가꾸어낼데 대한 지침을 주시였다.

생활이 있어 문학예술이 있는 문학과 생활의 호상관계에서 이 지침, 이 신심이야말로 출로였고 성과의 근본담보였다.

후날 장편소설 《아 조국! ...》(한웅빈 작)의 작가는 자기의 창작수기에서 류사성과 도식을 극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이렇게 회고했다.

《그 길이 나는 원형에 더욱 가까이 가는데 있다고 생각했다. 개별적인 인간의 생활은 갈을수가 없으며 내면세계는 더욱 갈을수가 없다...》

원형에 가까워질수록, 원형에 충실할수록 개성은 뚜렷해질것이며 비반복적인것으로, 류사하지 않은것으로 될것이다.》

그의 말은 대장편소설권을 창조한 작가들모두

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고 할수 있다.

원형의 곁으로 더욱 가까이 가자, 원형에게 고유한 생활을 찾고 그 생활에서 독창성의 담보를 찾자. 이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창작의 신조로 삼은 작가들의 창작자세였다. 이것이 또한 실재하는 원형에 의거하는 위력한 전형화였다.

문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일대기식 전기소설이 아니라 비전향투쟁을 기본으로 밝히는 소설의 세계에 구현하는것이였다.

이 보람찬 탐구과정에 소설문학은 창작의 본성으로서의 독창성에 관한 주체사실주의의 제반원칙과 방법들을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깊이 구현하고 작품의 개성적특성을 살려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서 기본은 우선 비반복적인 종자를 찾아내는것이였으며 다음으로 그것을 심고 꽃피울수 있는 형상의 중심, 주인공의 성격을 고유한 개성으로 파악하는것이였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개성적인 인간성격을 담보로 참신하고 특색있는 생활과 생활의 흐름새-구성조직을 발견하는것이였다.

비반복적인 종자와 고유한 개성, 참신한 생활과 그 흐름새, 여기에 힘을 넣어야 형상의 독창성을 믿음직하게 떠올릴수 있다는것이 대장편소설권의 창조과정에 소설문학이 새삼스럽게 새겨안은 창조미학이였다.

작가들은 우선 앞을 막아선 도식과 류사성의 장벽에 종자론의 위력한 무기로 파렬구를 내었다.

주체사실주의가 쥐여준 종자론은 첫 돌파구의 《위훈자》였다.

소설가들은 창작에서 종자문제, 종자를 바로 끌라잡지 않고는 인간학으로서의 품위와 감화력을 보장할수없다는 주체의 창작원리를 신념과 의지의 인간들, 60여명에 대한 소설 매편을 독창성이 뚜렷한 개성적인 작품들로 만들어내기 위한 선행공정으로, 필수적인 전제로 내세웠다.

참다운 종자란 본성에서 비반복적인것이다. 그것은 종자가 작가에 의하여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간과 인생에 관한 자기의 철학적일가견을 소유한 작가가 현실에 있는 구체적인 생활소재에서 사상적알맹이를 찾아낸다고 할 때 그것은 결코 갈아질수 없는 비반복성을 가지기마련이다. 인생문제에 자기의 철학적인 일가견을 세우지 못한 작가, 생활의 구체성, 다양성에 깊이 침투하여 감각하고 사색하지 않는 작가만이 추상화되고 개념화된 사회정치학을 생경하게 그려내게 되며 그로 인한 작품세계의 류

사성에 골머리를 앓는 법이다.

소설가들은 문학작품의 종자를 단순한 사상적알맹이로가 아니라 명확히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라고 정식화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뜻을 새겨안고 탐구를 적극 벌리였다.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란 그것이 생활속에 있고 생활에서 골라쥐게 되는 인간문제의 철학적인 알맹이라는 의미와 함께 생활적인 사상적알맹이, 생활적인 징표와 형식을 가진 사상적알맹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생활의 참신한 형식을 띤 사상적알맹이를 탐구하는데 종자탐구의 본도가 있었으며 비반복성, 독창성의 근본비결도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대장편소설권은 형상의 독창성을 위한 출발점과 근본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선군시대의 주체문학이 이 주체의 작품에서 요구한 종자는 유일한 중요과제, 다시말하여 어떻게 투사들이 지나간 세월 최악의 역경속에서 통일애국의 신념을 지켜낼수 있었는가 하는 《비전향》의 근본요인, 기본비결을 밝혀주는 인간문제에로지향되였었다. 바로 이 유일한 중요과제가 비반복적인 종자들의 풍만한 수확으로 실현된것이다.

몇작품의 레만이라도 보자.

장편소설 《자유》는 민족의 자유는 통일이고 통일은 민족의 자유이라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를 끌라잡고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통일이 없이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수 없다는 문제를 형상적으로 해명하고있다. 그리하여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그 자유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리라는 사상을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이러한 종자는 작품에서 오세형의 통일을 위한 투쟁은 곧 자유를 위한 투쟁이였으며 자유를 둘러싼 인간들의 서로 다른 견해를 하나로 합쳐가는 과정으로 되게 형상을 꽃피울수 있게 하였다.

장편소설 《축복》(최봉무 작)의 작가는 위인의 축복속에 한생을 살 때 평범한 인간도 영웅으로 된다는 독특한 종자를 끌라잡았으며 장편소설 《의리》의 작가는 수령을 위대한 어버이로 우러러 의리를 다해 받드는 삶에 강자로 되는 비결이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작품의 종자로 선택하였다.

장편소설 《삼태성》은 동지와 함께 있는 삶은 참다운 인생길의 굳건한 터전이라는 의의있는 종자를 심고있으며 장편소설 《재부》는 이와 또 다르게 지조는 생명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고귀한 재부라는 특색있는 종자를 끌라잡고있다.

애국애족애민의 고결한 사랑을 바치고 또 바치는 참다운 헌신을 종자로 한 장편소설 《나의 추억 40년》, 민족분렬의 고통을 뼈에 새긴 인간의 좌절을 모르는 불굴의 삶을 종자로 끌라잡은 장편소설 《최후의 한사람》 그리고 가문의 혈통은 피



줄로가 아니라 애국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상적 알맹이를 내세우고있는 장편소설 《촉백나무》, 영원하고 절대적인 정의이며 진리인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여기에 인간적인 삶이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작품의 핵으로 하고있는 장편소설 《하얀모래불》 등 장편소설권에 속한 어느 작품을 보아도 특색있는 종자가 박혀있지 않는 작품이란 없다.

독창적인 형상을 위하여 다음으로 작가들이 내세운 과제는 투사 주인공을 개성적인 성격으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작품형상의 중심을 이루는 주인공성격의 개성적특징을 파악하여야 작품의 독창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

작가들은 투사 주인공의 성격을 실재한 원형에 기초하여 자신이 발견한 독특한 성격으로 되게 하는데 각별한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전형화의 근본원칙의 하나인 성격의 개성화문제가 비반복성, 독창성을 위한 중심과제로 나서게 되었다.

작가들은 인간관계와 성격탐구를 다양하게 립체적으로 벌려나가면서 투사 주인공을 세계관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기질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파고들어 그 특성을 부각하였다.

주인공성격의 개성화를 위한 노력은 한편 특색있는 생활과 생활의 흐름새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과의 연관속에 벌어졌다. 생활과 그 흐름새는 인간성격의 구체적인 표현형식이며 고유한 개성을 살리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징적인 생활과 생활의 독특한 흐름새는 주인공의 개성을 파악하는 기초를 주었으며 주인공의 개성적인 성격은 한편 그에 마땅한 생활과 생활의 흐름 새를 찾는 담보를 주었다.

이처럼 연관된 추구끝에 성격과 생활, 생활의 흐름새로서의 구성조직이 자기의 독특한 면모를 나타냄으로써 형상의 독창성은 믿음직하게 실현되었다.

그러한 폐로 장편소설 《재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설에서 작가가 찾은 주인공 백승의 독특한 성격은 꺾일지언정 굽힘을 모르는 울퉁은 개성이다.

주인공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들이 그에게 내린 평가들을 놓고도 그의 개성적면모를 명료히 감득할 수 있다. 서울의 대부호인 누이 백순복, 《영산문고》의 주인 송미화 등의 시점에서는 《송죽같은 기개를 지닌 사람》, 《남아중에서도 뛰어난 남아》, 《투사중에서도 가장 굳센 투사》로 비쳐지고있으며 교형리들의 시각에서는 《독사같이 지독한 빨갱이》요, 《도저히 굽힐 재간이 없는 경골한》, 《사상에 미친 산부처》로 이야기되고있다.

《지조는 나의 생명이나 같아요. 어떻게 지켜낸 지조길래 이제 와서 그것을 원썬들에게 빼앗긴단 말이에요. 빼앗길바엔 차라리 목숨을 내놓겠어요.》

이것은 놈들의 모략을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기업을 넘겨주려는 누이에게 백승이 하는 절절한 말이다.

사나이 한번 세상에 태어났다가 통일애국투사로 끝까지 살려는 그 송죽같이 고결한 기상에서 리숙인 누이도 결국은 동생의 의지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주인공의 이러한 개성적성격을 담보로 하여 재부중의 재부로서의 지조에 관한 사상적알맹이를 살릴 수 있는 생활과 구성조직도 특색있게 탐구되고있다. 그것은 출옥후의 생활을 현재로 놓고 옥중생활을 회상의 수법으로 그려주는 독특한 방식이다.

소설은 주인공 백승이 출옥하여 서울의 대부호인 자기 누이의 집에서 짧은 기간이나마 누리게 되는 호화로운 생활을 전면에 보여주면서 지나간 옥중생활을 회상의 방식으로 그려내고있다. 작품은 회상으로 들어가는 계기를 주인공의 생활과 감정의 론리에 맞게 여러모로 탐구하였는데 생활의 호화로운 변화에서 어쩔수없이 떠오르게 되는 지옥같은 어제날을 대조적으로 끌어내기도 하고 의리를 지켜 동지들과 련사의 유자녀들을 찾아다니는 정황에서 지나간 투쟁생활의 회고에 들어서기도 한다. 이것은 회상식구성이면서도 감옥안에서 감옥밖의 생활을 보여주는 다른 작품들에서의 보통 회상방식과 구별되는 전도된 회상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류다른 회상식구성은 호화로운 생활의 한가운데 주인공을 세우고 그의 송죽같이 굳은 개성을 부각시켰으며 재부와 지조의 호상관계에 관한 이 소설 고유의 생활철학을 밝히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였다. 마침내 소설은 독창적이고 이채로운 작품이 되었다.

장편소설 《새벽하늘》(주유훈 작)을 보더라도 작가는 투사-주인공의 동지관계, 인간관계의 밑바탕에서 《정의 철학》을 찾아냄과 동시에 주인공 안성태를 정에 살고 정에 죽을 줄 아는 열혈의 성격으로 파악하였다.

정의 인간, 열혈의 개성, 작가가 자기 주인공에게서 발견한 독자적인 성격이 바로 이것이었다.

《사람이 정과 서로의 사랑이 없으면 천국도 지옥이고 사람이 서로 애가 돌고 사랑만 나눈다면 지옥속에서도 억세게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동무사랑, 동지사랑, 아 이것이 곧 삶이다.》

주인공 안성태의 이 불같은 웨침속에 그의 열

혈의 개성이 참으로 진하게 안겨오고있다.

이와 달리 장편소설 《내 땅》에서 작가가 찾은 주인공 전지동의 개성은 땅처럼 고지식하고 직심스러운 성격이었다. 이러한 개성적바탕에 은덕을 잇으면 짐승이 되고 잇지 않아야 사람이 된다는 생활신조가 굳건히 뿌리내렸다. 어버이수령님 안겨주신 분여받은 《내 땅》을 심장에 간직한 땅처럼 고지식하고 직심스러운 이 인간은 죽음의 역경에 처하여서도 불사의 힘으로 일어선다. 옥중에서 의술이나 정성만으로는 어쩔수 없는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전지동은 품안에 간직했던 《내 땅》의 흙을 씹으며 기적적으로 소생하는것이다. 이처럼 독특한 개성들에는 특색있는 생활과 구성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이 성격의 개성적인 면모를 돋구기마련이다.

장편소설 《최후의 한사람》의 작가가 주인공 한제완에게서 찾은 생활들을 보자.

통일의 원수에 대한 원한과 증오로 만장악되고 그것으로 하여 결코 굴함을 모르는 특이한 성격, 이것이 작가가 찾은 투사 주인공의 주되는 개성이었다.

주인공이 감방으로 처음 들어갈 때의 장면과 감방에서 가족들의 제사를 지내는 장면 같은것은 그 개성에 합당한 특색있는 생활들이다. 새로 들어오는 《죄수》는 하기 힘든 고달픈 몸가짐으로 외다리뼉을 하면서 변기통옆까지 가야만 하는 《관례》, 그것을 못할 때 《떡봉이》와 잡범들의 못매를 맞아야 하는 억울한 정황에서 주인공은 이제껏 누구도 해내지 못한 그 고역을 이를 악물고 끝끝내 해내고야마는것이다.

온 가족이 원주놈들에게 학살당했다는 비보를 전해듣고 간수 몰래 돌아왔아 가족제를 지내는 장면은 또 얼마나 강한 인상을 주는 생활인가. 어느새 그 사연을 알고 감방안의 잡범들마저 모두가 말없이 돌아왔아 그 《제사》에 함께 참례한다. 그것을 보는 주인공의 가슴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차오른다.

장편소설 《돌아오다》(리동구 작)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인공 김성규에게 선물로 주신 푸른색 만년필과 관련한 생활과 그 만년필로 이어지는 생활의 흐름새가 특색있게 담겨있다.

그 만년필은 해방후 성규가 고급당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버이수령님께서 공부를 잘하라며 사랑과 기대를 담아주신 사연깊은 선물이었다. 그 푸른색만년필은 옥중의 주인공으로부터 정태봉을 통해 어머니에게로 전달되며 다시 아버지를 거쳐 작은어머니에게로, 수십년세월을 지나 출옥한 성규에게 되돌아온다.

민족의 태양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

모, 기어이 살아서 수령님을 다시 만나뵈와야 한다는 열망으로 투쟁의 나날을 이어가며 사람들을 감화시키나가는 류다른 인생이 여기에 실렸다.

탐구된 구성, 독창적인 구성을 두고 말할 때 장편소설 《내려설수 없다》(리준길 작)를 언급해야 할것이다.

소설에는 안락에 빠지는 범속한 생의 궤도에로 결코 내려설수 없는 주인공 원익보의 통일애국에로 향한 순결한 헌신의 궤도, 투사적인 생의 높은 궤도를 뚜렷이 밝혀주는 엷음새가 있다. 그것은 수십년간의 옥살이를 한해에 집약시켜 확대한 특색있는 구성조직이다.

그 한해는 류다른 인연으로 주인공의 옥바라지를 하게 된 미모의 처녀대학생 홍채련이 인정에서 시작하여련모의 감정을 불태운 한해이며 홍채련의 시야에 비쳐진 주인공의 비범한 성격, 헌신의 인생관을 확대경을 가져다댄듯 날날이 드러내 보여주는 옥중생활의 비상한 한해 흐름이다. 상대인물 홍채련의 시점, 그 처녀의 새로운 인식과 각성, 성장은 곧 주인공을 말해주는 확대경과도 같은것이다.

수십년의 장기수생활을 지루하고 평면적인 순차적과정으로가 아니라 성격중심으로 한해에 집약하고 확대시켜 보여준 여기에 구성의 탐구에 기울인 노력의 자취가 있다.

작가들의 개성적인 탐구는 이밖에도 형상기교와 언어표현 등 여러 분야에서 힘있게 벌어졌다. 이 모든 노력들로 하여 대장편소설권의 매 작품들은 마침내 자기의 얼굴을 가진 60여편중의 한편으로 되게 되었으며 말겨진 사명과 역할을 다 할수 있게 되었다.

자질과 기량을 다지면서 작품의 개성적특성을 살리기 위한 이처럼 피타는 탐구과정은 창작사업의 주인인 소설가들의 창발성, 창조적능력을 가일층 높여준 결정적인 계기로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린다는것은 작가가 당의 사상에 엄격히 의거하고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며 집체적지혜에 의거하면서 작품의 형상을 창발적으로 하는것을 의미한다는 가르치심을 통하여 개성적특성의 본질을 작가의 창발성문제에 귀결시켜 밝혀주신바 있다. 창작사업에서의 개성적특성, 창작적개성의 본질적인 의미는 단순한 비반복성의 걸음을 넘어 새것, 자기의것을 창조하는 능력에 있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새로운것의 창조를 통하여 남다른 경지를 가지게 되는 자주적존재로서의 작가의 창발력, 창조성의 높이에 있는것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창작적개성이 모든 예술가에게 다 있는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개성

은 높은 정치적식견과 풍부한 예술적자질을 갖추고있는 창작가에게서만 볼수 있는것이며 이것은 훌륭한 예술가의 품격을 특징지어주는 주요한 요소로 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참으로 대장편소설권의 창조는 형상의 독창성과 개성적특성을 절실한 요구로 내세우고 즐기치게 실현함으로써 작가들의 실력과 창조적능력을 비상이 높인 보람 큰 성장의 마당이었다.

작품의 독자성을 살리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소설가들은 창작력과 창조적능력을 비상이 높였다. 젊은 작가들이 창작적개성을 확연히 드러내게 되었으며 중견작가들은 그것을 더욱 튼튼히 확립하고 세련완성시켰다.

우리 소설가들은 각이한 주제, 각양한 소설형식을 능란하게 다룰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소유하고 고유한 창작적개성들을 굳건히 다진 미더운 대오로 자라났다. 이것은 문학운동사의 평범한 3년으로는 엄두도 낼수 없는 주체적창작력량강화의 도약적인 사변이었다.

이 사변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대장편소설권의 창작전투를 승리적으로 돌파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참으로 값진 열매이다.

창조의 나날은 작가혁명의 보람찬 나날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투사 주인공들이 지닌 신념과 의지를 따라배워 정치사상적으로나 정신도덕적으로 자신들을 더욱 높이는 주체형의 인간장성의 뜻깊은 과정이었다.

《우리도 비전향장기수들이요!》

창작실마다에서 자주 올리던 작가들의 해학적인 이 진심의 말에는 영예로운 창작과제를 맡은

공지와 함께 자신들의 혁명적단련과 성장에 대한 자부심도 힘있게 울리고있었다. 그리하여 창조의 3년은 크나큰 사랑에 대한 보답의 3년으로 수놓아졌다. 참으로 사상과 정신, 신념과 의지를 더욱 높여주고 자질과 실력, 창작기량과 창조적능력을 튼튼히 다져준 수양과 투쟁, 탐구와 창조의 나날이 있어 우리 소설가들은 마치도 혁명대학과 문학대학의 두 과정을 동시에 거친듯 창작의 강자들로 변모되었다.

새 세기 벽두에 우리 소설가대오에서는 30~40대 나이의 작가들이 주력으로 등장하는 경이로운 사변이 벌어졌다. 이것은 인간강자의 새로운 형상세계를 창조한것에 못지 않은 주체적창작력량강화의 귀중한 성과이다.

창작사업의 담당자, 주인은 작가이며 작가력량의 준비여하에 문학의 개화와 미래가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새세대작가들로 주력을 확대하고 갱신한 우리의 주체문학대오, 그것은 새 세기 선군문학의 전면적개화발전을 담보하는 믿음직한 도약대이다.

새 세기 선군소설문학의 전도는 참으로 양양하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세련된 령도아래 높이 올라선 오늘의 령마루에서 우리는 신심에 넘쳐 이렇게 말한다.

당이며, 조국이며.

주체의 선군문학의 앞날을 마음껏 구상하고 설계하시라. 그 휘황한 문학세계도 우리는 기어이 창조해낼것이다라고.

21세기의 문예부흥-그것은 선군붓대를 억세게 틀어진 창작의 강자, 우리들의것으로 될것이다.

## ○가사○

# 조국이며 그대와 나

김춘호

태어나 정들었네 조국이며 그대와 나  
한피줄로 이어졌네 조국이며 그대와 나  
안아주고 업어주며 그대 나를 키웠고  
어머니라 부르면서 나는 그대 따르네  
조국이며 그대와 나 정도 깊은 그대와 나

좋은 날만 함께 사나 조국이며 그대와 나  
힘겨워도 함께 가네 조국이며 그대와 나  
찬서리에 시들세라 그대 나를 살피고

큰 나무의 아지처럼 나는 그대 못 떠나  
조국이며 그대와 나 사랑하는 그대와 나

피줄만이 이어졌나 조국이며 그대와 나  
생사운명 함께 하네 조국이며 그대와 나  
불구름도 모두 막아 그대 나를 지키고  
이 심장을 다 바쳐 나는 그대 받들리  
조국이며 그대와 나 한목숨인 그대와 나

# 나의 위치

리래식

나는 선반기를 돌리는 사람  
하나의 작업지령을 받으며  
날마다 볼트와 나트만을 짚아내는  
나의 위치는 크지 않다

우람찬 프레스들의 동음에  
나의 기대소리는 잦아들고  
하루계획을 넘쳐해도  
내 총화할 제품의 양은  
남보다 많지는 못하다

그리고 하는 일이 눈에 띄우지 않아  
내 만약 이곳을 떠나간대도  
작업반의 그 누구든  
내 할일 얼마든지  
대신할수 있으리

그러나 로력의 한자리로만 생각지 않은  
이 선반기앞에서  
시대의 부름에 숨결을 맞추며  
하루도 한달도 아닌  
온 한생을 다 바쳐갈 마음 그것은  
그 누구와도 교대할수 없거니

어이 알라  
내 짚는 제품의 무게는 가벼워도  
위용찬란한 조국의 창조물들에  
크나큰 보탬을 더하고있는지  
대양과 대륙, 우주를 꿰뚫어  
또다시 우리의 원썬들을 전몰케 할  
무적의 철의 흐름에  
노도치는 격랑을 일으킬지

크든작든  
조국이 정해준 지점이기에  
그 누구든 한생을 고여  
조국을 섬겨야 할 공민의 이 위치-

이 위치가 아니냐  
불달린 기수를 바다에 돌리며  
그날의 자폭영웅이 결사옹위항로로 열어놓은...그  
위치가 아니더냐  
불타는 구호나무를 가슴으로 끌어안으며  
그날의 무재봉용사들이 신념의 리정표로  
세워놓은...

한자리를 지킬줄 몰랐다면  
푸른 숲의 영웅이 돌바위에 흠집을 얹으며  
어떻게 한생을 살수 있었고  
너성과학자영웅이 연구소 실험실에  
어떻게 일생을 깡그리 다 뚫었으랴

한치라도 그 위치를 탈선하면  
값높은 위훈은 천리만리 멀어지고  
넋을 다해 그 위치를 지켜가면  
빛나는 영예가 차례지거니  
날마다 내가 서는 나의 작은 일터에도  
애국의 큰 길은 뻗어있어라

후회 없으리라  
내 한생 작은 선반기를 돌린다해도  
준엄한 날 어머니조국앞에  
스스로 선택할 전사의 위치도  
바로 예서 시작되나니  
내 여기서 삶을 빛내고  
내 여기서 공민의 행복을 누리리라

## 가사

# 고마운 병사

황 련

마을앞을 지나는 병사들 볼 때면  
잊지 못할 그 병사 눈에 어려와  
찬비오는 그날에 터전 쪽 막아준  
이름도 묻지 못한 못 잊을 병사  
아 이름도 묻지 못한 못 잊을 그 병사

물흐르는 군복을 말리워 입고서  
마을에서 잠깐만 쉬어가래도  
전투임무 바쁘다 웃으며 떠나간

빨간 령장 빛나던 미더운 병사  
아 빨간 령장 빛나던 미더운 그 병사

잊지 못할 그 병사 찾을 길 없으니  
안타까운 이 마음 더해만가요  
우리 군대 모두가 한모습 같으니  
어디 가서 찾을가 고마운 병사  
아 장군님 키워주신 고마운 그 병사

## 시 인 과 화 가

옛날 서울에 산천에 대한 시를 잘 지어 명성을 떨친 한 산수시인이 살고있었다.

그는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명산들을 거의 다 돌아보며 시를 지었으나 오직 백두산에 대한 시만을 짓지 못한것을 두고 늘 한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명산중의 명산인 백두산을 노래한 시 한편도 내놓지 못하고서야 어찌 이 땅에 태어난 산수시인이라고 자처할수 있으랴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거리가 천리나 되는 백두산의 험준한 산줄기와 태고연한 밀림을 시인의 혼자 힘으로 찾아간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하면 백두산으로 올라가볼수 있을까?)

시인이 이런 소원을 안고 지내던 어느날 한 친구가 찾아왔다. 그는 산천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기로 이름난 산수화가였다. 그가 《금강산팔담》이라는 그림을 얼마나 실감있게 그렸던지 그 그림을 보던 한 녀인이 팔담의 초록물에 자기의 흰 치마자락이 물들지 않을까 해서 슬그머니 치마끝을 들어 대보기까지 하였다고한다.

《그대가 오래간만에 왕림하였구려.》

《참으로 기쁜 일이 하나 있어 왔소.》

《기쁜 일이라니 무슨 일이요?》

《내가 백두산으로 가게 되었소!》

《어떻게?》

《한 대신이 임금의 령으로 북쪽변경을 순행하게 되었는데 나에게 동행하라는 통지를 보내왔구려.》

《그래?!》

《이번 길에 백두산에도 올라가는데 나더러 백두산천지를 한쪽 그려내라는것 아니겠소.》

《그대에게 그런 행운이 차례지다니!》

《그럼 그대도 따라나설 마음이 없소?》

《그야 두말하면 잔소리이지만 나같은거야 감히...》

《걱정마오, 내가 대신에게 여쭙어보겠소.》

《그래주면 오죽 고맙겠소.》

화가는 곧 대신에게 산수시인도 같이 가도록 하여줄것을 청하였다.

《천지그림에 명시까지 있으면 더욱 좋은 일이 지.》

대신은 화가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시인을 불러 만나보기까지 하였다.

《천지에 대한 시를 명시중에 명시로 한편 써보게.》

《기어이 써내겠소이다.》

시인은 대신과 이렇게 약속하고 평생소원대로

드디어 대신의 일행을 따라 백두산을 향하여 떠나게 되었다.

백두산으로 함께 가게 된 기쁨으로 들떠있던 시인과 화가는 천지를 두고 누가 더 훌륭한 시와 그림을 내놓는가를 겨루어보자고 하였다.

그들이 백두산마루에 올랐을 때는 초가을인지라 날씨가 맑아 백두산아래 펼쳐져있는 천리수해와 아득한 먼곳의 산발들을 한눈에 굽어볼수 있었고 산봉우리로 둘러져있는 바다와 같은 천지도 한쪽의 그림처럼 내려다볼수 있었다.

《아! 천지의 절경은 이 세상 절경중에 절경이로구나!》

시인과 화가는 처음 보는 천지를 그 자리에서 시 한수로 노래하거나 한쪽의 그림으로 옮기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다 대신에게 하루품을 들여야 하겠다고 청하였다.

그리하여 첫날 시인과 화가는 대신일행과 함께 천지와 그 주위의 련봉들을 돌아보기만 하였다.

이날 백두산기슭의 잠푼한 곳에 천막을 둘러치고 밤을 지낸 시인과 화가는 다음날 아침 천지로 올랐다.

그리고 대신일행은 그들이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백두산기슭의 고산지대풍경을 돌아보기로 하였다.

백두산마루에 다시 오른 시인과 화가는 이리저리 돌면서 한동안 천지를 내려다보다가 이제부터 겨루어보자고 하고는 제각기 맞춤형 자리를 골라 잡고 앉았다.

시인은 두루마리종이를 풀어 앞에 펴놓고 화가는 비단폭을 댄 화판을 앞에 놓쳐놓고 앉아서 서로 천지를 내려다보며 깊은 사색에 잠기였다.

그런데 이들이 사색에 잠겨 내려다보는 동안에도 천지의 모습은 여러번 변하였다.

푸른 천지가 잔잔하여 거울을 펴놓은듯 하다가도 다시 보면 잔파도가 해빛에 반짝이며 찰랑이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그우에 연한 젓빛안개가 피어나면서 절경을 한껏 돋구더니 금시 흰 학의 무리처럼 너울거리며 련봉기슭으로 날아오르기도 하였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안개가 갑자기 구름으로 변하여 천지를 뒤덮고 하늘을 가리웠다. 시인은 마치 살아 숨쉬는듯한 천지의 신비로운 절경이 너무도 황홀하여 붓방아만 찼었다. 그것은 새롭게 펼쳐지는 절경을 담아보자고 시구를 더듬어볼 때마다 또다른 절경이 펼쳐지곤 하기때문이었다. 천지변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쓰자면 한정이 없을것만 같았다. 그래서 마음이

더욱 초조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해는 벌써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 초조해진 마음으로 안절부절 못하던 시인은 화가가 어찌하고있는지 궁금하여 고개를 돌려 슬그머니 넘겨다보았다. 그래도 화가는 붓을 흔들고있었다.

(하기야 화가는 순간마다 펼쳐지는 절경을 채색으로 옮겨놓으면 될것이 아닌가.)

시인은 겨루기에서 혹시 화가한테 지지 않을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더욱더 불안해졌다.

(이 일을 어쩐다?)

시인은 방도를 모색하다가 혹시 화가가 그리는 그림을 보면 묘한 착상이 떠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피뚱 들었다.

(웁지, 그가 그리는 그림을 한번 보자.)

시인은 펴놓았던 빈 종이장을 말아쥐고 화가가 있는 곳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이때였다.

다가오는 시인을 얼핏 본 화가는 무릎을 치면서 붓을 던졌다.

《끝이로다!》

이 소리를 들은 시인은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아차, 벌써 그림을 다 끝냈구나!)

화가의 결으로 다가간 시인은 자기가 내기에서 졌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내가 졌소!》

《지다니요? 그대는 벌써 끝내고 일어서구요요?》

《영? 내가 먼저 끝냈다구요?》

《내 화판은 아직도 백판이요.》

화가는 시인에게 화판을 내보였다. 그야말로 한 점의 채색도 찍히지 않은 백판이었다. 시인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런데 방금 무릎을 치면서 〈끝이로다!〉라고 한말은?》

《저렇게 천변만화하는 천지의 절경을 시구로써나 담아볼수 있지 어찌 한판의 한쪽에 다 담을수 있겠소? 그래서 나는 천지를 그리는데서는 시인을 이길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릎을 치며 〈끝이로다!〉라고 말했던거요.》

《허허, 나도 그대와 같은 처지요.》

시인은 쥐고 온 빈 종이장을 화가에게 보였다.

《그러면 천지의 절경을 시구로도 담을수 없단 말ियो?》

화가는 어리둥절해하였다.

《그럼소!》

이리하여 해저물도록 시 한편 짓지 못하고 그림 한쪽 그리지 못한채 천막으로 돌아온 그들은 대신앞에서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죄송하나다.》

시인과 화가에게서 사연을 듣고난 대신은 허구프게 웃었다.

《허허, 그러니 천지절경은 시구나 채색우에 있는 절경이란 말이고?!》

《그럼소이다.》

이때로부터 백두산천지의 신비로운 절경은 시구나 채색우에 있다는 말이 널리 전해오게 되었다고 한다.

허종구

## ○가사○

# 쇠물도 익었네 사랑도 익었네

안명애

출강 앞둔 전기로엔 붉은 쇠물 넘실넘실  
청춘의 사랑도 무르익어 넘실넘실  
용해공총각과 운전공처녀  
쇠물속에 바친 마음 뜨겁고도 순결해  
쇠물도 익었네 사랑도 익었네

쇠물이 맺어준 그들의 첫사랑  
붉은 노을 가득히 용해장을 물들이네  
용해공총각과 운전공처녀  
쇠물속에 바친 마음 뜨겁고도 순결해

쇠물도 익었네 사랑도 익었네

강성대국 무쇠기둥 여기서 부어내며  
내 나라 받들어 한생을 살리라  
용해공총각과 운전공처녀  
쇠물속에 바친 마음 뜨겁고도 순결해  
쇠물도 익었네 사랑도 익었네

아 그 사랑 쇠물보다 뜨거워

## 50년대 래어난 나의 벗들아

손광주

### 그대들의 눈빛앞에

세상에 태어나 100날만에  
아버지는 야간어로전에서 못돌아오고  
내 형과 누이들은 모두  
미제놈 세균탄에 앓다  
숨지고

불행한 가정에 외로이 남은 자식-  
미군놈 폭격을 피해 뺨기발을 매는 엄마  
발머리에서 철없는 그 애기는  
엄마를 보며 웃고

불의에 달려든 썩썩기때  
소이탄불구름을 어머니와 아들의 머리우에  
들부을 때  
애기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  
몇오리 안되는 그 머리에도 불이 당겼다

어데서 달려왔더냐  
위생가방은 가슴우에서 널뛰기하고  
나를 안고 머리의 불을 털어버린  
간호원 군대누나  
비발치는 총탄에 한몸을 내대며  
피흐르는 가슴으로 그냥  
너무도 작은 이 몸을 덮어안았다

폭음이 지나가고  
불비도 가셔졌을 때  
여기저기에서 모여든  
사람들  
누군가의 떨려나는 무릎에 머리 고이고  
그 누나는 한껏 웃으며 그렇게 갔다

아직도 울음을 가시지 못한  
너무도 천진한 내 작은 눈동자를 그냥 바라보며

아, 누나  
군대누나!  
그가 마감으로  
그렇게 남기고 간 웃음은  
그가 지켜낸 내 숨결이었다.

저 맑은 하늘  
푸르른 대지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던  
저기 두팔벌려 마주만 오는  
솔푸른 그 정든 산천이었다

그렇게 가지 않았던가  
불뿔는 적화구에  
피더운 가슴들을 내대이며  
두팔다리를 잃고서도  
수류탄뭉음 입에 물고  
적진 향해 폭풍같이 날아내리며

아, 그날에  
너무도 작은 가슴에 다 이어준  
그 불같은 생명  
불타는 그 웃음은  
그네들이 피흘리며 바라본  
간절한 미래  
그들이 가슴속에 후더이 안고간  
조국이었다!

### 그 웃음과 그 즐거움이...

이 땅 어데 가나  
재더미우에서  
제일 먼저 일떠선것이 학교였다  
종소리는 예대로 울리며  
해빛에 웃는 창가로 우리를 불렀지

폭탄구멍이를 메우며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은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우리의 웃음과 즐거움 위해

그렇게 땀을 바치며 보람을 느끼었지

눈앞에 펼쳐진  
바다가 소년단야영소며  
솔푸른 저 산언덕의 푸른 숲이  
언제나 우리를 불렀지

밝아오는 조국땅에 노을빛으로  
붉게 타는 넥타이를 펄펄 날려라  
파도는 물려와 기슭을 치고  
푸른 숲은 우리를 기다려 반겨주는듯  
저 쾌청한 맑은 하늘이  
저 드넓은 대지가  
통채로 달려와  
우리를 애무하며 함께 즐기는듯  
온 세상이 우리의 것이었지

철없던 그 시절에  
어떤 때는 학교에도 가지 않고  
불발탄깎지우에 올라앉아

바다를 가르느 기수라고 가정하며  
해종일 놀다가  
선생님과 어머니앞에 머리를 펴구었지

다시 보아라  
너를 위해 펼쳐진 저 하늘 이 거리가  
어떻게 이 땅우에 흐르고있는가를  
아, 나는 밤새껏  
어린 마음에도 걱정에 북받쳐  
잠을 못이루었다

아버이수령님 노래 부르며  
우리가 자란  
이 나라의 맑고 푸른 하늘아래  
그 모든 행복과 기쁨을 피로써 가꾸어낸  
그 숭엄한 넋들이 바라보는  
즐거웁던 그 세월이  
내 가슴에 인생의 년륜을 뜨겁게 새긴  
그대로 성장의 나날이었지

## 50년대 태어난 나의 벗들아!

내 철이 들면서 군복을 입고  
엄숙한 선서 다지며 전호에도 서보고  
청춘시절 그대로는 보낼수 없어  
불타는 심장 안고  
청년돌격대기발밑에 세워보았다

이천-세포  
《백산청년역》-  
몸에 바줄을 묶고  
바위돌을 뜯어내며 날아오르던  
대발과구간의 아찔한 칼벼랑이여

송림의 로벅돌 생산로-  
불길 충천하던 화염이여  
비료공장건설장의  
아스라한 트라스우여  
부전호반을 청춘의 심장으로 덥히며  
광산을 개발하던 불타는 나날이여  
령하 30도 추위속에서  
허리치는 감탕에 뛰어들어  
우리 일떠세워간 언제들이여

내 용접불꽃 피우던 그날의 전투장-  
그렇게 흘린 땀방울들은  
오늘에 세상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쁘트장, 물놀이장, 추녀놓은 인민대학습당  
빙상관이며 경기장

저기 산원에도 다 스며있구나

하지만 우리 바친것보다  
바칠것이 더 많은 세대!  
피흘리며 쓰러지며  
애어린 청춘들이  
락동강불모래우에 불을 비비며  
마감으로 그리도 그려본  
나는 너는  
그들이  
목숨을 던지면서도  
심장에 안고서 못놓은  
사랑이었다

오늘도 조국앞에 나를 세우고  
그 50년대동이라고 말할수 있게  
내 살았던가  
우리의 나이는  
조국이 가장 엄숙한 시절에  
이 땅에 기록한 그 나이다  
가장 준엄한 그 시각에  
50년대영웅들이 목숨으로 이어준 그 나이다!

아, 시련도 많은 조국과 함께  
우리의 귀밑머리에도 흰서리가 들리우누나  
50년대동이 나의 벗들아  
이 땅 그 어데 헤어져있건



마음속엔 전호를 깊숙이 파고  
시대를 안고 그네들 심장을 불태우리니  
날들은 간다 시간은 흐른다  
미제국주의는 최후의 발악을 다하고  
날을 따라 이 땅우엔 준엄한 시각이 흐른다  
불같은 시간들은 맥박처럼 안겨지며  
우리의 가슴가슴을 두드린다

화산을 안은 가슴들아  
그날의 눈빛들이 우리를 본다  
조국이 본다  
우뢰치는 그 기슭에서 고고성 터치며  
불같은 인생의 닳을 올린  
이 땅우에 폭풍의 산아  
50년대동이들아  
언제나 불타는 시절에 살자 나의 벗들아!

## 억천만번 죽더라도

김정곤

《동무들아 준비하라  
손에다 든 무장》  
피타는 마디마디가  
우리 군대 행진가의 첫 기슭에  
총의 격침처럼 박혀있다

노예로부터 주인으로  
굴욕으로부터 존엄으로  
총대가 올려세워준 운명들이  
침략자와 결사전을 치르자고  
멸적의 날창을 꽃아 틀어잡은 총

병사만이 잡은 총이 아니다.  
창조의 불꽃 날려가면서도  
마음속에 엮고산 총  
낫을 들고 가을을 걷어들일 때도  
다른 한손엔 언제나 놓지 않은 총

회상기갈피를 번지면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지금도 그 웨침소리 가슴을 두드리고  
중기의 압철을 턱으로 누른 영웅은  
교문앞에서도 《탄약을 채우라》 부르짖는다

총이자 목숨이다  
총이자 권리이고 자주이고  
총이자 운명이며 미래인  
그래서 목숨은 버리어도  
총만은 불안고 넘겨주는것이 이 땅의 혈통

아 아!  
총과 운명이 하나의 동체가 되어  
숲처럼 일떠선 총대의 조국  
맞선 원쑤가 발악을 한다 하라

억천만을 손을 짚어 세이면서라도  
마지막 한놈까지 갈겨치우는것이  
우리 총대의 체질이며 성격!

그래서 우리는  
행진가의 후렴구에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고  
목숨같은 맹약을  
총신강처럼 감아놓았다

유모아

## 총각의 허영심

《너의 집에 있는 책을 몇권 가져다 주렴. 두렵고  
뚜껑이 벗있는것으로, 빨리!》

《그건 왜?》

《오늘 그 처녀가 우리 집에 와보겠대!》

## 되는대로 일한 후과

어느날 한 목장에 화재사고가 일어나 젓소들이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때 소방대가 급히  
달려와 모든 호스를 동원하여 물을 뿌렸다. 불을  
완전히 끈 후 소방대 대장은 목장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불에 타죽은 소는 한마리도 없고 모두 물에  
빠져죽었습니다.》

## 인풍루의 유래

강계 인풍루는 옛날부터 관서8경의 하나로 유명한 곳이다.

유정하게 감돌아흐르는 장자강물결이 두줄기로 갈라지는 묘한 야산우에 이 루각이 서있다.

봄이면 꽃에, 가을이면 단풍에 물들어 그 자태 황홀하고 겨울이면 만산 덮은 흰눈우에 우뚝 솟아 그 모습 기개높은 인풍루.

하다면 인풍루는 언제 누구에 의해 세워졌으며 거기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력사유적과 유물은 선조들이 어떤 문화를 창조하고 어떻게 생활하였으며 어떠한 길을 걸어 발전하여왔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실물자료임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500년도 훨씬 넘는 1472년, 성종왕 즉위 3년이였다. (인풍루는 1472년에 처음 세웠으며 지금 있는 건물은 1680년에 다시 세운것이다.)

뜨겁게 작열하던 태양도 그만 지친듯 서산쪽으로 기울어가고 귀아프게 울어예던 매미의 울음소리도 동안이 뜬해진 여름날의 석양녘이였다.

두사람이 활기있게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무장다운 결결한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며 장대한 몸을 들썩이는 중년의 사나이는 바로 이 시기 병조판서로 있던 정문형이란 사람이었다.

《그간 외지의 순행길에서 고생도 많으셨는데 회포도 나눌겸 새로 지은 장대에 올라 피로나 푸시지요.》하며 도포자락을 펴덕이며 앞장서 안내하는 사람은 강계부사 윤말손이였다.

《그리하지!》하며 선선히 따라서는 정문형이였다.

이들은 이미 조정에서 일할 때부터 면목이 있는 사이였다.

세조집권시기부터 이어져오던 복잡한 국내외정세는 성종때 와서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왕가물과 큰물로 하여 흉년이 거듭되고 거기에다 봉건통치배들의 학정까지 겹쳐들어 전국 각지에서 술한 사람들이 굶어죽고 생업을 버린 농민들이 무리로 살길을 찾아 류랑하였다. 더는 참을래야 참을수 없는 농민들이 손에 병쟁기를 들고 곳곳에서 판가를 습격하는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국내사정이 이렇듯 어수선했는데다가 북방의 정

세도 심상치 않았다. 국경밖에 등지를 틀고있는 너진족들은 혼란된 틈을 타서 지경을 넘어 들어와 살인략탈행위를 빈번히 감행하군 하였다.

인민들의 원성을 녹잡히는 한편 북방방비에 힘을 넣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변이 닥쳐올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성종왕은 북방지역에 대한 방비대책을 세울 목적으로 중앙관리들을 서북면지역에 파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중추원관리였던 윤말손은 강계부사로 되어 이곳에 오게 되였다.

《경은 부디 짐의 뜻을 잊지 말고 백성들을 안착시키고 놈들을 제압하여 나라의 근심을 덜것이다.》하고 간곡히 말하던 성종왕의 부탁을 어느 하루 잊지않은 윤말손은 지난 1년기간 강계지역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힘썼다.

정문형은 윤말손이 여기 와서 처음으로 힘을 넣어 건설한 장대우에 올랐다.

옛날에 장대는 군사를 모집하여 훈련시키며 열병식도 거행하는 장소였으며 유사시 장수들의 지휘터이기도 하였다.

동쪽면은 4간, 서쪽면은 5간, 남북쪽인 옆면은 3간인 장방형의 루각에는 윤말손의 진심이 어린 소박한 주안상이 차려져있었다.

정문형은 갓 세운 루각의 큰 기둥들에서 물씬 풍기는 송진내를 기분 좋게 들이키며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푸르싱싱한 나무들이 빼곡이 들어찬 앞산너머에서는 여름날의 해빛이 밝게 뿌려지고있었다.

《허- 역시 우리 나라는 천하제일강산이요! 정말 좋은곳이로구나!》

정문형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감탄하였다.

이 순간 윤말손의 눈빛이 번쩍이였다.

정문형은 조선봉건왕조초기의 대문장가인 정도전의 3대손으로서 문장은 물론 서예에도 조예가 깊은 명망높은 관리였다.

그러니만치 정문형이 이 루각의 현판에 자필로 이름지어준다면 루각은 건축에는 물론이요, 현판 이름과 더불어 더욱 훌륭해질듯싶었다.

《마침 새로 세운 루각이라 맞춤형 이름이 없사온 데 이날을 맞아 좋은 이름을 지어주심이 어떠하오이까?》

《음? ... 그런즉 윤공이 그런 속심이 있어 날에까지 끌고왔구만. 허허...》

정문형은 호탕하게 웃고나서 패히 응했다.

《애들아!-》

윤말손이 호기있게 소리치자 기다렸던듯 어느

새 먹과 종이를 든 하인들이 나타났다.

정문형은 울방자를 틀고앉아 의관을 바로하고 나서 스스로 눈을 감으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뭐라고 했으면 좋을까?》

윤말손이 바짝 다가앉으며 슬쩍 한마디 던지었다.

《이 루각은 군사를 전문으로 하는 장대인지라 용감과 슬기로 나라를 빛내이려는 이 지방사람들의 뜻을 담아 이름을 지어주시오이다.》

그러자 정문형은 머리속으로 생각을 굴리었다.

이 며칠동안 강계부의 여러곳을 돌아다니며 그 많은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

윤말손이 이곳에 부임되자마자 우선 군기를 바로잡고 군사를 늘이며 밤낮으로 병장기를 버리고 이 장대에서 침식하며 군사들의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모르는바가 아니었다.

물론 군사를 길러 적을 막고 나라를 굳건히 하려는 윤말손의 행동은 평가할만 한 것이었다.

그런데...

정문형의 눈가에는 강계부에서 목격한 처참한 광경이 어려왔다.

흉년으로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이 먹을것을 찾아 산나물을 캐고 송기를 벗기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포악한 장수들과 아전부리들은 엄청난 군포부담을 들쳐워 집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가마마저 악착하게 걷어들었다질 않는가.

다른 한쪽에서는 먹지 못해 파리해진 군사들이 장수들의 무서운 호령과 채찍밑에서 밤낮으로 신역을 치르고있었다.

(확실히 문제가 있다. 문제도 큰 문제가... 이래가지고는 변방을 굳건히 할수 없다!)

정문형은 윤말손에게 떠나기 전에 꼭 일깨워주고싶었다. 그리고 왕의 어명을 받은 조정의 관리로서, 서북쪽관문지역인 강계부사로서 그가 반드시 알고있어야 할 정사방법을 현판에 쓰고싶었다.

(세글자로 윤공에게 내 뜻을 알리리라!)

정문형은 눈을 버쩍 뜨며 소리를 쳤다.

《붓을 내오너라.》

붓을 받아친 그는 하인이 갈아준 향긋한 먹에 붓을 푹 찍어 단숨에 현판에 붓을 상하좌우로 휘갈겼다.

《인풍루》

한글자, 한글자가 마치고 룡이 꿈틀거리듯 현판에 찍히여졌다.

《영?!...》

순간 윤말손의 양미간은 좁아지고 눈은 휘둥그레졌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이요?》

붓을 놓은 정문형은 빙그레 웃으며 어서 해석해보라는듯 윤말손을 바라보았다.

《〈어질 인〉 자에 〈바람 풍〉 이라? ... 정말 모를 뜻이로소이다. 〈어진 풍치〉라니, 원참... 이 지방이 사계절 아름다운 서경이나 개경인줄 아시오이까. 외적들과 맞서있는 변방이요. 방비에 본부의 힘을 쏟아야 할 관문이로소이다.》

윤말손은 모를 일이라는듯 머리를 저었다.

그러니 말손은 《바람 풍》자를 《풍치》라는 뜻으로 해석한 모양이었다.

좀전에 정문형에게 루각주위의 경치를 이야기했더니 그 경치에 반해 이런 피이한 이름을 달아놓은것 같았다.

정문형은 앓음새를 고쳐하며 그에게 말했다.

《대체로 지금 장수로 된자들은 거의나 다 위세와 용맹함만을 뽐내며 매일 말타고 사냥놀이에만 열중하고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할 생각은 아예 않고있소!》

순간 윤말손의 낯색이 파랗게 질렸다.

《그건 무슨 말씀이온지...》

이때 문득 먼 앞산꼭에서 정문형의 그 말을 긍정이나 하듯 때아닌 쾅파리소리, 고함소리가 메아리쳐 울렸다.

정문형은 그 소리에 귀기울이다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란간앞으로 다가갔다.

《저걸 보오. 한창 농사철에 생업에 힘써야 할 농민들을 강제로 끌어내려 짐승사냥에 내몰고있으니 필말이요. 임금께 진상할 공물(강계지방에서는 예로부터 범가죽과 노루, 꿩 등을 비롯한 산짐승과 짐승가죽을 진상해왔다.)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장수들이 제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굶주린 군사들을 사냥에 내몰고있으니 백성들은 어떻게 살라는거요?》

윤말손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휘하 장수들이 군사도 훈련시킬겸 진상품을 마련한다기에 방임해두었는데 감히 제 사리사욕을 채우려들다니?...

윤말손의 가슴은 후두둑 뛴뛰고 주먹은 불끈 움켜졌다.

《제 군사에만 치중하던 나머지 백성들을 소홀히 했소이다. ... 면목이 없소이다!》

윤말손은 진심으로 머리를 숙였다.

윤말손의 강직한 품성을 잘 아는지라 정문형은 그에게 다가가 웃으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하하! 그랬다고 공이 그런것은 아니고...

어찌 큰일하는 사람이 실책이 없겠소! 그러나 그 실책을 제때에 깨닫고 고쳐 실행하는이가 바로 현인이라 하였소. 예로부터 백성을 다스리기를 자기의 친자식과 같이하라 했고 백성과 군사들과 고락을 함께 하라 했거늘 이것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정사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소.

군사를 다스림에 호령은 엄하게 하고 상벌은 명백히 주어야 하니 그것이 바로 〈인〉(어짐)이요, 백성의 어진 근본바탕으로 그들을 따르게 함이

〈풍〉(풍속)이 아니겠소.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그들을 부귀하게 하는것이 바로 성을 튼튼히 하고 군사를 강하게 하는 방책이라고 생각하오.

그러나 그 〈어진 풍속〉은 지금 멀리에 있구려!》

정문형은 답답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지금 우리 군사의 위세에 놀려 오랑캐들이 잠시 잠잠해있지만 백성들의 원한이 높아지고 장수들과 군사들의 마음의 합침이 없다면 앞날에 변란이 없다고 어느 누가 장담하겠소.

이런 때 적들이 덤벼든다면 정예군사라 해도 막아내지 못할것ियो. 원한 품은 백성들이 등을 돌려댄다면 비록 군사들의 손에 검과 활은 쥐여 있으나 갑옷도 입지 못하고 전장에 나선것이나 다름이 없겠으니 성은 쉽사리 적들에게 삼켜버리게 될것ियो.》

윤말손은 자책감에 고개를 푹 수그리고야말았다.

정문형은 그러는 그를 따듯이 위로해주며 말을 이었다.

《윤공! 옛 성인이 이르기를 어진 풍속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자에게는 원쑤가 없다고 했거늘 바로 이루각이름이 그것을 뜻하는것ियो. 공이 나라에 충성다하고저 이 루각을 지었기에 내 오늘 공의 그 충성스러움이 빛을 뿌리기를 바라 인풍이라 이름을 달았으니 부디 이 현판을 마음속의 거울처럼 들여다보며 경계하기를 바라오.》

정문형은 주먹으로 가벼이 윤말손의 어깨를 툭 치며 꺾꺾 웃었다.

《그래 이래도 아무런 뜻이 없다는것ियो?》

윤말손은 정문형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알겠소이다. 제 명심하여 실행하리다!》

둘은 호탕하게 웃으며 손을 더욱 억세게 잡았다.

...

그로부터 어느덧 세월은 멀리로 흘러왔다.

옛 무장들의 념원이 담긴 《어진 풍속》의 실시는 한갓 왕권을 강화하고 무너져가는 봉건국가의 귀통이를 부여잡고 몸부림친 그들나름의 견해였을뿐 실지로 착취사회에서 《어진 정치》는 꿈에도 생각할수 없는 공상일 따름이었다.

하지만 나라의 방비를 굳건히 하여 외적을 물리치려는 그 뜻은 높았으니 그들의 애국의 녀이 어린 《인풍루》는 수백년세월이 흘렀어도 웅장하게 솟아 력사의 그 이야기를 오늘도 전하여주고 있다.

인풍루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야수들의 무차별폭격으로 심한 손상을 입었다. 인풍루는 우리 당의 올바른 문화유물보존정책에 의하여 주체 43(1954)년과 주체 49(1960)년에 옛모습 그대로 훌륭히 복구되어 오늘도 선군시대의 근로자들의 즐거운 문화휴식터로 널리 리용되고있다.

신철진